

韓國書院學報

제
16
호

韓國書院學會
2023.6



목차

■ 일반논문

- 도남서원(道南書院)의 강회(講會)와 강학(講學) 김정운 ◦ 7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정재훈 ◦ 41
조선후기 상주 玉洞書院 원임의 구성과 변화 김순한 ◦ 67
조선시대 箕子 추송의 과정과 그 의미 이남옥 ◦ 109
『儒林外史』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 私學 김수경 ◦ 137

■ 휘보

- 연혁·활동 보고 | 181
- 회칙 | 184
- 편집 규정 | 191
- 논문투고 규정 | 195
- 원고작성 규정 | 201
- 연구윤리 규정 | 205
- 임원 및 편집위원 | 208

■ 일반논문

- ▣ 도남서원(道南書院)의 강회(講會)와 강학(講學)
- ▣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 ▣ 조선후기 상주 玉洞書院 원임의 구성과 변화
- ▣ 조선시대 箕子 추송의 과정과 그 의미
- ▣ 『儒林外史』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 私學

도남서원(道南書院)의 강회(講會)와 강학(講學)

김 정 윤*

- I. 머리말
- II. 사대부와 지방관의 협력과 강학
- III. 원생의 세분화와 거재(居齋) 강화
- IV. 강회의 다양화와 강학의 일상화
- IV. 맺음말

【국문초록】

도남서원(道南書院)은 1605년 정경세(鄭經世)가 주도하여 지역 사대부들의 의견을 모으고, 상주목사와 경상감사의 지원을 받아서 낙동강가에 설립되었다. 상주에 생긴 최초의 서원이고, 으뜸 서원이다. 그러므로 도남서원은 상주지역에서 학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도남서원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정경세였다. 공부는 여럿이 모여 함께 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원을 설립하여 공부하자고 하였다. 정경세는 서원은 지역 사대부가 논의를 일으키고, 지방관이 자원을 지원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만든 도남서원에서 상주 사대부들과 지방관은 함께 공부하였다.

이후 도남서원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서원이 설립되고 100여 년이 지난 18세기 전반 변화를 주도한 것은 권상일(權相一)이었다. 권상일은 1710년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있다가, 1723년 도남서원 원장이 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원규(院規)를 도남서원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서원은 거재유생(居齋儒生)을 유지하고, 거재유생은 강독하고 의리를 강론하는 것을 주로 하며, 거재하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해서는 안 되었다. 심지어 서원에서 과거시험을

* 경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jeongun@knu.ac.kr

준비하는 백일장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대신 거재유생과 별도로 응강(應講)과 제술(製述)유생을 두어 원생의 역할을 세분화 하였다. 거재유생은 서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응강과 제술유생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권상일은 서원이 순수학문 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랐다.

도남서원의 강학은 약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과거공부를 제한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또 거재유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돌려 다시 강회를 열고,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정종로(鄭宗魯)이다. 19세기 전반 정종로는 서원에서 강학을 강조하였고, 규칙을 마련하였다. 각 면(面)을 단위로 강회(講會)를 조직하고,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문목(問目)을 작성하여 스스로 논의하고 고민하도록 하였다. 이 문목은 도남서원으로 보내서 회강(會講)할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정종로는 강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서원을 세운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정경세가 서원을 설립할 때 가졌던 근본적인 지향과 닮아 있었다.

주제어 : 도남서원(道南書院), 강학(講學), 거재(居齋), 정경세(鄭經世), 권상일(權相一), 정종로(鄭宗魯), 상주(尙州)

I.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공부하는 공간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종종 때 경상도 풍기에 군수로 있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세운 백운동서원을 시작으로 하며, 선현을 제사지내고 강학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백운동서원은 주희(朱熹, 1130~1200)가 제시한 백록동규를 기반으로 학규를 마련하면서 강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 운영의 원칙이 마련되었다. 백운동서원의 사례는 이후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서원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었다.

서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였나. 조선시대의 ‘공부’는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였다. 그야말로 전인교육이다. 과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부터 일상영

역에서 사람의 역할을 궁리하고 탐구하며, 선현의 학문을 이해하고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 수양하는 것까지 공부의 범위는 넓었다.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다. 그러니 서원은 강학하고, 선현에 향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함께 머물면서, 독서하고 논의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도남서원은 상주에 생긴 최초의 서원이다. 그러면서도 상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서원, 이른바 수서원에 해당한다. 상주에 많은 서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도남서원은 상주 사대부들의 학문적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이다.

상주는 조선시대 영남지역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이었다. 1789년 호구총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을이다.¹⁾ 어떤 이유 때문인가. 18세기 전국을 둘러보고 사대부가 살기에 적절한 곳을 탐색하였던 학자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은 '상주의 다른 이름은 낙양(洛陽)이며,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으로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은 낙동강에 임해서 김해-동래와 통한다. 운반하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로로 모이는데, 이것은 무역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상주의 환경을 설명하였다.²⁾ 영남대로와 낙동강 수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무역하기 편리하였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하였고, 일찍부터 사대부가 살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런 상주에 신잠(申潛, 1491~1554)이 목사로 있으면서 각 면에 서숙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상주 사대부들은 지역에 서원을 세우려고 하던 가운데 전란으로 좌절되었다. 이 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란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어 가던 17세기 초반에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서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경세는 선비들이 학문을 하는 데에 있어 가

1) 『戶口總數』 경상도 상주

2) 이중환, 『택리지』, 팔도론 경상도, 안대회 역, 휴머니스트, 2018.

장 유익한 방법이 함께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원은 학문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도남서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는 도남서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도남서원의 원장을 지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밝혔다.³⁾ 또, 도남서원 사회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도남서원을 매개로 한 상주 사대부들의 연대와 결속의 실재를 확인한 바 있다.⁴⁾ 이를 확대하여 상주에 있던 서원에서 도남서원의 위상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⁵⁾ 대체로 선행연구는 사대부 사회에서 도남서원의 역할을 주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약하면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서 도남서원의 역할을 고민하였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전반 도남서원의 원장을 지냈던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의 서원활동을 중심으로 도남서원의 교육활동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⁶⁾ 도남서원의 교육 활동을 다루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서원은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원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를 주도하였던 인물은 정경세이다. 그가 설계한 도남서원의 학문적 지향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설계하였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이것은 18세기에 서원을 운영하였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또 변화하였는지 권상일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말 서원은 새로운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변화해야만 하였다. 당시 서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은 도남서원이 설립될 당시에 지향했던 학문 정체성을 확인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 역할은 정경세의 후손 정종로(鄭宗魯, 1738~1816)가

3)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 81, 2022.

4)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 12, 2021.

5) 송석현,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1, 2022.

6)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주도하였다. 정종로가 다시 천명한 도남서원의 학문과 이를 위해 설계한 공부방식을 본다. 이것으로 조선시대 서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사대부와 지방관의 협력과 강학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한 상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의 학문 성향은 어떠하였을까. 분명 상주의 지리 환경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 상주 사대부들의 학문 성향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도남서원이다. 도남서원은 1606년에 설립되었다. 상주 사대부들의 열망을 담아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관료로 활동하던 정경세가 주도하였다. 상주는 전란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고, 전쟁의 기억이 차츰 찾아들고 있는 때였다.

상주 사대부들이 서원을 설립하려던 것은 전쟁 이전부터 해 오던 일이었다. 1552년 상주목사에 부임해 온 신잠(申潛)이 각 면에 서숙(書塾)을 두고 지역 사대부와 함께 강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⁷⁾ 정경세는 서원을 세우기 위해 상주목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서숙을 운영하였던 이력을 먼저 언급하였다.⁸⁾ 지역에서 사대부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여기에 지방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정경세는 서원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자(士子)가 학문을 진보시키기 위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여럿이 모여 함께 강습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고, 후생들이 도(道)를 높이 떠받드는 전

7) 『明宗實錄』 卷13, 1552년 4월 25일 申潛爲尙州牧使

8) 『愚伏集』 卷8, 呈文 呈金牧使尙容文 乙巳爲本州儒生作：粵昔申侯潛之來莅茲土也。謂治邑之道莫先於興學。廣治書塾於各面。以課蒙士。至今吾尙之人粗知絃誦之習。禮讓之風者。秋毫皆其賜也。厥後衆議咸欲中州而建一書院。使一邦士子咸聚群居。以爲觀善之地。而廟享先賢。以隆尊師崇道之典。或因謀始不審。或因卜地未定。遷延歲月。事未集而壬辰之亂作。(후략)

례에 있어서는 선현(先賢)들을 존숭하여 섬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書院)을 설립하는 까닭이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바입니다.⁹⁾

선비가 공부할 때 여럿이 모여 함께 강습하는 것 보다 유익한 것이 없다. 이것이 정경세가 생각하는 서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였다. 정경세는 지역 사대부들에게 통문을 돌려 각 면 별로 유사를 정하고, 옥성동(玉成洞) 서당에서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상주목사에게 지역 사대부들을 대표해서 글을 올렸다. 서원을 설립하려고 하므로 관에서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인근 고을에서 서원을 만든 사례를 보면, 지역 사대부들이 발의하고, 지방관이 지원하거나 혹은 수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백운동서원이 그러하였고, 상주목사 신잠이 각 면에 세운 서숙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경세가 수령에게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1. 신잠(申潛)의 지원과 서숙의 운영: 각 면에 서숙을 설립하고 어린 선비를 교육하였다.
2. 서원 설립 발의: 서원을 설립하고자 논의하는 가운데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
3. 1605년 서원 설립 추진: 저희들은 이달 초이렛날(1605년 5월 7일)에 고을 사람들을 두루 불러 모아서 전에 하려던 일을 함께 모의하여, 25일에 낙동강가에 있는 좋은 지역을 선정하고, 가을이 되면 재목을 모을 계획을 하였다.
4. 관의 협조 요청: 관가(官家)의 물력(物力)이 다 떨어져 완전히 고갈되었으니, 비록 성주(城主)도 힘을 써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규모를 정하고 조처하는 따위의 모든 일은 반드시 수령께서 지휘해 주어야 한다.

9) 『愚伏集』 卷14, 雜著 道南建院通文 乙巳: 士子進學之功. 莫甚益於群居講習. 後生崇道之典. 莫甚大於尊事先賢. 此書院之所以設. 而今古之所共由也. (후략)

10) 『愚伏集』 卷8, 呈文 呈金牧使尙容文 乙巳爲本州儒生作.

정경세의 요청을 받은 상주목사는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었다. 정경세는 앞서 목사 신잠의 후원으로 각 면에 서숙이 운영되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대부들이 학문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관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정경세는 서원은 지역 사대부들의 바람과 관의 물질적 지원이 결합되어 만들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경상감사 유영순(柳永詢, 1552~1630)에게도 보내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경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유도(儒道)가 동방(東方)으로 전해져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정포은(정몽주(鄭夢周))에게서 창시되어 이퇴도(이황(李滉))에게서 집대성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김한훤(김굉필(金宏弼)), 정일두(정여창(鄭汝昌)), 이회재(이언적(李彦迪)) 등 여러 선생들이 서로 잇달아 수백 년 사이에 나왔는데, 모두 수백 리 안에서 부쩍 일어나 정학(正學)을 강론하여 밝히고 후인(後人)들을 열어 주었습니다. (중략) 이제 고을 복판에 하나의 큰 서원을 세워 다섯 현인을 합사(合祀)하여 여럿이 모여 강습하는 곳으로 삼고, 갱장(羹牆)을 보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붙이고자 합니다.¹¹⁾

정경세는 정학(正學)이 동방으로 전해지고 정몽주로부터 시작되어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을 거쳐 이황에게서 집대성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학문이고, 이들 선현을 향사하면서 강학을 통해서 그들의 학문을 이어 가기 위해서 서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정경세와 상주 사대부들은 상주는 영남에서 첫 번째 고을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상주의 서원은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이고, 나아가 조선을 대표하는 서원이라는 자부심이였다.

11) 『愚伏集』卷8, 呈文 呈柳方伯永詢文 爲本州儒生作：竊惟吾道之東久矣。倡始於鄭圃隱。集成於李退陶。中間若金寒暄，鄭一蠹，李晦齋諸先生相繼於數百年之間。蔚興於數百里之內。講明正學。啓佑後人。我東儒賢之出。於是爲盛。而我嶺南所以爲我東之閩洛也。高山景仰。秉彝所司。雖無間於遠邇。想像欣慕之情。尤切於耳目濡染之地。吾尙適在嶺之上游。爲一道大邑。冠章甫衣繼掖者。亦不爲不多。今欲中州而立一大書院。合祀五賢。以爲群居講習之所。以寓羹牆息慕之懷。

정경세는 서원 건물이 완성되자,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말하였다.¹²⁾

고생해서 알고 억지로 힘써서 행하는 것은 그 성공에 이르게 되면 같은 것이니 기질은 학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진실이 확립되고 밝음이 통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을 길러서 얻게 되는 것이니 성현이 어찌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진실로 자신을 닦는 데 스스로 힘을 쓰지 않는다면, 말해 보라. 무슨 면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응당 짧은 시간을 아껴야 할 것이다. 작은 허물이 무슨 해가 되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작은 행실이 끝내 큰 덕에 누가 되는 법이다. 오직 조금씩 쌓아 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만 높은 산과 큰 길에 미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본디 도모해야 할 일이니, 제군들과 더불어 함께 힘 쓰기를 바라노라.¹³⁾

정경세는 완공된 서원에서 선현들의 자취를 언급하면서 도남서원이 지향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인(仁)을 근본적인 토대로 삼아서 도(道)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학문은 주희(朱熹)에 근본을 두었고, 가까이서는 다섯 선현을 닮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경세가 강조한 지점은 '실천'에 있었다. 일상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깊이 이해하고 또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은 누구나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성현이 되는 것은 타고난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양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가치는 이후 도남서원이 지향하는 학

12) 『愚伏集』 卷16, 上樑文 道南書院廟上樑文 丙午.

13) 『愚伏集』 卷16, 上樑文 道南書院廟上樑文 丙午 : (전략) 困知勉行其成功則同. 氣質可以學變. 誠立明通必養心而至. 賢聖豈皆性生. 苟不自力于治躬. 且道何面於當坐. 勿謂今日不學. 衆人當惜分陰. 毋曰小過何傷. 細行終累大德. 惟寸積銖累之不怠. 或高山景行之可幾. 是爲吾輩本圖. 願與諸君共勉. (후략)

문의 방향이 되었고, 후학들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학습을 통해서 성현의 길을 가고자 하였다. 그러니 일상에서 공부와 생활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일상에서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정경세는 일상의 태도와 공부할 때의 방식을 정리하였다. 먼저 스승에게 수업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하라고 하였다.

스승에게 수업을 받을 경우는 반드시 연장자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나아간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읊을 하고서 물러난다. 수업한 것 가운데 간혹 확실하게 깨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마땅히 먼저 연장자에게 물어보아야 하며, 곧바로 스승에게 번거롭게 물어 보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스승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고하기를, “제가 아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겠으며, 아무 책과 아무 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기에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한다. 선생이 답하실 경우에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며,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¹⁴⁾

정경세는 양정편(養正篇)의 수업(受業) 항목에 이렇게 설명하였다. 양정편은 1606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도남서원을 설립하는 가운데 지은 글이다. 먼저 스승에게 수업을 받을 때에는 연장자부터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다. 공부하는 일상에서 위계를 체득하라는 것이다. 수업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승에게 바로 묻기보다 먼저 함께 수업 듣는 연장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연장자에 대한 우대와 위계를 강조하는 지점이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스승에게 물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수업할 때는 단정한 용모와 자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렇

14) 『愚伏集』別集 卷2, 養正篇 受業: 受業於師, 必讓年長者居先, 序齒而進, 受畢, 肅揖而退, 所受業或未通曉, 當先扣之年長, 不可遽竇問於師, 如必請問, 當整衣斂容, 離席而告曰, 某於某事未明, 某書某言未通, 敢請, 先生有答, 宜傾心聽受, 畢復原位.

계 일상에서 공부하는 동안 위계와 절차를 익히도록 하였다.

정경세는 여럿이 모여 공부할 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공부하기 위해서 서로 만날 때에는 예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매일 맑은 첫 새벽에 그날 숙직 가운데 한 사람이 판(板)을 치면 모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갖추어 입는다. 두 번째 판을 치면 당(堂) 위에 올라가서 순서대로 서 있으면서 사장(師長)이 나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읊한다.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나누어 서서 서로 읊하고 물러난다. 밤이 되어 침소에 들 때에는 판을 치면 모여서 읊하기를 아침에 한 것처럼 한다. 회강(會講)을 하거나 회식(會食)을 할 때에도 모두 판을 친다. 초하루나 보름의 경우에는 사장이 자리에 나와서 서 있으면 모두 재배(再拜)한다.”라고 절차를 설명하였다.¹⁵⁾ 대체로 서원에서 강학할 때를 상정해서 설명한 것이다.

정경세는 서원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사대부와 지방관이 협력해야 하고, 이렇게 설립된 서원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러니 절차와 위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서원이나 서당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단정한 자세로 바르게 앉아 있어야 하며, 서책(書冊)이나 붓, 벼루 등의 물품도 모두 일정한 장소에 잘 정돈해 놓았다가 읽을 서책이나 써야 할 물품을 그때그때 조용히 꺼내와야 하며,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읽거나 쓰기를 마친 다음에는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되, 뒤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¹⁶⁾, 책을 읽을 때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뜻을 차분하게 한 다음 글자를 보고 구절을 끊어 읽되,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완미하여 글자마다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힘써야 한다. 눈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지작거리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충분히 읽고 뜻을 환하게 꿰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날마다 배운 것을

15) 『愚伏集』別集 卷2, 養正篇 會揖: 每日清晨, 直日一人擊板, 咸起盥櫛衣冠, 再擊升堂序立, 俟師長出座肅揖, 次分兩序, 相揖而退, 至夜將寢, 擊板會揖如朝, 其會講會食皆擊板, 朔望則師長就座立皆再拜.

16) 『愚伏集』別集 卷2, 養正篇 居處: 端身正坐, 書冊硯筆等物, 皆頓放有常所, 其當讀之書, 當用之物, 隨時從容取出, 毋得翻亂, 讀用畢, 還置原所, 毋使錯雜.

정리하고 복습하며, 열흘마다 통독(通讀)하여 종신토록 잊지 않도록¹⁷⁾하고, 글을 쓸 때에는 “마음을 오로지해 붓을 잡아서 되도록 자획(字畫)을 엄정하게 하고, 경솔하게 하거나 엉성하게 써서 글자가 떨어지거나 빠뜨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먹을 갈고 붓을 놓을 때는 소리가 나거나 먹이 튀지 않도록 한다. 또한 베틀 위나 책상 위에 장난삼아 글씨를 쓰는 것은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것이니,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경계하라.”¹⁸⁾라고 하였다.

정경세는 스승을 대하고, 함께 모여 강습하고, 책 읽고 글씨 쓰는 데에까지 바른 몸가짐을 하도록 가르쳤다. 서원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고, 국가와 지역 지식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인 영역이었다. 그래서 서원에서는 서로 예로써 만나고,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도남서원을 설립한 이듬 해 1607년 5월 정경세는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대구부사에 부임한 정경세는 지방관으로서 또 한 사람의 학자로서 지역 지식인들과 마주하였다. 자신의 고장인 상주에서 서원을 세우고 강학하던 일은 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실천하였다. 대구에 부임하고, 두 달이 지난 윤 6월 15일 정경세는 대구 연경서원으로 갔다. 정경세는 서원에서 밤이 늦도록 선비들과 함께 글을 읽고 논의하였다.¹⁹⁾ 이날 자리에 함께 하였던 손 처눌(孫處訥, 1553~1634)이 기억하는 그날 정경세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1607년 윤6월 16일 이른 아침에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상(像)에 배알하였다. 서로 읍례(揖禮)를 하였다. 독법(讀法)과 청강(聽講)에 대한 규칙을 세웠다. 오후에 고강(考講)과 제술(製述)을 시행하였다. 벌이 뜬 뒤에 고을 수령이 관아로 돌아갔다. 학문에 밝고 규칙을 실천하니 참으로 어진 대부이다.²⁰⁾

-
- 17) 『愚伏集』別集 卷2, 養正篇 讀書: 整容定志. 看字斷句. 玩味徐讀. 務要字字分明. 毋得目視他處. 手弄他物. 須熟讀貫誦. 又必逐日溫理. 逐句通讀. 以求終身不忘.
- 18) 『愚伏集』別集 卷2, 養正篇 寫字: 專心把筆. 務求字畫嚴整. 毋得輕易草率. 致令欹斜脫落. 研墨放筆. 毋使有聲及濺汚于外. 其戲書硯面及几案. 最爲不雅. 切宜戒之.
- 19) 『慕堂日記』1607년 윤6월 15일 謁先祠. 行望參如儀. 午向研經. 徐行甫先來. 初昏城主乘月來. 論文夜分乃休.

이날 정경세는 서원에서 사당에 배알하고, 읍례를 시행해 보였다. 정경세는 도남서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업할 때는 연장자부터 나란히 앉고, 서로 예를 갖추어 마주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원에서 독서하는 원칙과 강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역시 도남서원에서 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40대 중반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정경세는 서원에 구성원을 조직하고, 정연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고강과 제술을 시행하였다. 학자의 시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고강과 제술을 통해서 과거(科擧)를 준비하는 과정도 서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다. 그러니 지역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어진 대부’로 칭송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다.

정경세는 강학하는 장소를 서원에 한정하지 않았다. 연경서원에 다녀온 한 달 후에 선사재(仙查齋)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강학을 하였다.²¹⁾ 강학을 마친 후에는 선비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였다. 선사재는 서사원(徐思遠, 1550~1615)의 개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향교에서 강학을 하였다. 손치놀은 8월 19일 향교에 갔는데, 서사원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이 먼저 와 있었다.²²⁾ 늦게 합류한 손치놀은 그들과 함께 향교에서 묵었고, 다음날 부사 정경세가 와서 직접 강론을 진행하였다.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고, 손치놀은 정경세의 강의를 들으면서 부사의 너그럽고 온화한 인품과 설명에 다시 한 번 탄식하였다.²³⁾

대구부사로 있는 동안 정경세는 연경서원과 선사재, 대구향교에서 강학하였다. 공무를 보는 가운데 강학을 해야 하니 늦은 시간에 서원에서 강론하기도

20) 『慕堂日記』 1607년 윤6월 16일 早朝謁 先聖先師像 行柑餅禮 設齋去聽講 午後考製星城主還官 講明文學 踐履(規矩)規矩 眞賢大夫也.

21) 『慕堂日記』 1607년 7월 16일 謁 先祠 早朝向仙查 城主昨已來 始講矣 夕乘舟待月入樂齋 以氣愆 未借舟上先入.

22) 『慕堂日記』 1607년 8월 19일 謁 先祠 入校 徐行甫郭益甫柳聖俞兪兄先來矣.

23) 『慕堂日記』 1607년 8월 20일 夜小雨 城主來講於亭復 聽而不厭 眞溫厚堂佛人 乘昏還(當)官.

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며칠을 머물며 강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경세는 서원에서 강학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경세는 공부에 진심이었고, 지역에서 뜻이 있는 선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지방관이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강학과 학규제정 등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지방관과 지역 사대부들이 협력해서 서원을 세우고, 함께 강학하는 것이 그가 설계한 서원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III. 원생의 세분화와 거재(居齋) 강화

시간이 지나 도남서원은 설립한 지 100여 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설립할 때의 구상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을까. 18세기 전반 도남서원의 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있다. 권상일은 1723년부터 2년 동안 도남서원의 원장을 지냈다.²⁴⁾

권상일은 학문을 진흥하고 인재를 기르는 것(興學養士)은 선배들이 서원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원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비용을 줄여서 인재를 기르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였다. 인재를 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권상일은 서원에는 거재(居齋)유생이 머물면서 학문을 탐구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 상태가 서원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니 서원은 거재유생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원에 들어가는 각종의 비용을 줄여서 여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거재유생이 지켜야 할 규정은 엄격하였다.

권상일은 이런 서원 운영 방침을 세우고 도남서원의 강학 규약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권상일이 정리한 도남서원의 운영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다.²⁵⁾

24)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1. 거재유생은 한결같이 이산서원의 원규를 따른다.
2. 이산원규는 거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거재하는 사람도 과거공부에 매진한다. 이는 스승의 본래 뜻에서 어긋난다. 거재유생은 모여서 글 읽고, 의리를 강론하는 것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3. 거재유생의 수는 서원의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하며, 대략 5인 내외로 한다.
4. 원임은 봄가을에 날이 좋을 때 지역의 장로들과 학문을 하려는 인재들을 모아 강론을 하는데, 날짜를 제한하지 않고 책 하나를 모두 읽고 마친다.
5. 응강과 제술유생이 서원에 머물며 공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서원의 모임에서 지나치게 한담을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6. 서원의 책은 강독 토론할 때만 꺼낸다.
7. 과거를 준비하는 것은 본래 학궁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원에서 백일장을 설행하지 않는다.

권상일이 마련한 도남서원의 규약이다. 앞서 정경세가 서원을 설립할 때, 운영 전반에 관해 언급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은 변화하였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과거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권상일은 이것을 금지할

25) 『清臺集』卷10, 雜著, 道院條約: 本院, 是諸老先生奉安之所, 斯文重地, 無過於此, 凡院任及入院儒生, 激勵感發, 持心行事, 專用義理, 言動舉止, 惟遵禮法, 毋得毫髮放過, 而朱夫子服先生之服, 言先生之言, 行先生之行等語, 尤當服膺事. 興學養士, 是第一件事, 先輩立院之意, 祇此爲重, 凡干浮費, 一切減損, 使院中物力贍足, 得以專意致力於養士事. 居齋儒生, 一依伊山院規, 若不遵奉而任意恣行者, 院任及齋中, 論罰規警事. 院任來時, 與居齋儒生, 講論經旨外, 不得閒雜僥僥話事. 伊山院規, 以居齋爲重, 而近來儒生, 着力專心於文詞及科舉, 雖居齋讀書, 而祇欲文詞之用, 科舉之需而已. 大有違於老先生立規勸士之本意, 雖不可全廢, 而齊會通讀, 講論義理, 尤爲緊切事. 居齋額數, 每年隨院用豐歉加減議定, 而多不過五員事. 院任, 每於春秋和暖時, 奉請斯文諸長老及有志願學之士, 通齋講論, 而不限日數, 究竟一冊後, 乃罷事. 應講及製述儒生, 不許留院做工事, 院中些小會集時, 亦勿閒談浪過. 出院中書冊, 講讀討論事. 勸士以科舉之文, 非學宮本意, 白日場, 切勿設行事. 本院連值凶荒, 蕩殘特甚, 仍以庶事頽廢, 有難收拾, 鄙等承乏任席, 而才識短拙, 無以盡一日之責, 然竊見院任, 遞易無常, 且不得頻數往來, 隨事檢勸, 故因徇放過, 至於此境, 良可慨然, 爲維細節目, 書之一冊, 使任員常常攷閱, 以備忽忘, 而又爲條約如右. 此等事, 亦涉僭妄, 而第於培根本振頽廢之道, 不能無小補云爾.

수는 없지만, 서원에서 과거 준비에 집중하는 것은 서원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과거공부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남기를 바랐다. 그래서 서원을 설립한 본래 취지를 다시 돌아보고 도남서원의 규약을 만들었다.

먼저 이산서원의 학규를 모범으로 하였다. 이산서원 원규는 이황(李滉, 1501~1570)이 주희의 백록동규에 바탕을 두고 마련한 것이었다. 권상일은 도남서원에 이산서원 원규를 가져왔다. 이산서원 원규에서 이황이 강조한 지점은 무엇인가? 바로 거재유생을 두는 일이었다. 서원의 재정 형편은 어렵지만, 여러 비용을 줄이더라도 거재유생은 있어야 서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거재유생은 서원에 머물면서 이산서원 원규를 기준으로 하여 규칙을 지키면서 잡담하지 말고 엄격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원생을 세분화 하여 거재유생 이외에 응강(應講)유생과 제술(製述)유생을 두었다. 강학을 듣기 위해서 서원에 오거나, 제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원에 오는 유생들은 거재유생과 이름을 달리 하였다. 이들은 서원에 머물러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 없다. 제술유생은 서원에 와서 과제를 받아 가서 글을 지은 후에 제출하고, 응강유생은 강학이 있을 때 서원에 와서 듣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들은 강학과 제술을 통해서 과거공부에 매진하더라도 서원은 논란할 것이 없었다. 다만 거재유생은 이들과 다른 역할이 있었다. 거재유생은 의리를 탐구하는 학문에 매진해야 한다. 권상일은 거재유생을 운영할 수 있어야 서원이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고 여겼다.

강학도 중요한 요소였다. 원임은 봄과 가을에 선비들을 모아서 통독과 강론을 해야 한다. 강론할 때에는 날짜에 구애되지 않고, 책 하나를 모두 읽은 후에 마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서원에서는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백일장은 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런 권상일의 규약은 이황(李滉) 이후에 하나의 형태로 자리잡은 서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원은 유생이 거재하며 성리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곳이었다. 그렇다고 현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원은 제술과 응강을 원하는 유생

들에게 그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고려한 변화였다.

권상일의 일상생활에서 서원은 중요한 활동 공간이었다. 권상일이 처음 도남서원에 간 것은 1703년이였다. 10월 1일 여러 친구들에 이끌려 서원에 처음 갔다.²⁶⁾ 이로부터 권상일은 알묘(謁廟), 향사(享祀), 봉안제 참석, 거재, 강학 등 다양한 이유로 서원에 갔다. 이것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서원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 권상일은 1710년 32세에 대과에 합격하고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관직으로 상주를 떠나 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상주에서 활동은 대체로 서원에서 하였다. 권상일은 1723년 7월 45세에 도남서원의 원장이 되었다.²⁷⁾ 1725년 6월까지 2년 동안 원장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서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노년에는 서원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서원의 사정은 잘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가 원장으로 있던 때에 도남서원의 사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723년 7월 8일 서당에서 서당과 서원 두 곳에서 입접(入接)하기로 하였는데, 날씨는 11일로 정하였다. 11일 아침밥을 먹기 전에 도남서원의 재임(齎任)이 청좌(請坐)하는 일로 다녀갔다. 들으니 서당의 거접(居接)은 이석(爾錫)의 초상 때문에 13일로 물려 정하였다고 한다. 홍이석이 현재 서당의 임원이기 때문이다. 13일 비가 내렸다. 거접유생 20여 인이 와서 모였다고 한다. 15일 거접유생이 지은 글 30여 장을 보내와서 채접하였는데, 장원은 채식(蔡澆)을 뽑았다. 도남서원에 제출하였던 사임 단자에 원임(原任)의 발문을 받아 왔는데, 체임이 허락되지 않아 두 번째 사임 단자를 써서 보냈다. 16일 거접 유생이 제출한 것을 또 보내와서 채접하였다. 17일 서당과 서원에 거접한 유생은 도합 50여 인이라고 한다.²⁸⁾

26) 『淸臺日記』 1703년 10월 1일 晴. 爲諸友所免. 往道南書院. 會員十餘人.

27) 『淸臺日記』 1723년 7월 1일 晴. 道南薦紙來. 副末則李天如黃道源.

28) 『淸臺日記』 1723년 7월 8일 自堂入接於堂院兩所. 定以十一日. 11일 朝前道南齎任. 以請坐事來見而去. 聞堂接以爾錫喪. 退定於十三日. 以方爲堂任故也. 13일雨. 接儒二十餘人來會云. 15일 快晴. 接製三十餘張來考. 壯元出蔡澆. 道院單子受跋

권상일은 1723년 7월 1일 도남서원 원장에 추천되었다. 며칠 후에 사양하는 뜻으로 단자를 써서 보냈는데 허락받지 못하자 재차 사양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 권상일은 원장 직임을 사양하는 중에도 서원의 거점 날짜와 참여한 인원의 수를 확인 하였다. 며칠 후에 거점유생의 글을 채점하였다. 권상일이 원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서원의 거점 일정과 거점유생의 글을 채점하는 것이었다. 권상일이 거점 유생을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강학을 준비하였다. 당시 도남서원의 강학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1724년 1월 22일 『성리대전(性理大全)』 「천지(天地) 권을 강하고 토론하였다. 김천장(金天章)도 왔다. 26일 (전략) 목사가 “이번 걸음은 실로 경내의 사민(士民)들과 더불어 조용히 강담(講談)하고자 함이오, 길을 나설 때 향교의 구실 아치가 와서 고하기를, 재임(齎任)이 출타 중이어서 각 서당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몹시 서운하오. 지금 두 협실(夾室)을 보니, 경재(敬齋)·의재(義齋)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긴요하고 절실하니 강을 해볼 만하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서원 안에 있는 『심경(心經)』을 꺼내 오도록 하여 「곤괘(坤卦)의 육이(六二)에 대한 ‘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을 스스로 한 번 읽고, 부주(附註)의 마지막 편까지는 또 나에게 읽도록 하였으며, 또 김천장에게 읽어 마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그 장의 의심스러운 뜻을 강론하였다. 또 “과문(科文)은 유가의 글을 벗어나지 않소. 마치 맹자(孟子)가 인의(仁義)만을 말하고 이치를 구한 적이 없으나 저절로 이(利) 아님이 없었던 것과 같소. 선비가 유가의 글을 읽는 것이 일찍이 과거를 보기 위한 계책은 아니었지만 과거 길이 저절로 다가와서 끊어지지 않았소.”라고 말하였다. 또 『성리대전』 너덧 곳 및 이기(理氣)의 여러 설을 논하고 마쳤다. (후략)²⁹⁾

於原任而來 不許遞 修送再單. 16일 接製又來考. 17일 聞堂院辭齋儒合五十餘人云. 29) 『淸臺日記』 1724년 1월 22일 講討性理大全天地卷. 金天章亦來. 24일 見主倅下帖. 以今二十六日馳進本院 瞻拜先正後. 因與院長講討經旨. 因會通經之士. 論難而歸云云. 此是好意. 而味識不敢當不敢當. 且日急. 接待一欸似難模樣. 可悶. 書請直淸來. 26일 金聖源金大任金天章從兄弟. 凡五六人來會. 俄而城主來臨. 出迎於第三階下. 禮當出大門相迎. 而享祀時祇迎祭物於此階. 故不得出門. 由東西階並行. 而吾由西階. 稍後坐定. 會員納棟進講. 因謁廟. 定執事二人. (중략) 城主曰. 今行實欲與境內士民. 從容講談. 臨發校吏來告. 齋任出外. 不及發通於各書堂云.

1724년 1월 상주목사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은 도남서원에 선비들과 강론하러 오겠다고 연락하였다. 권상일은 반가운 한편, 부담이 컸다. 며칠 후에 목사가 서원에 도착하자 권상일은 예로써 맞이하였고, 사당에 참배한 후에 강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성리대전』과 『심경』을 강론하였다. 목사는 도남서원에 이어 윤4월에는 옥성서원에서 『심경』을 강론하였다. 이때 4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권상일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않았다. 서원에서 진행되는 강론에 고을 수령이 참석하여 함께 하는 장면은 정경세가 대구 부사로 있던 때와 다르지 않았다.

권상일은 서원거재를 관리하면서, 강학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서원을 운영 하는 방식은 이황이 마련한 이산서원 원규에서 가져왔다. 그는 순수 학문 연구기관으로 서원의 역할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선비들의 분위기였다. 상주 사대부들은 과거로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시대였다. 권상일의 서원 운영 구상은 어쩌면 현실의 요구와 거리가 있었다. 원생을 세분화 하여 거재유생을 두는 것으로 서원의 본래 기능을 간직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응강과 제술유생을 두고 지역 사대부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원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권상일의 방법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IV. 강회의 다양화와 강학의 일상화

도남서원은 1660년(顯宗, 庚子)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나서 일관당(一貫堂)이 불타버리게 되었다. 이에 류천지(柳千之, 1616~1689)가 나서 건물을 다시

極可欠歎. 今見兩夾室. 名以敬義. 此是緊切可講. 卽出院中心經. 坤之六二. 敬以直內章. 自讀一過. 至附註末篇. 又使余讀之. 又使金天章讀之訖. 因論難其章疑義. 又曰科文無過於儒家書. 猶孟子言仁義未嘗求利. 而自無不利. 士之讀儒家書未嘗爲科舉計. 而科舉自至縷縷不已. 且論性理大全四五處及理氣諸箇而罷.

세웠고, 서재 두 칸을 지어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모습으로 유지되던 도남서원은 1783년 류천지의 증손자 류성립(柳聖霖, 1711~1790)이 묘우와 학궁 및 문루를 다시 세워서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경유(李敬儒, 1750~1821)가 원장이 되면서 다시 서원을 정비하였다. 이때 참여한 이들이 조학수, 강중흠, 김구범 등 이었다. 정종로는 이렇게 정리된 서원을 보고서 ‘비로소 옛 모습을 회복하였다.’고 감탄하였다.³⁰⁾

정종로는 다시 모습을 갖춘 도남서원의 각 건물에 이름을 정하였다. 정종로는 『대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학문의 시작이자 근본으로 하고, 이 학문을 하는 공간이 바로 도남서원이 되도록 하였다. 정종로는 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입덕문’을 세운 것은 서원이 『대학』의 원리를 익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서재를 순학(遜學)이라고 한 것은 그 뜻을 겸손하게 배우라는 뜻이고, 민구(敏求)는 민첩하게 구하라는 말이며, 문루를 정허(靜虛)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가리켜 욕심이 없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대학』을 근본으로 강조하는 학문적 관념은 정경세부터 이어온 도남서원이 지향하는 가치였다. 같은 시기에 류성룡의 학문을 담아내었던 병산서원의 그것과도 같은 맥락을 보이는 지점이다.

이렇게 중수한 도남서원에서 정종로와 상주 사대부들은 시대에 맞게 서원을 운영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먼저 학문의 계통을 정리해야 했다. 정종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동방의 이학은 포은 선생에게서 창시되어 퇴도 선생에게서 집대성되었는데 그 중간에 한훤, 일두, 회재 세 선생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잇고 그 은미함을 밝혔다. 그 뒤에는 소재 선생과 퇴도 선생 같은 분이 나란히 대대로 추존을 받았다. 서애와 나의 선조 우복 두 선생은 퇴도에게서 비록 직접 배우거나 사숙한 차이가 있으나 모두 그 적전을 얻었다. 이 여덟 선생이 모두 우리 영남의 같은 도 안에서 나와서 도정사 가운데 함께 배향되었으니, 아 성대하도

30) 『立齋集』 卷29, 記 靜虛樓重修記.

다. 이 때문에 본 서원이 영남의 으뜸가는 학궁이 되었다.³¹⁾

정종로의 시대에 도남서원은 처음 세울 때와 비교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처음 다섯 선현으로 시작한 제향 인물은 여덟으로 늘었고, 그만큼 서원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졌다. 그래서 정종로는 제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도남서원의 학문 계보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원의 본래 의미를 확인하였다. 그들에게 서원은 어떤 곳인가. 정종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들이 이 서원에 대해 건물을 보존하여 지키는 도는 이에 이미 극진하지만, 당초에 창건한 바의 의미는 ‘현인을 존숭함’과 ‘도를 강론함’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³²⁾

정종로는 서원의 건물을 다시 세우고 지키는 것으로도 역할을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서원을 세우는 이유는 존현(講道)과 강도(講道)라고 하였다. 18세기 도남서원은 새로운 학문 풍토와 사회 변화에 직면하였다. 정종로는 서원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은 ‘현인을 존숭함(尊賢)’과 ‘도를 강론함(講道)’에 있다고 하였다.³³⁾ 여기서 존현(尊賢)에 대한 것은 봄과 가을

31) 『立齋集』 卷29 記, 道南書院一貫堂重修記: 我東理學. 倡始於圃隱先生. 集成於退陶先生. 而中間則有如寒暄, 一蠹, 晦齋三先生. 繼其微闡其微. 後來則有如蘇齋先生與退陶並世見推. 而西厓及吾先祖愚伏兩先生. 於退陶雖親炙私淑之異. 俱得其嫡傳. 而是八先生皆出於吾南一道之內. 同享於道正一祠之中. 猗歟盛哉. 用是本院爲大嶺首學宮. (후략)

32) 『立齋集』 卷29 記, 道南書院一貫堂重修記 (전략) 而復之曰吾輩之於本院. 其保守屋宇之道. 則斯已盡矣. 而乃若當初所以刵建之意. 不越乎尊賢講道二者之外.

33) 『立齋集』 卷29 記, 道南書院一貫堂重修記: (전략)而復之曰吾輩之於本院. 其保守屋宇之道. 則斯已盡矣. 而乃若當初所以刵建之意. 不越乎尊賢講道二者之外. 蓋以尊賢言之則舍菜於春秋. 焚香於朔望. 瞻謁於經過之時. 肅敬於拜跪之間者. 尊賢之文也. 誦其詩讀其書. 論其世得其心. 至誠欽慕. 必欲效法者. 尊賢之實也. 若徒有其文而無其實. 豈可謂尊賢. (후략)

에 석채(畝菜)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사하며, 지나갈 때 우러러 배알하며 제사 지낼 때 엄숙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 형식과 방법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강학에 있었다. 강학은 그 범위가 넓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서원이라면 강학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³⁴⁾ 정종로는 강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리에 통문을 돌리고, 강학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³⁵⁾ 정종로가 제시한 원칙은 4가지이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하나.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 경(經)과 사(史)를 막론하고 각자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강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뒤에야 바야흐로 강학에 빠질 근심이 없고, 모두 권학의 과정 안에 있게 할 수 있다.³⁶⁾

정종로는 강학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강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당장 강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강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야 했다. 우선 강학하는 순서를 유연하게 하였다. 책을 읽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정종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을 읽은 후에 『논어』로 나아가는 것이 순조로운 순서였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강조하면 강학에 참여할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

34) 『立齋集』卷29 記, 道南書院一貫堂重修記 : (전략)以講道言之. 八先生之道. 卽千古聖賢相傳之道. 而是道也自中國則東矣. 自我國則南矣. 故院以道南爲號. 而祠之號道正. 亦以是焉. 夫以千古聖賢相傳之道. 舉四海曠百世莫能與. 而褊小如我國. 一隅如吾南者. 不過數百年之間. 八先生相繼而得之. 斯豈非天下之大幸. 然道之不講與講之不能善也久矣. 若徒有講道之名而無講道之實. 又豈可謂之講道乎(후략)

35) 『立齋集』卷25. 雜著 爲講學事通各書堂文.

36) 『立齋集』卷25. 雜著 爲講學事通各書堂文 : 一. 向來講學. 一依考亭法門. 旣講大學. 以及論語. 則爲今之計. 只將論語中未講之卷. 使之來講. 固是不易之序. 而但念如此則人之讀他書者. 似未肯遽舍所讀. 而必此之讀而來講者無幾. 故莫若變而通之. 更爲活法. 無論經史. 使各以所讀來講. 然後方無遺漏之患. 而舉在勸課中矣. 或者以雜亂無序爲慮. 然此亦處之有術. 如方讀大學. 卽令了此後. 始讀論語. 方讀論語. 卽令了此後始讀孟子. 以至六經以下許多宜讀之書. 皆如此讀之. 則是亦未始不整齊有序. 而無復雜亂之患矣. 如何如何.

다. 독서하는 선비들은 책을 읽는 순서가 제각각이었다. 먼저 읽은 사람, 아직 미루고 있는 사람, 경서보다 역사를 읽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상황이었다. 각자 자신의 진도에 맞추어 독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원의 원칙을 앞세워 정해진 순서대로 강학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건대 이와 같이 하면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읽던 책을 갑자기 놔두려 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이렇게 읽고 와서 강학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러니 변통이 필요하였다.

정종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자 읽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강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이를테면 『대학』을 읽고 있는 사람은 다 읽은 후에 『논어』를 읽도록 하고, 『논어』를 읽고 있는 사람은 다 읽은 후에 『맹자』를 읽으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꼭 읽어야 할 육경(六經) 이하의 많은 책을 모두 읽으면 되는 것이었다. 강학이라는 집단 학습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각자의 역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담을 갖지 않고 강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강학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음으로 강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종로가 제시한 두 번째는 방법은 체계적인 원생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각 면(面)에서 강안(講案)을 수정하고 정리하여 그 지역에서 글을 읽는 선비의 성명과 나이 및 읽고 있는 책을 모두 적어서, 하나는 해당 서숙(書塾)에 비치하고, 하나는 도남서원에 알리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문목(問目)에 대비하라는 뜻을 각각 해당 면의 강학하는 유자(儒者)에게 알려 주고, 이미 익숙하고 정밀한지를 헤아려 먼저 본 서숙에 모여 회강(會講)하며, 그 가운데 문의(文義)에 가장 밝고 대어(對語)가 가장 좋은 자를 그 문목과 아울러 도남서원에 보고한다. 그러면 나아가 질정할 곳이 저절로 절도가 있게 되고, 또 한가한 시간에 도남서원에 일제히 모여 함께 강론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먼저 각 면을 단위로 강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앞서 신잠(申潛)이 각 면에 서숙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이렇게 면을 단위로 조직된 강회에 문목(問目)을 나누어 주고, 각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함께 모여서 강학한다. 이 강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각 면을 단위로 조직하고, 그 가운데 학문의 성취가 나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공부하고, 그 후에 도남서원에 모두 모여서 회강할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각 면을 단위로 다양한 강회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 강회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범위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리고 나아가 원생들은 일정하게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원에서 진행되는 강회는 서원 강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원은 스승과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강학하는 자리이므로 공식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니 서원 강학에 앞서 이에 대비하는 소규모 강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정종로의 방식은 앞서 정경세가 제시한 수업 방법을 시대에 맞게 변용한 것이었다. 정경세는 독서하는 가운데 의문나는 곳이 있으면, 먼저 함께 공부하는 연장자에게 묻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스승에게 나아가 문의하라고 하였다.³⁸⁾ 이렇게 하면 함께 독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가 형성이 되면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강학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

37) 『立齋集』卷25, 雜著 爲講學事通各書堂文：一. 各以所讀來講之法. 果爲可行. 則自各面爲先修整講案. 凡厥讀書之士. 皆書其姓名年歲及其所讀之書. 而一置本塾. 一送道院. 使知某讀某書. 然後又以熟讀精思. 以待問目之意. 各各知委於該面講儒. 度其已熟已精. 而先爲會講於本塾. 其中文義最明. 對話最善者. 並其問目而報於道院. 則如愚淺見. 雖不足以知其得失. 然今日就正. 自有其所. 又於閒暇之時. 齊會道院. 大家講討. 種種如是. 歲以爲常. 則其於勸學之道. 庶有著實之效. 如何如何.

38) 『愚伏集』別集 卷2 養正篇 受業.

였다.

게다가 서원 거재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부담이 컸다. 정종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원에서 일상적으로 공부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서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각 면을 단위로 자율적인 공부 모임을 운영하고, 이 조직과 서원을 연계하면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서원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서원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다음은 서원에서 강학할 때의 방법을 말하였다. 정종로는 서원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시개방’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하나. 꼭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각자 읽던 책의 내용에서 문목을 만들어 해당 유자(儒者)에게 돌려 보이고, 해당 유자 또한 모두 답을 만들어 본 서숙으로 보내서, 본 서숙에서 도남서원에 보내는 자료로 삼는다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모두 조용하게 생각을 지극히 할 수 있어서 아마 참으로 드러내 밝히는 이익이 있고, 일 또한 편하고 마땅하여 영구히 행할 수 있다.³⁹⁾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의문은 독서하는 가운데 스스로 해소될 수도 있지만, 오래 고민해도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은 스스로 궁리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을 정종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원은 항상 문을 열어 두도록 하였다. 서원에서 회강(會講)할 때를 기다려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강을 진행하는 것도 결

39) 『立齋集』卷25, 雜著 爲講學事通各書堂文 一. 問目待會講時固好. 而但念各有事故. 齊會未必. 又以支供之難. 不過數日而罷. 則紛擾忙迫之中. 問者對者. 俱未暇致詳. 實不無草草之恨. 故愚意不必待其齊會. 而各就所讀之書. 發爲問目. 輪示該儒. 該儒亦皆作對. 送之本塾. 以爲自本塾送道院之地. 則問者對者. 俱得從容致思. 庶有真箇發明之益. 而事亦便宜. 可以永久行之. 如何如何.

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용 문제로 회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각자의 일정 때문에 성사된 회강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었다. 그러니 정종로는 각자가 공부하면서 기록한 문목(問目)은 각 동리를 단위로 조직된 서숙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 서숙을 단위로 문목을 정리하고, 스스로 공리하여 정리한 후에 문답을 모두 도남서원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 문답의 내용은 서원 회강 때 함께 논의하였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면서 함께 공부하는 이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과연 서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공부하는 방향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정종로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말을 시작하였다. 그는 요사이에 ‘강학(講學)이라는 것은 단지 본분상의 명목(名目)으로 원래 이상하거나 별다른 일이 아닌데도, 지금 사람들이 오래 이 이름을 피하고, 뜻을 지닌 향당(鄕黨)의 선비들이 혹 그사이에 따라 행하고자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서원 강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기피하는가. 정종로는 원인이 바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종로는 선비가 학문을 익히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그러니 ‘지금 우리(吾黨) 선비들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닌 이가 없으니, 그 누가 의관을 차려입고서 생활하지 않겠으며, 그 누가 집에서 효도하고 공경하지 않겠으며, 그 누가 향당에 충신(忠信)하고 그 언행을 삼가 미답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거(科擧)를 마련하여 선비를 선발할 때 사서(四書)와 오경의(五經義)로 시험해 왔던 것은 결국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학문과 과거(科擧)의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정종로가 말하는 공부는 다음과 같다.

하나. 사부(詞賦)와 문장(文章) 또한 도술(道術) 밖의 기예의 학업이 아니며, 비록 그 공부하는 것이 각각 다르고 뜻을 세우는 것이 같지 않더라도, 요컨

대 모두 이 학문[此學]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둘로 보아서는 안 된다.⁴⁰⁾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많은 사대부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매진하는 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서원 강학은 과거응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공부는 말단이라고 여겼다. 그러니 서원 강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과거 공부는 학자가 추구할 바가 아니며, 서원에서는 과거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가. 정종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어느 때부터 과거를 위한 공부는 말단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각은 문제라고 하였다.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을 마련할 때는 그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학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서와 오경을 시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정종로는 과거 공부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앞서 권상일이 과거를 준비를 하는 일체의 활동을 서원에서 하지 말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정종로는 평소 후학들에게 과거 공부를 격려하였다. 어느 날 류의목(柳懿睦, 1785~1833)이 안부 편지와 함께 보낸 시(詩)의 구절에서 과거 공부를 그만 두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정종로는 답장에서 과거 공부를 그만 둘 요량을 거두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선배들 가운데 경륜에 뜻을 둔 이가 과거로 출신해서 세상에 포부를 펼칠 수 있었던 일 또한 헤아릴 만 하니, 우선 머

40) 『立齋集』卷25, 雜著 爲講學事通各書堂文：一. 講學二字. 只是本分上名目. 元非異常別件物事. 而今人例避是名. 鄉黨有志之士. 或不欲隨行於其間. 則此恐錯料之甚. 夫爲士而講學. 何以異於爲農而說農理乎. 凡今吾黨之士. 無非學問之人也. 其孰不衣冠而處乎. 其孰不孝悌于家乎. 其孰不忠信於鄉黨. 而謹信其言行乎. 聖賢之學. 不過欲使人盡分於此等處而已. 第令少加之意. 則思過半矣. 國家之設科取士. 亦未嘗不以四書疑五經義者. 其意亦待之以此學也. 詞賦文章. 亦非道術外藝業. 則雖其用工各異. 立志不同. 要皆此學之所包. 而不可以二視之. 苟有作人之術而盡其導率之方. 亦何難於與之共學而偕至於大道乎. 此物雖非其人. 而僉執事則想必綽然而有裕. 故尤願今日讀書之士. 一一皆書於講案. 而無一毫或遺也. 如何如何.

리를 숙이고 과거에 응시하여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바람에 부응하고, 한편으로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당면한 도리이다.’라고 하였다.⁴¹⁾ 재능이 있는 후학이 과거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다.

정종로는 매년 수계사에서 강학을 하였다. 70여 세의 나이에도 여러 날 동안 강학을 진행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관대를 갖추어 입고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읍례를 행하고 강학을 시작하였다.⁴²⁾ 강학에 대한 정종로의 열정은 지극하여 ‘상(喪)을 치르는 틈에도 강학을 멈추지 않았고, 또 학업을 청하는 학생이 있으면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⁴³⁾ 정종로의 일상은 여러 사람들과 글 읽고 강론하는 것이었다.

1816년(丙子) 봄에 정종로는 도남서원에서 『중용(中庸)』을 강의하였다. 앞서 1815년 봄에 서원의 임원이 교체되었다. 원장은 이경유(李敬儒)였고, 재임은 류식조(柳時祚)·남한모(南漢模)·금정현(琴檜漢)이며, 그 해 가을에 재임으로 강세립(姜世霖)·송구철(宋奎喆)이 더해졌다.⁴⁴⁾ 이들은 정종로가 도남서원에서 강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강학은 도남서원 일관당에서 진행되었는데, 3일 동안 진행된 강회에 모인 사람들이 삼백 명이었다고 한다.⁴⁵⁾

41) 『立齋集』卷21 書, 答柳彝好: 審有廢舉之意. 至形於詩句. 固知足下志向素高, 於向上事. 得味又深. 其不欲隨衆作一例亡者. 非不超然出於塵俗之外. 而聖學真工. 從此可專一做去. 但奉老之下. 便能謙遜既未易. 又況諸父兄長上咸欲其依舊從事. 以就科第. 則必不許無端坐停. 亦何能堅執己見耶. 且以賢史之文識. 其於功令之業. 所成就計已不淺. 而古來先輩之抱負經綸者. 由科目出身而得展布於世. 亦可指數. 則姑且俛首應舉. 一以副慈闈之望. 一以順門老之教. 亦是面前道理. 以愚策之. 未見其爲不可.

42) 『立齋集』別集 卷9 附錄 言行錄 每年於修禊社設講學. 遠近學者多會. 時先生年七十餘矣. 連日早起冠帶. 與諸生行庭拜. 禮畢因開講. 端坐終日. 論難不倦. 傍人請暫停休息. 曰我自樂此. 不爲疲也.

43) 『立齋集』別集 卷9 附錄 言行錄 讀禮之暇. 不輟講學. 亦有諸生請業者. 則教受不倦.

44) 『尋院錄』, 상주박물관 소장본.

45) 『立齋集』別集 卷9 附錄 言行錄 丙子春. 道南洞主邀致先生. 設講學於一貫堂. 道

정종로가 강학한 기록은 사후에 후학들이 정리하였고, 회록으로 만들었다. 1816년 도남서원의 재임이 된 정상리(鄭象履, 1774~1848)는 정종로가 도남서원에서 『중용』을 강학하였고, 그 내용은 황반로(黃磻老, 1766~1840)가 정리하였다고 기록해 두었다.⁴⁶⁾ 정상리는 정종로의 족질이고 제자였다. 『우복별집』을 간행하고, 정종로의 글을 정리하여 『입재집』을 간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⁴⁷⁾ 여기서 정종로가 말년까지 공부하는 선비들과 함께 강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으로 삼아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시대 서원은 사대부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곳이었다. 조선시대의 공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였다. 그야말로 전인교육이었다.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부터 일상 영역에서 사람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연마하고 탐구하며, 선현을 이해하고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 수양하는 것까지 공부의 범위는 넓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곳이 서원이었다. 그러니 서원은 강학하고, 선현에 향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함께 기숙하고, 토의하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도남서원은 상주에 생긴 최초의 서원이고, 상주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상주에 많은 서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그러니 도남서원은 상주

內聞風而會者殆三百人。先生以八耄大老。秉拂主席。韶華不減。爲諸生講論滾滾不倦。凡三日乃罷。因泛舟洛江。沿流上下。與諸名勝作聯句唱和。薄暮還院中。諸人多有困憊不振。而先生整飭衣冠。談話至夜深。

46) 『制庵集』 권6, 道院講會錄跋 往者道院之講中庸。寔我宗父立齋先生易簣前數月事。而會錄之在亂紙者。後十七年壬辰春。白下黃公始克手自淨寫。以備院中之古籍。(후략)

47) 『制庵集』 권8 行錄

의 지식인 사회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도남서원은 1605년 정경세가 주도하여 지역 사대부들의 의견을 모으고, 상주목사와 경상감사의 지원을 받아 낙동강 가에 설립되었다. 정경세는 사대부가 공부하는 데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이롭기 때문에 서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경세는 서원을 설립 하지는 논의는 지역의 사대부들이 일으키지만,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관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남서원이 설립 되었다.

도남서원은 이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운영방식이 변화하였다. 도남서원이 설립되고 100여 년이 지난 18세기 전반 도남서원은 공부의 방향과 운영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권상일이었다. 권상일은 1710년에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 생활을 하던 가운데 1723년에 도남서원 원장이 되었다. 그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도남서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산서원의 원규를 적용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이산서원은 이황이 설계하였고, 거재유생을 중심으로 서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권상일은 이것을 도남서원에 적용하여 서원에 거재유생을 두고 학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재유생과 별도로 응강과 제술유생을 두었다. 다만 응강과 제술유생은 서원에서 머물며 공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원생을 세분화 하면서 서원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서원은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요구를 수용한 변화였다.

이후 도남서원의 강학은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현실에서 유생들이 지향하는 공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또 거재유생을 지속적으로 두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역시 서원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돌려 강회를 다양하게 조직해서 일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정종로였다.

19세기 전반 정종로는 서원은 강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학 규칙을 새로 제정하였다. 각 면을 단위로 강회를 조직하고,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스스로 논의하고 문목을 작성하여 고민하도록 하였

다. 동시에 각 면에서 조직한 강회의 주요한 논의는 서원으로 가져와서 회강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서원은 강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정경세가 서원을 설립할 때, 설계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닿아 있었다. 도남서원은 설립할 때부터 19세기까지 강학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다.

【참고문헌】

- 『도남서원강학계안』, 상주박물관 소장본
도남서원, 『심원록』, 상주박물관 소장본
『우복집(愚伏集)』, 한국문집총간
『입재집(立齋集)』, 한국문집총간
『백하집(白下集)』, 한국문집총간
『제암집(制庵集)』, 한국문집총간
『청대집(淸臺集)』, 한국문집총간
『청대일기(淸臺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모당일기(慕堂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 김명자, 「임진왜란 이후 류성룡과 그의 문인들의 의료 활동과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70, 2018.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학수, 「정경세·이준의 소재관」, 『영남학』 71, 2019.
- 김형수, 「임란직후 상주 지역질서의 재편과 존애원」, 『국학연구』 30, 2016.
- 김형수, 「17세기 초 서애학단과 상주지역 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9, 2015.
-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 81, 2022.
-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송석현,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1, 2022.
-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 104, 2011.
-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2003.
- 유기선, 「17~1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한국서원학보』 5, 2017.
- 이병훈, 「16~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 『영남학』 71, 2019.
- 이세동, 「입재 정종로의 경학과 경학관」, 『동방한문학』 25, 2003.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 정호훈, 「17세기 전반 류성룡 후학의 활동과 학문 세계: 정경세·이준」, 『역사와 실학』 55, 2014.
-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 12, 2021.
-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2020.
- 최은주, 「월간 이전·창석 이준 형제의 전쟁체험과 애민정신, 그리고 존애원」, 『국학연구』 30, 2016.
- 최재목, 「입재 정종로의 생애, 성리사상, 문제의식」, 『동방한문학』 25, 2003.

Abstract

Ganghoi[講會] and the Pursuit of Study[講學] at the Donam Seowon[道南書院]

Kim Jeongun*

The Donam Seowon was founded by the Nakdong River under the patronage of the Sangjumoksa and Gyeongsanggamsa as Jeong Gyeong-se took the initiative and gathered opinions from the local nobility in 1605. This was the first Seowon of Sangju, which means that it is an important place to determine the study atmosphere of the Sangju area.

Jeong Gyeong-se led the Donam Seowon project. Believing that there were greater effects when people studied together, he wanted to build a Seowon for study purposes. He also believed that a Seowon should be founded by the local nobility to discus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providing resource support. Built for this purpose, a Seowon would be a place of gathering and study by local people and government officials. This is how the Donam Seowon was established.

However, since its foundation, the Donam Seowon made diverse changes according to the academic atmosphere of the tim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100 years after its foundation, the Seowon underwent changes to its study direction and management style. Gwon Sang-il took the lead in these changes. He passed the state exam in 1710 and served in the government before becoming the director of the Donam Seowon in 1723. During his

* Research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eongun@knu.ac.kr

leadership, Seowon faced one of its biggest changes, which was the application of internal regulations of the Isan Seowon. According to the rules, a Seowon should have resident Confucian scholars whose main duties were to promote reading and give lessons about Ui-ri and were forbidden to prepare for the state exam on the job. Seowons even banned essay contests to prepare for the state exam. Gwon believed that Seowons should be a research institute to pursue academics, and criticized that the study atmosphere of Sangju was rather distant from his ideal in those days.

The Donam Seowon regained its vitality thanks to the effects of the willing director, but it lost its vitality once again. One of the main reasons might have been the restriction of study for the state exam. The financial burden of keeping resident Confucian scholars would have been huge as well. It was Jeong Jong-ro that went back to this atmosphere, resumed study meetings, and created a mood for constant study at the Donam Seowon.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Jeong emphasized the pursuit of study at the Seowon and prepared a set of rules. He organized a Ganghoi at the Myeon level and made a list of questions for superior students so that they would discuss and contemplate for themselves. Such questions were sent to the Donam Seowon and used at discussions during Hoigang. Jeong Jong-ro believed that a Seowon should promote active pursuit of study to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and it was in line with Jeong Gyeong-se's fundamental problematic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the Seowon's foundation.

Key word : Donam Seowon, pursuit of study, resident, Jeong Gyeong-se, Gwon Sang-il, Jeong Jong-ro, Sangju

논문 투고일: 2023. 05. 30 심사 완료일: 2023. 06. 15 게재 확정일: 2023. 06. 16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정재훈*

- I. 머리말
- II. 용산서원의 건립과 변화
- III. 용산서원의 교육 기능
- IV. 재정운영과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경주를 대표하는 서원 가운데 하나인 龍山書院은 여러 면에서 다른 서원과과는 특징적인 면모가 있다. 崔震立이라는 武人을 제향하였으며 사액을 받았다. 1699년 忠烈祠라는 祠宇로서 건립되고, 1711년 崇烈祠宇로 사액을 받은 과정은 역시 대명어리와 존주대이가 강조되었던 숙종대의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였다.

용산서원은 기존의 西嶽書院이나 玉山書院이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남인 위주의 색채가 강했던 반면에 당색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우를 서원으로 바꾸려는 시도와도 관련되었는데, 18세기 중반의 어느 시점에 송렬사우에서 송렬서원으로, 다시 송렬서원에서 용산서원으로 변신하면서 용산서원은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18세기 중반에 용산서원에서는 대규모의 屺接을 시행하는 등 강학 관련 행사를 시행하였다. 옥산서원이 거접을 중단하였던 것을 이어서 18세기 후반에 거접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주 지역에서의 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용산서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19세기에도 이러한 활동은 이어져서 巡講나 白日場, 考講 등을 자주 개최하였다. 19세기 전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런 행사는 대체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 경북대 사학과 교수 / jinsojung@knu.ac.kr

성격이 강하였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 거재보다는 하루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행사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용산서원은 경주부 남쪽의 대표적인 서원이라는 위상을 확보하게 하였다. 관에서 과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보하고 수집하는 대상에 향교와 서약서원, 옥산서원에 더해 용산서원도 추가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龍山書院, 崇烈祠宇, 居接, 巡題, 財政

I. 머리말

慶州의 龍山書院은 조선시대에 경주를 대표적인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¹⁾ 경주부의 북쪽에는 玉山書院이 있었다면, 남쪽에는 용산서원이 있어서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하다. 더구나 용산서원은 사액서원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던 서원이기도 하였다.

서원은 일반적으로 학문에 뛰어난 儒賢을 모신 곳인데, 용산서원은 武將이었던 崔震立(1568~1636)을 향사한 곳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²⁾ 조선시대에 무인을 향사한 서원은 매우 희귀하였다. 경주의 토성이었던 최진립은 주지하다시피 원래부터 무반 가문으로 世系를 이어오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에 참여하여 軍功을 세운 것이 결정적으로 향사의 대상이 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문인이 아니라 무인이 향사의 대상이 된 것만이 용산서원의 특징은 아니다. 용산서원과 관련된 자료는 다른 서원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게 남

1) 본고에서는 일단 용산서원에 대한 호칭에 대해 忠烈祠, 崇烈祠宇, 崇烈書院, 龍山書院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일단 모두 용산서원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달라졌지만 통칭하여 용산서원으로 서술하며, 명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경우 당시에 불리던 호칭을 사용한다.

2) 최진립의 생애에 대해서는 伊助崔氏門中, 『國譯晉窩先生實紀』, 龍山書院 刊行, 1975 참조.

아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조선시대 서원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제출되었다.³⁾ 이러한 연구에 따라서 용산서원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조선후기에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향사와 교육 기능뿐만이 아니라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財政이나 院生, 노비, 身貢, 향촌 사회와의 관련 등 서원이 지역의 향촌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서원이 위치한 伊助마을은 慶州崔氏가 모여 사는 동성마을이다. 최진립의 후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마을 속에 위치하였던 용산서원은 조선후기에 서원의 존재 방식으로 가문이나 문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용산서원은 다른 서원과는 달리 官과의 관계 역시 매우 밀접하였다. 경주부의 다른 서원들 역시 관과의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용산서원의 경우 원장이 향청의 죄수나 별감을 역임한 인물들이 많고, 서원이 面里 체제의 하부 행정단위로 기능하는 등의 면모도 있었다.

이러한 용산서원에 다양한 면모에 관해 선행연구로 제출된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용산서원이 조선후기의 서원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서원의 운영에서 서원의 기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면모는 어떠한지, 그리고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서원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3) 용산서원과 관련된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孫淑景, 「朝鮮後期 慶州의 書院과 士族의 地域支配秩序- 慶州伊助의 龍山書院과 崔氏家門-」,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2 ; 「朝鮮後期 慶州 龍山書院의 經濟基盤과 地域民 支配」, 『古文書研究』 5, 1994 등이 있다. 또 대표적인 연구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龍山書院』, 집문당, 2005가 있다.

II. 용산서원의 건립과 변화

용산서원은 경주부의 남쪽 25리 지점에 있는 龍山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貞武公 崔震立(1568~1636)의 사당인 忠烈祠가 있었다. 따라서 용산서원은 사당이 서원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원래 이곳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최진립이 거주하던 伊助村 근처에 있던 巖臺와 澄潭의 아름다운 경치를 좋아하여 즐겨찾던 곳이라는 배경이 있다.

서원을 만들기 전인 1695년(숙종 21)에 경주부의 북쪽 涉坪에 祠宇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사는 가뭄으로 중단되었다가 3년 뒤인 1698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다음 해인 1699년에 현재의 용산지역에 忠烈祠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경주 부윤 李衡祥(1653~1733)이 고을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다음 해인 1700년 여름에 廟宇를 완성하고 11월에 위판을 봉안하였다. 1701년(숙종 27) 여름에 강당인 敏古堂과 남·북재인 好德齋와 游藝齋를 건립하여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는 곳으로 삼았다.⁴⁾

섭평에 사우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자손들과 각 면 역소, 향교, 옥산서원과 서악서원, 養武堂, 鎭軍 군관청, 경주부 군관청, 武學堂, 作廳下吏 등의 부조를 받았다. 또 충렬사를 건립할 때에는 주로 자손, 외손 등의 부조를 받았다.⁵⁾ 주로 자손들과 서원과 향교, 경주부 등의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손들이 건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용산서원이 사액을 받는 과정도 비슷하였다. 1705년(숙종 31) 경상도 관찰사인 金演(1655~?)이 계를 올려 사액을 요청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1711년(숙종 37)에 생원 權大規 등이 상소를 올려서 사액을 다시 청

4) 이상 용산서원 건립과 관련된 사실은 『龍山書院事實』(국, 古1247 153)의 '古蹟', '書院創始'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원 관련 자료 해제-龍山書院事實」, 『한국서원학보』 4 참조.

5) 섭평의 사우와 충렬사 건립 시의 부조에 대해서는 안승준, 「慶州崔氏家の社會經濟的 基盤과 龍山書院의 運營」, 『龍山書院』, 집문당, 2005, 77~78쪽 참조.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묘우에 대해 '崇烈廟宇'라 사액을 받게 되었다. 이때 후손인 崔立基가 상소를 올리러 서울에 갔을 때 나중에 순천부사를 역임한 南九明(1661~1719)과 任華世(1673~1731)가 서울에서 관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⁶⁾

숙종 31년에 사액을 청했을 때 실패하였던 것은 이미 서원의 폐단이 문제가 되어 금령이 내려진 뒤여서 예조에서 防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6년 뒤에 사액을 받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최진립은 皇壇, 즉 창덕궁의 안에 세워진 大報壇의 躋食行列에 들어가게 되었다.⁷⁾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再造之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세운 대보단은 당대 춘추대의로 상징되는 의리의 대명사였다. 따라서 이곳에 들어간 인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⁸⁾

비록 대보단의 건립이 이미 1704년(숙종 30)에 이루어졌고, 다음 해에 사액을 청한 것은 즉각 반영되지 않았지만, 숙종 37년에 결국 사액이 이루어진 것은 최진립의 순국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對明義理와 尊周大義가 강조되었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최진립의 후손들과 경주지역의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이룬 결과였다.

6) 『龍山書院事實』(국, 古1247 153)의 '賜額과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원 관련 자료 해제-龍山書院事實」, 『한국서원학보』 4 참조. 남구명은 1711년 5월에 과천현감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임화세는 전 해인 1710년 12월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따라서 남구명보다는 임화세가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구명, 『寓庵集』 해제; 임화세, 『是庵集』 해제 참조.

7) 『皇壇配享諸臣目錄』(奎1325) “贈兵曹判書貞武公崔震立：崇禎丙子清人圍南漢 震立以公州鎮營將隸忠清監司鄭世規 勤王自請爲前驅 至龍仁之險川，清悉其兵攻之師遂潰 震立身被數十創植立死”

8) 鄭萬祚, 「朝鮮後期 書院의 財政運營 문제에 관한 一試論」, 『龍山書院』, 집문당, 2005, 134~135쪽 참조.

사액을 받는 과정과 초기의 서원 창립과정에서 후손과 경주지역의 도움은 지속되었다. 1700년(숙종 26)부터 1711년(숙종 31)까지 설립 초기에 관과 민을 아울러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관변측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⁹⁾ 경주부윤과 경상감사 등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李衡祥·韓命相·呂必容·李麟徽·沈宅賢·鄭必東·金致龍·李師尙 등의 경주부윤과 李世載·朴權·洪禹齡·權滌 등의 경상감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대체로 남인인 이형상을 제외하면 대개 서인이 많았으며, 소론인 이사상을 제외하면 노론계의 인물이 다수였다.

당시 노론과 소론, 남인 사이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용산서원에 당색을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였던 점은 의미가 있다. 존주대의의 분위기가 지배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용산서원이 관과의 밀접한 후원과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근에 있었던 경주부의 대표적 서원인 西嶽書院이나 玉山書院이 기존에 있었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16세기에 건립되었고, 대체로 남인 위주였던 점과 대비가 된다.

용산서원이 당색에 비교적 크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연결을 하려던 시도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립의 신도비문을 남인인 趙綱(1586~1669)에게서 받고, 陰記는 서인인 海嵩尉 尹新之(1582~1657)에게서 받아두었다가 글씨와 신도비 跋文은 영조대의 대표적 노론 인물인 趙明謙(1687~?)에게서 받았다. 또 ‘龍山書院과 ‘崇烈祠宇’라는 현판 글씨를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인 李灃의 형인 玉洞 李滌에게서 받았으며, <龍山書院記>는 이익에서 받았다. 이렇게 용산서원이 당색에 얽매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제향 대상이었던 최진립이 무인으로서 당색과는 관련이 없었던 점도 있었다.

‘용산서원’으로 명명된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考往錄>이나 <書目>을 통해 살펴보면 아마도 18세기 중반의 어느 시점에 승렬사우에서 승렬서원으로 바뀌어, 사우와 서원으로 혼

9) 鄭萬祚, 앞의 논문, 2005, 136~139쪽 참조.

용되어 불리다가 용산서원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龍山書院’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때는 1732년부터이지만 1747년~1748년 이후에 보편화되어 사용된 것이다.

용산서원의 원임은 대체로 최진립의 후손인 경주최씨가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1700년~1744년 사이에 원장의 경우는 36%, 유사는 43%를 최씨가 맡았다. 원임을 맡았던 풍천임씨, 연일정씨, 여주이씨, 경주손씨 등도 대체로 최씨와 혼인을 맺은 이들로서 사위이거나 외손 가문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¹¹⁾

경주최씨들은 서원의 운영에서도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용산서원의 건립과 건물 신축과정, 그리고 사역을 추진하는 과정 및 최진립의 神道碑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조와 願納을 하였다. 서원 소속의 전답과 노비들 대부분도 최씨가에서 원납이라는 명목으로 기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원의 재정 운용에서도 원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최씨가 담당하였다.¹²⁾

Ⅲ. 용산서원의 교육 기능

일반적으로 서원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을 향사와 교육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원이 본격적으로 건립되던 초기를 지나면서 점차 서원의 교육기능을 약화되고 향사 기능이 우세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용산서원의 경우 최진립을 모시는 사우에서 출발하였기에 향사 기능에

10) 『古文書集成』 50의 용산서원 書目과 『古文書集成』 51의 용산서원 考往錄 참조. 또한 아래 유의건(柳宜健, 1687년(숙종 13)~1760년(영조 36))의 편지 참조. 『花溪先生文集』 권8, 〈與修誥所諸人書〉 “(전략) 崇烈祠宇 朝家雖以此賜額 然今既揭以院號 一鄉皆曰龍山書院 則似不可不入於學校之列 愚見如是 故漫及之耳”

11) 손숙경, 앞의 석사학위논문, 1992 참조.

12) 인승준, 「慶州崔氏家の 社會 經濟的 基盤과 龍山書院의 運營」, 『龍山書院』, 2005.

충실하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기본적으로 향사에 충실하였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용산서원의 경우에 교육 기능이 얼마나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편의 선행연구도 있다.¹³⁾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다른 기능에 비해 용산서원에서 실제 이루어졌던 교육이나 강학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다른 자료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¹⁴⁾ 다만 자료의 부족이 곧 교육의 부재 혹은 약화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용산서원의 교육 기능에 대해서도 기왕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용산서원에서의 교육은 기존에 서원에서의 교육이 강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주로 居接이나 백일장을 중심으로 18세기에 이루어진 교육은 다른 서원과 다른 특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용산서원에 있었던 額內와 額外의 원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기록은 원생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용산서원의 원생은 良丁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은 모집하여 入院하는 형태였다.¹⁵⁾

본원(송렬서원)은 새로 서원을 만든 이래로 마침 연달아 흉년을 만나서 규모 갖추지 못하고 잔약하고 폐해짐이 막심합니다. 비록 원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朝令이 있으나 본부(경주부)의 여러 學宮(서원)은 모두 정원을 채운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부근 마을의 촌락의 良丁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모집하여 소속으로 삼았습니다. 본원과 경주부의 성과는 멀지 않고 또 길가에 위치하지만 양정을 30명의 額數에 채우기도 쉽지 않아 현재 소속된 자가 10여 명에

13) 丁淳佑, 「龍山書院과 教育活動」, 『龍山書院』, 집문당, 2005 ; 김경용,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 2006.

14) 용산서원의 고문서 가운데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강학 활동에 관한 것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居接時到記〉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1761년(辛巳), 1782년(壬寅), 1797년(丁巳) 등에 거접록에 기록된 명부만이 남아있어 교육활동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5) 丁淳佑, 앞의 논문, 2005, 94-95쪽 참조.

불과합니다. 지금 관에서는 6명을 罷定한 바 이것은 반드시 관가에서 額外의 남은 원생이 있으리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¹⁶⁾

이에 따르면 용산서원의 초기에는 원생은 정액인 30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며, 심지어 10여 명에 불과한 양정에 대해서도 액외 원생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6명을 파하였다다는 것은 용산서원의 정원 관리에 불투명한 점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된다. 왜 이러한 의심이 나왔을까? 이는 원생으로부터 서원에 등록되어 균역과 잡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1인당 5錢씩을 징수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심지어 원생 이외에 모든 서원 소속의 양정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⁷⁾

〈書目(190)〉에 따르면 朝晝에 따라 1/20을 감해주어 院生 31인에 대해서는 1인당 5전, 良丁 30명(26명 재직)에 대해서는 1인당 1兩, 印刷匠 5명에 대해서는 1인당 1兩, 下典 50명(27명 재직)에 대해서는 1인당 5전씩을 거둔다고 하였다. 이 〈서목(190)〉의 경우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초기의 서원과는 달리 원생과 양정을 구분하였으며 양정이 30명으로 상정된 것을 보면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생은 액내, 양정은 액외로 파악할 경우 양정에게 액내 원생보다 2배의 돈을 받았던 것은 신분적인 측면에서나 서원의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서원에 일정한 돈을 내고 균역이나 잡역을 면제받을 경우 곧 관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서원과 관 사이에서는 양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良丁과 下典의 교체가 있으면 반드시 관에 보고하게 하거나, 양정에 6살 어린이까지 포함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사실도 이와 연관된다고 하겠다.¹⁸⁾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용산서원의 원생 가운데 액외의 경우 양정이 주로 차

16) 『고문서집성』 권50, 〈崇烈書院齋任書目(60)〉.

17) 『고문서집성』 권50, 〈崇烈書院齋任書目(190)〉.

18) 丁淳佑, 앞의 논문, 2005, 97~99쪽 참조.

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들을 포함하여 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학이 이루어진 것은 기록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교육 관련 활동은 거접과 백일장 등이 있다. 거접은 주지하다시피 일반적으로 서원이나 서당, 혹은 향교 등에서 함께 기숙하며 강학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거접을 하며 詩賦를 지어 성적을 매겼는데, 이는 과거를 준비하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접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산서원의 원생의 숫자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백 년 사이에 있었던 거접과 참여인원 및 방목에 대한 기록은 원생의 정원인 3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표 1〉 용산서원 거접 관련 기록과 방목²⁰⁾

번호	시기	거접 관련과 방목	전거
1	1761.6.15	本院居接錄 70인	MF9575
2	1782.3. 1	居接錄 167인	상동
3	18세기 말	68인	상동
4	18세기 말	戰藝白日場榜目 38인 詩10,賦13,古風15	상동
5	1797.3.17	居接錄 93인	상동
6	3.18	18日榜 詩7,賦20 계27인	상동
7	3.19	19日榜 詩8,賦17 계25인	상동
8	3.20	20日榜 詩6,賦11 계17인	상동
9	3.	都計畫榜目 詩7,賦10 계17인	상동
10	1808.7.15	巡題畫榜目 詩7,賦27 계34인	MF8841
11	1830.윤4.	龍山向製詩賦義榜目 112인 詩65,賦33,義14인	상동

19) 용산서원 소속의 良丁은 손숙경의 조사에 따르면 1762년에서 1807년 사이에 대체로 25명~33명 사이에서 유지된 것으로 되어있다. 民丁으로 표현하였지만 양정으로 볼 수 있다. 손숙경, 앞의 논문, 1994, 69쪽 〈표 6〉 용산서원 소속의 良丁, 下典, 奴의 실태 및 변화 참조.

20) 이 표는 김경용, 앞의 논문, 2006, 10쪽 〈표 2〉 용산서원 거접록 및 각종 방목 개요를 재정리한 것이다.

번호	시기	거점 관련과 방목	전거
12	1855.6.22	詩榜目28인, 賦榜目41인	상동
13	1827.	100인	상동
14	19세기 중반	詩20, 賦67, 終場榜目15인, 도합 105인	상동
15	19세기 중반	54인	상동
16	19세기 중반	114인	상동
17	19세기 중반	賦計劃榜目79인, 詩計劃榜目24인, 도합 103인	상동

위의 사례를 보면 거점에 참여한 인원에는 원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생 이외의 인원이 거점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양정이 원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원생들은 거점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용산서원의 거점은 원생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거점 그 자체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용산서원 원생들 가운데 얼마나 유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생 考講에 대한 院生案의 기록을 보면 고강에서 떨어진 경우 軍役に 충정되었던 사례를 보면 유생들을 대상으로 고강이 일정하게 시행되었으며 고강에 실패한 원생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양정들이 다수인 경우 이러한 고강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드물게 기록되는 점도 특이하다. 따라서 18세기 중반에 오면 유생들도 원생 가운데 그 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書目 가운데 경주부에 강안에서 쫓겨난〔出講〕 원생과 고강에 응하지 않은〔未講〕 원생과 그를 대신하여 인물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²²⁾ 이러한 서목 역시 고강이 그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여 원생을 관리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용산서원에서 이루어진 거점은 대체로 제술과 연결되어 있었다. 거점에 대한 기록에는 방목에 대한 기록이 함께 전하고 있는데 제술 고과에 대한 방목

21) 『古文書集成』 51, 〈龍山書院院生案〉(1785), 550쪽, “姜鶴孫講不降定軍役”

22) 『古文書集成』 50, 〈龍山書院齋任書目〉, 528쪽.

을 적은 것이다. <표 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 1백 명 전후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시와 부를 짓고 이에 대해 성적을 매겼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절을 하면서 시와 부를 짓고 평가를 하는 것은 주로 오후와 저녁에 이루어졌고, 오전에는 유생들이 경전을 강독하며 토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다.²³⁾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의 유생들이 모여서 거절을 하며 시·부를 짓고 점수를 매기는 활동과 함께 강학 활동도 전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기록은 현재 내용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름만 남아 있는 『居接錄』이나 『會話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규모의 거절 활동에는 강학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만 남아있는 사례이지만 1826년에 『대학』과 『심경』에 대한 원생들의 논의를 모아 만든 『大學心經講義』도 그러한 강학의 결과였던 것이다.

용산서원에서의 거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중후반에 어느 정도 시행되었던 것은 같은 시기 이 지역의 서원에서 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해 본다면 상당히 주목된다. 경주부의 대표적 서원인 옥산서원에서는 18세기 중반 이래로 거절과 거제가 순차적으로 중지되었다. 중지된 이유에는 장서의 파손도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러한 옥산서원의 거절 기능을 이은 것이 용산서원이었다. 옥산서원과 용산서원의 거절 기능의 대체에는 이를 매개한 원장도 있었던 점도 중요하다. 이미 18세기 전반 옥산서원의 원장 31명 가운데 10명이 용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여기에 용산서원에서 대규모 거절을 시행하고 옥산서원에서 거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던 1752년(영조 28) 당시 옥산서원의 원장은 崔迪基(1686~1754)로서 그는 최진립의 증손자이자 용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이후에 용산서원의 거절을 계기로 용산서원에서 이를 지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²⁴⁾

23) 용산서원의 거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서 그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紹修書院과 비교하여 거절의 절차와 활동 등에 대해 추론한 것에 대해서는 김경용, 앞의 논문, 2006, 16~18쪽 참조.

용산서원의 『居接時到記』에 따르면 1752년(영조28)에 169명이 거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61년(영조37)에 78명, 1797년(정조37)에 78명, 1797년(정조21)에 68명 등 70명 내외의 거접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경주최씨가 다수 참여하였지만 용산서원의 주변과 경주의 대표적 사족들인 경주이씨, 경주손씨, 풍천임씨 등이 골고루 참여하였다.²⁵⁾

용산서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서원 자체의 강학과 거재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용산서원의 교육은 다른 서원이나 향교 등과는 관련이 어떠한이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용산서원은 경주부 내의 향교나 서악서원, 옥산서원보다는 후발주자로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용산서원이 받은 帖文에 따르면 慶科 별시 초시나 公都會 조흥강, 백일장 등에 응시하는 유생 명단을 보고할 것을 지시받거나 각종 과거의 시행 일자와 장소 등을 통지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응시하는 유생의 명단을 보고하는 書目도 있었다.²⁶⁾ 그런데 이와 같은 응시 명단을 보고하는 행위에는 그 사전에 강학을 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赴舉儒生都目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강학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용산서원에서 과거를 준비하며 강학 활동을 하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향교와 서악·옥산서원에 추가하여 용산서원 역시 과거와 관련되어 각종 정보를 통보하고 또 수집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1801년에 향교에서 용산서원으로 보낸 통문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24)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강학 활동과 그 성격」, 『한국교육사학』 41-2, 2019, 103쪽.

25) 『고문서집성』 51, 「龍山書院考往錄」 및 丁淳佑, 2005 「龍山書院과 教育活動」, 『龍山書院』, 98~102쪽.

26) 용산서원의 첩문과 서목에서 과거와 관련된 교육 행정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용, 앞의 논문 <표 6> 참조.

本州(경주)의 관에서 내린 첩문에 대해 향교와 서원에서 회답하는 경우는 오직 향교와 서약서원, 옥산서원뿐이었다. (중략) 貴院(용산서원) 역시 國學이어서 관에서 내리는 첩문이 모두 갈 것이니 貴원의 인근에 있는 각 리에서는 貴원에서 回文하여 官帖을 받들어 행하면 될 일이다.²⁷⁾

이상에서 용산서원의 교육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의 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강학은 용산서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18세기 중반에 옥산서원의 뒤를 이어서 거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거점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거점에서는 주로 講經을 통한 강학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보다는 시부의 제술을 겨루는 백일장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원생과 거점이 어느 정도 분리된 것으로 보여서 거점이 인근 유생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용산서원에서의 교육활동은 용산서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재정운영과 특징

용산서원의 활동은 용산서원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였는가를 살펴보면 그 특징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선후기에 서원은 향사와 교육의 대표적인 두 기능 가운데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제향처로서의 기능이 서원을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이었다고 연구되었다. 서원의 남설로 인해 교육적으로 파탄을 맞았으며, 향교의 형해화와 서원의 교학기능 쇠퇴는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²⁸⁾ 이렇게 서원에서 향사의 기능에 비중이 두어지게 된 변

27) 『古文書集成』 51, 「通文」, 256쪽. “本州校院舉行官下帖回文者, 唯鄉校西岳玉山而已, … 貴院亦是國學, 而官下帖一體既到, 則貴院附近之各里, 自貴院回文而奉行官帖思”

28) 우용제,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교육과학사, 1999 참조 정만조, 「朝鮮後

화에는 조선후기에 들어 서원의 수는 급증함에 비해서 국가나 지방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서원 재정이 악화되고 열악해짐에 따라 서원에 居齋하는 유생을 지원할 재정의 확보는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학 등의 일상적인 교육을 위한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서원의 당연한 현실이었다.

그런데 용산서원의 경우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강학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은 많이 확인되지 않지만 거점이나 課試, 백일장 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세기에는 순제나 백일장, 고강 등이 다른 서원에 비교하여 볼 때 자주 개최되었던 점은 매우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산서원의 활동에 대해 재정의 규모와 재정 운용 등을 살펴서 그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자. 우선 용산서원의 초기에 해당하는 1700년(숙종 26)에서 1711년(숙종 37) 사이의 재정 지원 규모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초기 용산서원의 재정(지원) 규모²⁹⁾

구분	세부구분	지원자	재정(지원) 내용
관	경주부윤	李衡祥·韓命相·呂必容·李麟徵·沈宅賢·鄭必東·金致龍·李師尙	米5石, 租27石, 眞麥3통, 太1石, 牟2石, 鹽3石, 미역2통, 전복1첩, 白紙10권, 細木6필, 正鐵20斤, 炭10石, 曲子2통, 眞墨2통, 松墨2통, 기와 500장, 祭器 등, 烟軍 및 僧軍(900명), 기와 500장
	관찰사 및 인근수령	李世載·朴權·洪禹齡·權羈(관찰사)·柳漢明(병사)·朴澄(울산부사)	
	기타관청	各面洞 列邑校院 軍官廳·養武堂	米3石 14斗, 租28石 10斗 7升, 錢文7兩 3錢 米7斗, 太4斗, 錢文31兩, 白紙1권, 건어물 약간 米1石, 租10石, 錢24兩6錢, 細木1필
민	후손	直孫, 傍孫, 外孫, 外裔	米5石8斗6升, 租96石2斗, 토지 약 2結70負, 노비13口, 錢文136兩3錢, 白紙3권, 卍紙3권
자체	서원자체		1結41負1束

期の 鄉村敎學振興에 대한 검토」, 『朝韓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301~303쪽.

초창기의 용산서원은 아직 사액을 받기는 하였으나 祠宇에 그쳤기에 이러한 재정지원은 대체로 사우의 건립과 그 운영, 곧 제향에 소용되었다. 관변 측으로부터의 지원이 적지 않았고 후손들의 지원에도 힘입어서 용산서원의 토지는 초기에 4결이 넘게 되었다. 이는 서원전에 대한 면세를 3결로 책정한 1721년(경종1)의 조치를 고려해본다면 안정된 상태를 조기에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손들의 증여로 마련된 토지가 2결 70부로 서원자체에서 마련한 1결 41부 1속보다 많았던 점은 용산서원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1700년(숙종 26)에 이미 송렬사우 이전 忠烈祠 단계에서 院屬과 伊助村 등 完護村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³⁰⁾ 완호촌은 이 시기에 서원이나 사우에 균역의 면제를 조건으로 하여 원생 또는 保率 仰屬人 등의 명목으로 良丁을 冒占하고 완호촌의 이름으로 촌락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관에서 관으로부터 烟戶와 雜役을 면제해 주는 대신 서원의 관리와 제향시 祭需의 조달을 담당하였다.³¹⁾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던 용산서원의 운영에 관해 1724년(경종 4년)의 상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 등은 다음과 같다.

〈표 3〉 1724년 용산서원의 수입과 지출³²⁾

	항목	액수	합계
수입	전년도 이월금	錢文 17兩1錢8分, 租 4石8斗	錢文 17兩1錢8分 租 15石14斗
	杏庫 新分租	租 11石6斗	
지출	祭需	租 2石	8石6斗 流用錢 173兩5錢
	流用米	租 6石 6斗	
결산			1石8斗 3兩1錢8分

29) 鄭萬祚, 앞의 논문(2005), 136쪽 ; 『古文書集成』 51의 용산서원 考往錄, 362~434쪽.

30) 『古文書集成』 50, 「書目」 〈忠烈祠有司書目〉.

31) 鄭萬祚, 앞의 논문, 2005, 139쪽.

32) 鄭萬祚, 앞의 논문, 2005, 144쪽.

이상의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의 규모는 조 8석6두와 전문 173냥으로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그 가운데 주요한 지출항목으로는 제수와 손님 접대, 有司 公會 때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유생에 대한 供饋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출 비용을 본다면 당시 용산서원의 운영은 향사를 위주로 하고 있었으며, 손님의 접대와 운영을 위한 모임에 대한 지출이 주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용산서원이 사액을 받기는 하였지만, 아직 사우로 명명되고 서원으로 불리거나 혹은 서원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사우에서 서원으로의 변화는 매우 혼돈된 상황에서의 변화였다. 1714년(숙종40)에서 1741년(영조17)까지의 훼손되었던 祠院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금령을 어기고 사사로이 건립되었다가 훼손된 서원은 모두 173개에 이르렀다고 한다.³³⁾ 그 가운데 경상도의 경우 모두 52개가 해당하는데, 서원은 7곳, 祠는 4곳, 祠宇는 2곳이 해당하였다. 용산서원의 경우는 사우로서 이미 사액을 받았던 곳이기 이러한 훼손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오히려 훼손되는 서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에서 서원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용산서원은 19세기에는 서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였다. 이러한 면은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용산서원의 강화와 관련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고왕록』은 1744년(영조20)까지만 기록되었고 이후 1792년(정조16)까지 47년 동안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기 중, 후반에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19세기에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임원의 구성에서 이전에 없었던 齋任이 보이고, 재정운영에서 典穀所·別庫·別置之 세 곳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³⁴⁾ 용산서원의

33) 鄭萬祚, 「英祖 17年の 祠院毀撤」,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288~291쪽.

34) 서원의 재정운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서원의 경우 서원 재정은 별개로 별도의 사업을 위한 재정 기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이와 같은 별도의

南齋와 北齋를 관리하던 재임의 출현은 서원에서의 교육을 전담하고 교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 재정운영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일상재정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를 위한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하였다.³⁵⁾

19세기 전반 약 50여 년 사이에 용산서원에서는 巡題와 考講 등 백일장과 비슷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전반 용산서원에서의 교육 관련 행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19세기 전반 용산서원의 교육 관련 행사³⁶⁾

	일시	행사 내용	시상	비교	전거
1	1804.5.2	白日場		榜目	考住錄
2	1808.7.15	巡題 都計劃 34人	白紙1束	榜目	상등
3	1811.4.8	巡題 72인		居接錄	상등
4	4.15~17	設接 28인	백지1속	居接錄	상등
5	1816.5.	考課			상등
6	1817.1.	考講			상등
7	1817.7.	巡題 38인	백지1속	榜目(會話錄)	상등
8	1818.4.	巡題 86인, 二抄 111인, 三抄 92인, 四抄 95인, 五抄 92인	백지1속	榜目(居接錄)	상등
9	1819.윤4.	巡題 61인, 二抄 82인, 三抄 76인, 四抄 81인, 五抄 76인, 六抄 68인	백지1속	榜目(居接錄)	상등
10	1820.여름	巡題 70인	백지1속 장원2속	榜目(居接錄)	상등
11	1822.5.	詩賦 抄出 28인	백지1속	榜目	상등
12	1823.6.	詩賦 抄選 48인	백지1속	榜目	상등
13	1824.7.	巡題 50인	백지1속	榜目(居接錄)	상등
14	1826.	大學 心經 講義			상등
15	1827.7.	巡題 100인	백지1속		상등

재정운용기구를 두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재원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35) 鄭萬祚, 앞의 논문, 2005, 154~157쪽.

36) 김경용, 앞의 논문, 2006, 9쪽의 〈표 1〉을 참조하여 행사를 재구성하였다.

	일시	행사 내용	시상	비고	전거
16	1830.윤4.	巡題 112인	백지1속		상동
17	1833.3.1.	小學 設講			상동
18	1833.3.	儒生 設講			상동
19	1834.8.	巡題 90여 인	백지1속		상동
20	1836.5.	巡題 90여 인	백지1속		상동

旬題의 경우 원래 旬製에서 온 것으로서 성균관이나 사학, 향교에서 매달 3차례 시행하던 제술시험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순제는 조선후기에는 사라지고 순제 대신 '課題'라는 명목으로 매월 부와 표 10수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에 비해 용산서원에서 치러진 旬題는 지방 유생들이 열흘마다 글 제목에 맞추어 자기 집에서 제출하여 바치게 하여 이를 평가하였던 것을 말한다.

考講은 원래는 성균관이나 四學에서 매월 시행하던 시험으로 이에 합격하면 생원시의 초시를 면제하고 바로 복시에 응시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확대되어서 지방의 유생들도 향교에서 고강을 치르게 하였던 것인데, 정기적으로 치른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充軍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서원에서도 고강을 시행하였는데, 용산서원에서의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확인된다.

이 밖에도 백일장의 형태로 시부를 겨루어서 시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1804년의 백일장은 지방관인 부윤의 요청으로 성대하게 시행하였던 것으로서 지방관의 흥학책에 호응한 행사였다. 이해 5월 2일 경주부윤 崔獻重이 서원에 謁廟하였던 것을 기회로 용산서원에서 백일장을 열고 모두 50명을 선발하였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거점소도록』에 상세하게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錢 51냥과 租 10석(60두)로서 모두 64냥 정도이다. 18세기 초의 용산서원의 1년 재정이 대략 錢 173냥, 租 8석 6두였음을 고려하면 한 번의 행사에 1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큰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행사에 소용된 비용은 용산서원의 재정담당 기구인 典穀所와 別庫로

빌려서 해결하였다. 백일장에 썼던 51냥에서 26냥을 別置에서 돌려받았고, 25냥은 別고에서 인출하였다. 용산서원의 재정을 담당하는 세 기구인 전곡소, 別고, 別치 사이에서 빌려 주고 빌려 받는 형태로 재정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서원 내 독립적으로 재정을 담당하였던 세 기구 사이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용산서원 자체로는 큰 부담 없이 행사를 치른 셈이었다.³⁷⁾

다른 서원들이 재정 형편이 열악해짐에 따라 유생의 거재나 순제, 고강, 백일장 등의 교육 관련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에 비해 용산서원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하였다. 19세기 전반에 支拂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하고, 각종 기물을 구입하여 거점에 대비하였다.³⁸⁾ 이후에 1836년까지 대략 16회 정도의 課試가 시행되었다.(〈표 4〉 참조) 이것은 평균적으로 2년에 1번씩 행사를 치른 것으로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며 진행된 것이었다. 행사 때마다 최소 50~60명, 최대 100명 내외의 유생들이 참여하였고, 또 이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백지 1속 등이 시상으로 주어지기도 하였으니 적지 않은 재정이 투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산서원의 재정지출은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과시를 시행한 지 10여 년이 지난 1818년(순조 18)이 되면 서원과 거점소의 운영에 따른 부채로 인해 거점소의 전답을 팔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용산서원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서원과 거점소 운영 때문에 진 빚이 수백 쉼에 이르러서 부득이 전답 18두락을 팔았으나 부족하므로 다시 답 10두락을 팔아 120냥을 만들어 100여 냥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기로 하였던 것이다.³⁹⁾

37) 이상은 『고왕록』과 『居接所圖錄』 및 鄭萬祚, 앞의 논문, 2005, 157~161쪽.

38) 『龍山書院考往錄』 을축 5월(『고문서집성』 51, 397쪽), 임신 2월(『고문서집성』 51, 405쪽).

39) 『龍山書院考往錄』 을축 5월(『고문서집성』 51, 409쪽) “戊寅二月日本所及居接所目 丙子致祭後餘債已至數百金之夥 居接所查捨別斗落地斥賣報償 而餘無收刷之路 因享祀收公議 本院杏尼勿坪合斗落地劃出拵價壹佰貳拾金 姑爲放賣 拵据前債百餘金 次次酬債 餘金留今(하략)”

용산서원이 진 부채에는 향사 비용도 포함되었지만 거점소의 전답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보면 課試의 행사 비용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순조 22년, 29년, 헌종 2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더구나 1836년(헌종 2년)에는 모두 49두락(203냥)을 팔아야 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은 과시로 인한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⁰⁾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시행된 용산서원의 순제와 고강, 백일장 등의 행사는 결과적으로 용산서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원래 경주부의 읍치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때 경주부의 읍치에는 서악서원이, 府北에는 옥산서원이 대표성을 띠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 府南에는 사족의 세가 약하였는데, 바로 용산서원이 부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데에는 교육 관련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신입으로 들어오는 유생들이 내는 값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 원래 종전에 원생이 바치던 돈은 0.5냥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4냥을 받게 되었다. 또 경주부의 서원 지원 대상에서도 선정되기도 하였다. 1869년(고종 6)에 경주부윤인 趙耆永이 용산서원의 洞主가 되어, 補院錢 300냥의 이자 120냥을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에 서악과 옥산서원과 함께 지급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⁴¹⁾

19세기 전반 용산서원의 이러한 활발한 교육 관련 행사는 경주부의 대표적 서원인 옥산서원과 비교해 보아도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옥산서원은 17세기 중반에 거재를 시행하면서 18세기 중반까지 비교적 정기적으로 거점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매년 진행하던 거점을 중

40) 『龍山書院考往錄』 병신 5월(『고문서집성』 51, 419~420쪽).

41) 鄭萬祚, 앞의 논문, 2005, 164~165쪽.

단하였는데 이는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것을 일부 용산서원이 계승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옥산서원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순제와 백일장 등을 통해 강학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다.⁴²⁾ 이러한 옥산서원의 노력은 용산서원의 그것과 비슷하며 19세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악조건 속에서 서원이 존재할 수 있는 노력의 하나였다.⁴³⁾

V. 맺음말

경주를 대표하는 서원 가운데 하나인 용산서원은 여러 면에서 다른 서원과는 특징적인 면모가 있다. 최진립이라는 무인을 제향하였으면서도 사액을 받았던 것은 드문 사례이다. 또 사우에서 서원으로 변모하였으며, 조선후기 서원의 존재 양태를 보여주는 많은 고문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1699년 총렬사라는 사우로서 건립되고, 1711년 승렬사우로 사액을 받은 과정 역시 대명여리와 준주대의가 강조되었던 숙종대의 분위기 속에서 최진립이 대보단의 제식향렬에 들어가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창립과정이나 사액을 받는 과정, 사우를 운영해 갔던 초기의 사정 등에서 용산서원은 후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경주최씨는 운영과정에 인적으로나 물질적인 지원, 특히 토지의 기부 등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다만 기존의 서약서원이나 옥산서원이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남인 위주의 색채가 강했던 반면에 용산서원은 당색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우를 서원으로 바꾸려는 시도와도 관련되었다. 18세기

42) 이병훈, 앞의 논문, 2019 참조.

43)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접보다는 백일장과 순제 등을 주로 19세기에 시행하였던 것은 소수서원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김자운,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중반의 어느 시점에 승렬사우에서 승렬서원으로, 다시 승렬서원에서 용산서원으로 변신하면서 용산서원은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를 위해서 1752년 용산서원에서는 거접(169명 참여)을 시행하는 등 대규모의 강학 관련행사를 시행하였다. 옥산서원이 거접을 중단하였던 것을 이어서 18세기 후반에 거접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주 지역에서의 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용산서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19세기에도 이러한 활동은 이어져서 순제나 백일장, 고강 등을 자주 개최하였다. 19세기 전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런 행사는 대체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였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 거제보다는 하루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행사의 지공을 위한 비용, 시상 비용 등으로 용산서원의 재정 상태는 열악해져서 서원 소유의 전답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할 정도였다.

순제와 고강, 백일장 등의 행사가 19세기 전반에 용산서원에서 활발하게 시행된 것은 이 시기 용산서원만은 특징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주부의 다른 서원보다는 활발하게 교육 관련 행사가 시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용산서원의 이러한 노력은 기존에 관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용산서원을 경주부 남쪽의 대표적인 서원이라는 위상을 확보하게 하였다. 관에서 과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보하고 수집하는 대상에 향교와 서약서원, 옥산서원에 더해 용산서원도 추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주부의 3대 서원으로 인식되었던 한편에는 용산서원이 개인의 사우에서 출발하였다는 인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읍지』나 『영남읍지』에는 여전히 승렬사우로 기록된 것에서 사우에서 출발하였던 용산서원의 인상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44) 『경상도읍지』(규 666) 권2 ; 『영남읍지』(규 12173) 권1 참조.

【참고문헌】

1. 사료

- 『古文書集成』 50
『古文書集成』 51
『경상도읍지』(규 666)
『영남읍지』(규 12173)
『龍山書院事實』(국, 古1247 153)
『皇增配享諸臣目錄』(奎1325)

2. 연구논저

- 김경용,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 2006.
김지운,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孫淑景, 「朝鮮後期 慶州의 書院과 士族의 地域支配秩序－慶州伊助의 龍山書院과 崔氏家門－」,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2.
_____, 「朝鮮後期 慶州 龍山書院의 經濟基盤과 地域民 支配」, 『古文書研究』 5, 1994.
안승준, 「慶州崔氏家の 社會 經濟的 基盤과 龍山書院의 運營」, 『龍山書院』, 2005.
우용제,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교육과학사, 1999.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강화 활동과 그 성격」, 『한국교육사학』 41-2, 2019.
鄭萬祚, 「英祖 17年の 祠院毀散」,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朝鮮後期の 郷村教學振興에 대한 검토」,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_____, 「英祖 17年の 祠院毀散」,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_____, 「朝鮮後期 書院의 財政運營 문제에 관한 一試論」, 『龍山書院』, 집문당, 2005.
丁淳佑, 「龍山書院과 教育活動」, 『龍山書院』, 집문당,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龍山書院』, 집문당, 2005.
伊助崔氏門中, 『國譯晉窩先生實紀』, 龍山書院, 1975.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원 관련 자료 해제－龍山書院事實」, 『한국서원학보』 4, 2017.

Abstract

Operation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Yongsan Seo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Jung, Jaehoon*

Yongsan Seowon, one of the Seowons representing Gyeongju, has a distinctive aspect from other Seowons in many ways. In general, compared to the ritual of literary men in Seowon, it wa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even though it performed the ritual of armed men. Yongsan Confucian Academy was established in 1699 as a Buddhist temple called chungnyeolsa(忠烈師祠). Afterwards, the process of receiving official recognition as a royal official in 1711 was possible in the atmosphere of King Sukjong's reign, which emphasized loyalty to the Ming Dynasty.

While Seoak Seowon and Oksan Seowon, which already existed, had a strong color centered on the Sajok, the Yongsan Seowon made various attempts to overcome it without being bound by the faction. These efforts were also related to the attempt to change Sawoo into Seowon. At some point in the mid-18th century, Sungnyeol Sawoo was transformed into Sungnyeol Seowon, and then Sungnyeol Seowon was transformed into Yongsan Seowon, renewing its status as a Seowon.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Yongsan Seowon held events related to learning, such as large-scale ceremonies. Continuing Oksan Seowon's discontinuation of Geojeop, Yongsan Seowon took the initiative in edu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insojung@knu.ac.kr

in the Gyeongju area by continuing to practice geojeop in the late 18th century. This contributed to raising the status of Yongsan Seowon.

Even in the 19th century, these activities continued, and frequent events such as Sunje(巡題), baekiljang(白日場), and gogang(考講) were held. These events, which were actively held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were generally in the nature of preparing for the past exam, and in many cases, they were limited to one-day events to reduce costs rather than staying in a seowon for several days to study.

By providing a lot of financial support for these events, Yongsan Seowon secured its status as a representative academy in the south of Gyeongju. In addition to Hyanggyo, Seoakseowon, and Oksanseowon, Yongsanseowon was added to the objects to which the government notifies and collects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the examinations.

Key word : Yongsan Seowon, Sungnyeol Sawoo, Geojeop, Sunje, finance

논문 투고일: 2023. 05. 31 심사 완료일: 2023. 06. 15 게재 확정일: 2023. 06. 16

조선후기 상주 玉洞書院 원임의 구성과 변화

김 순 한*

- I. 머리말
- II. 18세기 원장 구성과 추가 배향 후 변화
- III. 19세기 원임 구성의 변화와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상주 옥동서원의 원임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와 특징을 검토한 글이다. 옥동서원의 원임은 원장과 재임으로 구분하여 선출하였다. 원장직은 서원을 대표하여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자리였다. 서원을 상징하는 존재이기에 학덕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고자 노력하였고, 선출된 이후부터는 원장의 권위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옥동서원의 원임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임원록』과 『분향록』, 『집사분정』 등 서원의 고문서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18세기와 19세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원임 구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총 1,133명의 원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임 구성과 변화를 시기별로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옥동서원은 18세기 초반 서원으로 승격된 이후 상주 남인계 대표 서원인 도남서원의 운영을 모범으로 '원장-재임' 체제로 운영하였다. 이 체제는 1828년까지 이어지다가 1868년부터 '원장-1유사-재임' 체제로 변화되어 1879년까지 약 11년간 유지되다가 1880~1886년에 잠시 '원장-재임'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887~1893년 동안은 '1유사-2유사-재임' 체제로 바뀌었다가 1894~1900년에 다시 '원장-재임'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원임 구성 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은 대원군 집권기에 대대적인 서원 개혁 정책에 의해 미사역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starjji@yu.ac.kr

원사를 휘철하고 지방관이 사액서원의 원장을 맡도록 하면서였다.

둘째 원장의 인원수와 재임 기간 그리고 성씨별 분포에서도 몇 가지 변화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원장 인원수는 18세기 원장 인원수에 비해 19세기 원장 인원이 수가 2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18·19세기 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각각 10.4개월과 5.8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다. 18세기 전반기는 원장 수는 총 30명으로 선출된 성씨는 17개였으며 한 문종의 성씨가 원장직을 독점하지 않고 대체로 상주 향내 인사들이 고루 선출되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기가 되면 전반기에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원장 수가 68명인데 장수황씨가 19명, 풍양조씨가 14명으로 두 성씨의 원장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서원의 추가배향과 청역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성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가 원장 선출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19세기 원장 수는 202명이었는데, 장수황씨가 57명을 차지하였으며 19세기에도 여전히 서원 운영의 주도권은 장수황씨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19세기에 선출된 원장의 성씨를 18세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풍양조씨가 16명에서 6명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18세기 원장 비중이 낮았던 성씨가 19세기에는 급격히 높아진 성씨도 있었다. 진주강씨인데 18세기에는 10명이던 것이 19세기에는 32명으로 급증한 변화도 보였다. 이외 서원 운영의 참여율이 높은 성씨로는 진양정씨, 여산송씨로 나타났다. 제향자 사서 전식의 후손 옥천전씨의 원장은 18·19세기 모두 1~2명 정도임을 참고하면 서원 운영에 미미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임의 구성은 선출된 황씨의 명단을 검토해보면 대체로 장수황씨였다. 18·19세기 황씨의 재임은 356명으로 4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성씨는 이씨, 김씨, 조씨, 정씨 등이었다. 조선후기 옥동서원의 원임록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은 18세기 초반 향중 인사가 고루 선출되어 서원이 운영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장수황씨 주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 장수황씨가 높은 비율로 원장으로 선출되어 문중성이 더욱 강화되어 운영되었다. 한편으로는 옥동서원이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잘 대응하면서 운영한 모습도 보였다. 추진한 추가배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정조가 추진한 남인 우대정책 시기에는 청역 소청팀이 상경 8개월 만에 사액을 받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두 과업을 장수황씨 문종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원임 선출에서도 높은 비율로 선출되어 서원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백옥동영당(白玉洞影堂), 옥동서원(玉洞書院), 원임록(院任錄), 운영체제, 원장

I. 머리말

옥동서원의 전신은 16세기 방촌 황희(1401~1456)의 영정을 봉안한 백옥동 영당이다. 1714년(숙종 40)에 沙西 全湜(1563~1642)을 배향하고 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86년에는 畜翁 黃孝獻(1491~1532)과 槃澗 黃紘(1578~1626)를 추향하였다. 이후 1789년(정조 13)에 지역 사림의 공의로 추진한 청액활동에 의해 ‘玉洞’으로 사액되었다. 1714년 옥동서원으로 승원한 이래 현재까지 제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옥동서원은 명재상 황희와 상주 대표 사람인 사서 전식을 제향한 상주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남인계 서원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았던 47개 서원에 속한 서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옥동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 이들이 원임이다. 특히 원장은 서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현재 원임의 인적 구성이나 원임의 운영체제 그리고 서원 운영에 관련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밝혀졌다.¹⁾

1) 이수환의 『조선후기 서원연구』에서 서원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 이후 현풍 道東書院, 영해 仁山書院, 경주 龜岡書院·世德祠, 안동 鳳岡影堂, 성주 迎鳳書院 등 서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로 확장하였다(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수환, 「道東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 『사학연구』 60, 2000;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散」, 『대구사학』 63, 2001; 「慶州 龜岡書院 研究」, 『朝鮮時代史學報』 34, 2005; 「星州 迎鳳書院 研究」, 『역사교육논집』 54, 2015). 이외에도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윤희면, 「慶尙道 咸陽의 濼溪書院 研究」, 『남명학연구』 26, 2008; 이규대, 「강릉 五峯書院의 설립과 院任 조직의 운영」, 『울곡사상연구』 20, 2010; 김형수, 「李滉 書翰을 통해 본 明宗代 書院의 創建과 運營」,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추제협, 「회연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 57, 2014; 구분옥, 「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 57, 2014; 이병훈, 「조선 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등 많은 연구자에 의해 서원의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영남지역의 서원은 국가나 관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받되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관의 간섭에서 벗어나 ‘향촌 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퇴계의 서원관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조반정과 갑술환국 이후 서인 내지 노론이 집권하면서 서원은 강학보다 제향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들 서인계는 학문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향촌사회 내에서 서원의 운영과 주도 세력이 영남 남인계에 비해 열세였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서원의 건립과 운영을 중앙의 지원정책에 의존하였다. 이에 반해 영남 남인계는 퇴계 이황의 서원관에 따른 향촌 자치 운영의 한계에 점차 직면하였고, 노론 주도 정국에서 중앙권력과의 연계가 쉽지 않아 서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론 정권은 남인 본거지인 영남지역에 자파 서원을 건립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향촌 분열과 제향 인물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영남 남인계를 대표하던 퇴계 이황의 ‘서원관’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점차 서원의 존립 차원에서 관권과의 연결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이 서원 운영의 인적 구성에도 반영되고 있었다.²⁾

하지만 개별 서원의 운영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충분치 못해 이 방향의 사례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계승하되,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한 사례로 상주 옥동서원의 운영 관련 고문서를 활용하여 인적 구성의 변화와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옥동서원의 경우는 서원으로 승격한 이후 19세기까지 원임록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다. 결락된 시기의 내용은 『분향록』이나 각종 고문서를 통해 보완

2) 이수환, 앞의 책, 2001, 104~130쪽;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 구사학』 49, 1995;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2015; 「도동서원의 인적구성 및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2000;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 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2018;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8, 32~63쪽.

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전·후반기 옥동서원 원임 구성을 검토하고, 특히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황희의 후손을 추가 배향한 이후와 서원이 사액된 후의 원임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세기 원임 구성에서도 어떠한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옥동서원의 『임원록』, 『집사분정』, 『분향록』, 『시도기』, 『소청일기』, 『본원일록』 등 각종 고문서를 주 자료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서와 여러 문집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옥동서원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서원과 비교 분석할 때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 될 것이다.

II. 18세기 원장 구성과 추가 배향 후 변화

조선시대 서원의 실질적인 인적 구성은 원임과 원생이다. 원임은 ‘院中職任’의 준말로 서원을 운영하고 대표하는 직책이다.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소수서원 원규」에 원장 1인과 院貳 1인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院任事錄』에 원장만이 나타나는 것과 영남 남인 서원의 典型 원규인 「이신원규」에 上·下有司만을 둔다는 내용에서 초창기 서원의 조직체제가 아직 정착하지 못했음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³⁾ 또 퇴계가 교육활동과 경제적 운영에 대해서 전자는 講長격인 山長·洞主를 초빙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⁴⁾ 후자는 지방관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관의 경제적 후원 외에 서원의 조직과 운영만큼은 퇴계 자신이 주장했던 향촌 자치론에 기초하여 침해를 막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서원제도가 정착되면서 영남 남인계 서원의 원임은 ‘원장-유사’ 체제로 정비되었고,⁵⁾ 서인(노론)

3) 이수환, 앞의 책, 2001, 104~130쪽 ; 윤희면, 앞의 책, 2004, 189~218쪽.

4)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書.

계 서원의 경우는 대체로 ‘원장-장의-유사’ 체제로 정착되어 갔다. 서인계 서원에서는 중앙 관료를 원장으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원의 형편에 따라 京院長·鄕院長으로 구분하여 선출하기도 하였다.⁶⁾

도동서원의 원규에서 ‘원장은 一院之長으로 倡道의 주망이고 朋徒를 흥기시키는 사람이다’⁷⁾라고 한 것처럼 원장은 원사를 총괄하는 서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⁸⁾ 또 ‘擇有司’ 조에 ‘유사 또한 一院을 管攝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장과 원증이 상의하여 선택하되 반드시 순박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사람을 얻어 임명한다’⁹⁾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서원의 대소사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유사이다.

옥동서원의 경우는 당시의 원규가 남아 있지 않아 원임 선출 규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은 대체로 「이산원규」 또는 「백운동서원규」를 모범으로 하여 각 서원의 실정에 맞게 원규를 추가, 보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옥동서원도 두 원규를 근간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18~20세기 옥동서원의 원임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인계 서원의 원임 운영체제를 따르고 있었다. 현재 옥동서원의 원규는 2017년

5) 각 서원의 『원임안』을 살펴보면 ‘원장·유사’ 체제는 紹修·西岳·玉山·道東書院이며, ‘상·하유사’ 체제는 伊山·川谷·易東·陶山書院에서 확인된다. 이후 도산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院長·有司’ 체제로 전화되었으며, 屏山書院의 경우 초기 ‘上·下有司’ 체제에서 ‘院長·有司(上·下)’ 체제로 분화되었다(이수환, 앞의 책, 2001, 104~105쪽).

6) 이수환, 앞의 책, 2001, 118~127쪽.

7) 『寒岡續集』 권4, 雜著, 道東院規, 尊院長, “院長者, 所以爲一院之長, 而主盟倡道, 以興起朋徒者也.”

8) 원장의 직임은 대체로 3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서원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감독 권이고, 둘째는 儒生의 入院 및 교육에 대한 감독 및 의무이며, 셋째는 유사 및 院屬들에 대한 임명·감독·처벌 등의 권한이다(이수환, 앞의 책, 111~112쪽).

9) 『寒岡續集』 권4, 雜著, 道東院規, 擇有司, “有司者, 亦所以管攝一院之事者也, 院長與院中, 同議擇之, 必得純謹精詳之人而任之.”

에 새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장은 춘추향사 罷坐席에서 현 원장의 천거로 유림의 동의를 얻어서 추대 하되, 매 1기마다 內鄕과 外鄕 인사를 번갈아 선출한다. 또 재임 2명과 별유사 2명을 둔다. 재임(享有司)과 별유사(旬管有司)는 향사 파직석에서 유림의 추천에 따라 선출하되, 재임은 내·외향으로 구분하여 내향유사는 춘향에 외향유사는 추향에 遞任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별유사는 장수황씨 본손과 타성으로 각각 1명씩 선임하며, 임기는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2명을 동시에 체임하지 않도록 한다.¹⁰⁾

18·19세기 옥동서원의 원임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전하는 옥동서원의 『임원록』은 전체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14년부터 1960년까지 임명된 원임을 기록하고 있다. 서원으로 승원한 1714년부터 『임원록』을 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대부분 잘 보존되고 있다. 1책은 1714년(숙종 40)부터 1899년(광무 3)까지 약 185년간의 『임원록』이며 다른 1책은 1900년(고종 34)부터 1960년까지 총 60년간의 원임 명단을 수록하였다. 『임원록』 작성 방법은 원임의 명단과 재임 기간 및 경력을 기재하였다. 임원록에 기재된 원장과 재임은 옥동서원 운영의 주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원임의 체제와 명칭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임은 원장, 재임, 유사, 장의 등으로 시기에 따라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했으나,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은 서원의 책임자, 그 외 직임은 실무를 관장하는 범주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¹¹⁾ 옥동서원의 인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18세기 『임원록』¹²⁾을 조사하였다. 1714년부터 1800년까지 85년간 선출된 임원 명단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0) 『옥동서원지』, 서원의 임원, 602~606쪽.

11) 원장, 유사, 재임 등의 관련 내용은 이수환, 앞의 책, 2001, 118~127쪽 ; 윤희면, 앞의 책, 2004, 188~193쪽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12) 『임원록』, 甲午[1714년]~辛酉[1799].

〈표 1〉 18세기 옥동서원 임원 현황

간지	재임 연도	원장	경력	재임명단	간지	재임 연도	원장	경력	재임명단
갑오	1714	李泰至		黃沆, 宋治文, 金益紀, 黃漪, 金道標	무자	1768	姜杻先		盧性元, 黃宅熙, 全達道
병신	1716	姜珣		黃漪, 宋道天, 黃鎮國, 李曾運, 黃濼, 黃淑, 趙允紀, 黃龍河	기축	1769	李曾暉		趙雲慶, 趙鎮基
정유	1717	洪相民	主簿	趙允紀, 黃龍河, 趙恁, 李儒亥, 黃泰河	경인	1770	鄭體模		黃敬中, 盧光宅
기해	1719	洪道達	縣監	黃泰河, 李曾該, 趙允裕	신묘	1771	呂鎬		黃敬中, 黃泰熙, 黃碩熙, 金潤萬
신축	1721	康守楷		黃泰河, 趙允裕, 宋光靚, 黃翼纘, 黃鍾建, 趙命星	임진	1772	盧鼎文		黃對休, 趙遇和, 李益榮
임인	1722	呂以觀		黃鍾建, 宋邦泰, 黃翼達, 金寅紀	계사	1773	趙允賢		黃對休, 李益榮, 李堯臣, 黃宅熙, 呂俊復
갑진	1724	黃鍾端		金寅紀, 黃翼達, 黃冥, 趙允明			黃大休		趙重鎮, 呂俊復, 李益榮, 黃百休, 李東時
병오	1726	權相一	掌令	趙允明, 黃道重, 黃翼纘, 黃凍, 宋道燮	갑오	1774	趙錫龍	掌令	黃百休, 黃泰熙, 金可權, 孫必慶
정미	1727	李曾輝	進士	黃凍, 金瑞潤, 金利國, 黃滌, 黃澈	을미	1775	黃景幹	生員	金可權, 孫必慶, 李堯弼, 趙遇和, 孫龍慶, 鄭明魯, 李堯莫, 黃弼熙
기유	1729	盧思義		黃澈, 金德標, 李挺, 黃濼	정유	1777	趙鍾暉		孫泰慶, 黃弼熙
경술	1730	黃鎮中		黃濼, 宋邦翰	무술	1778	黃瑞熙		黃允熙, 李益榮
신해	1731	趙自慎		黃翼述, 趙允楨, 黃洵, 李正相	기해	1779	李承延		黃允熙, 李益榮
임자	1732	黃濼	進士	黃洵, 李正相, 黃元重, 黃淙			趙錫結	進士	黃允熙, 李益榮, 孫鼎慶
계축	1733	金聖采		金德標, 黃聖河, 成滄	경자	1780	趙錫結	進士	李益榮, 權尙規, 鄭得魯
갑인	1734	金良鉉		黃第, 李正相			黃啓熙	生員	趙重鎮, 鄭得魯, 權尙規
		李麟至	進士	金瑞煥, 黃處重, 尹商輔	신축	1781	黃啓熙	生員	宋思智, 黃弼熙, 李堯績, 李敬儒, 黃鶴老, 姜世蕃, 琴英纘
병진	1736	黃龍河	生員	黃遠重, 趙允賢, 黃濼	임인	1782	李弘冑		趙述和, 黃鶴老, 黃耳老
무오	1738	趙允紀		黃堂重, 宋邦弼	계묘	1783	孫益顯		李坤維, 呂俊復, 趙重鎮, 趙逢和
		姜碩弼		黃處重, 李正相, 黃義重, 宋寬			洪羽吉		李益榮, 趙逢和

간지	재임연도	원장	경력	재임명단	간지	재임연도	원장	경력	재임명단
		金寅紀		宋璫, 李正相, 黃頤重, 黃夏三, 趙允祥, 黃緯重, 黃元重			姜世晉	生員	李益榮, 黃耳老, 鄭成魯, 趙述和
경신	1740	康萬元		黃元重, 韓必壽, 金利國	갑진	1784	黃聖休		趙述和, 鄭成魯, 黃宗熙, 李健培, 全鼎後
신유	1741	李增茂		黃津, 金利國, 黃得重, 宋瑒, 曹顯國, 黃景翰	을사	1785	姜必岳		鄭重魯, 趙鎭和, 黃鶴老
임술	1742	黃滌		黃景翰, 曹顯國, 黃岱重	병오	1786	姜必岳		黃鶴老, 洪學範, 李國培
계해	1743	孫雲傑		姜樞, 李坤敏, 黃性重, 趙命弼			趙安經		黃鶴老, 李國培, 呂文復, 趙遇和
을축	1745	康命杓		趙命弼, 黃性重, 黃遠重, 盧夏純, 黃斗南, 全致龍	정미	1787	趙鎭完		黃弼熙, 李敏儉, 李堯績, 李挺儒
정묘	1747	呂台周		黃斗南, 全致龍, 趙命新, 康度身			黃建中		黃弼熙, 李挺儒, 孫弘慶
무진	1748	李知聖	縣監	趙命新, 康度身	무신	1788	李禧遠		黃弼熙, 金惠慶, 李最儉
기사	1749	金聖欽	郡守	趙命新, 康度身, 黃性重	기유	1789	趙錫穆	獻納	黃弼熙, 李堯績
경오	1750	宋邦維		金聖鍵, 黃性重, 盧斗文			南必毅		孫海慶, 黃耆老
		金寅紀		黃性重, 黃景幹	경술	1790	鄭宗魯	都事	黃國魯, 黃莘老, 李挺儒, 黃趾熙
신미	1751	李堯訥	進士	黃景幹, 宋思玄, 全致龜	신해	1791	黃復熙		黃潤正, 趙侃洗, 李最儉, 呂文復, 李堯協, 姜世德, 黃國老, 姜鳳欽
임신	1752	黃凍		黃景幹, 全致龜, 金光葉, 黃復熙	임자	1792	李禧遠		黃耳老, 姜世德, 黃極老, 洪學南
계유	1753	姜杭	都事	金光葉, 黃復熙, 黃命幹, 康獻身, 黃孝重, 金克敬	계사	1793	趙錫獻		黃極老, 洪學南, 李翼煥, 金百礪, 黃巖老
갑술	1754	黃湛		黃孝重, 金克敬, 黃利幹, 河龍國, 黃處休, 金相鐸	갑인	1794	洪錫胤		黃巖老, 金百礪
을해	1755	趙天經	進士	河龍國, 全相鐸, 黃幹			黃敬中		李學培, 黃耆老
병자	1756	黃 湊		金相鐸, 黃幹, 黃尙謙, 琴舜協	을묘	1795	黃敬中		李學培, 金憲敬
정축	1757	姜杭	都事	金相鐸, 呂鏐, 黃復熙, 黃日照, 鄭再僑, 黃獻文, 黃建中, 趙宇鎭	병진	1796	黃敬中		趙扑然, 鄭象晉, 黃極老

간지	재임 연도	원장	경력	재임명단	간지	재임 연도	원장	경력	재임명단
경진	1760	丁樂慎		黃建中, 趙命德, 趙維鎮, 黃祥幹, 黃孝重			趙奎鎮		黃極老, 趙扑然
신사	1761	全始亨		黃祥幹, 黃泰熙, 黃孝重, 姜杓			姜必章		黃極老, 趙扑然, 金章泰
		黃處重		黃泰熙, 姜杓	정사	1797	趙木洙	未出座	李健培, 黃遇熙
		孫雲述		黃建中, 趙鎮宅, 趙日鎮, 黃厦重			李坤宅		李健培, 黃遇熙, 趙承洙, 黃眉老
계미	1763	黃遠休		黃厦重, 趙日鎮			李敬儒		黃眉老, 李命培, 黃極老, 全在一
		全氣和		盧鼎文, 黃載熙, 趙奎鎮, 李增久	무오	1798	孫會顯		黃極老, 李廣培
갑신	1764	黃翼績		黃載熙, 李增久, 宋思仁			洪胤忠		盧光瑞, 李錫音
을유	1765	盧漢文		宋思仁, 黃載熙	기미	1799	黃載熙		盧光瑞, 李錫音
		趙命熙		黃敬中, 宋思仁, 黃履重, 李慎儉			趙錫儉		黃敏中, 李錫培, 孫鎮璧
병술	1766	姜杭	都事	趙奎鎮, 李益榮	경신	1800	呂俊復		黃敏中, 姜長欽
정해	1767	李後松		趙奎鎮, 李益榮, 徐麟玉, 孫時璧			鄭重魯		黃輔熙, 姜長欽
		李增述		孫時璧, 盧性元, 全熙達			黃載休		黃輔熙, 姜長欽, 李養誠, 黃禮熙, 趙宅樑, 金宗鎬, 黃躋熙, 柳光淑

서원의 원임은 유림이 가장 많이 모이는 춘추 향사 때 제향을 마친 뒤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때 차기 원임 후보를 천거하여 유림의 다수가 지지하는 인사를 원임으로 선출하였다. 옥동서원도 현재의 원규 내용처럼 향사를 마친 후 원임을 선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18·19세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원임을 선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표를 보면 18세기 옥동서원의 원임 구성은 ‘院長-齋任’ 체제로 운영하였다. 전체 원임의 인원수는 444명이고, 그 중 중임을 포함한 원장 인원수는 98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장 중 중임을 제외한 원장 수는 89명이다. 85년간 98명의 원장이 재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평균 재임기간은 10.4개월이 된다. 이 산출 방식에는 조금 문제는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중임한 경우를 감안하면 계산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별로 분류하여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년이었다. 4개월을 재임한 원장 수는 15명이고 6개월을 재임한 원장 수는 26명, 8개월 재임기의 원장 수는 3명이다. 또 1년을 재임한 원장 수는 43명, 재임 기간이 2년인 원장 수는 10명, 3년을 재임한 원장도 1명 있었다. 이 수치에서 18세기 옥동서원의 원장은 1년 동안 재직할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개월을 재임한 원장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춘추 향사 때 새롭게 원임을 선출하여 1년 혹은 6개월 동안 서원 운영을 맡은 것이다. 현재 옥동서원의 원규에 규정된 임기를 고려하면 18세기 원임 운영체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원장으로 선출된 인물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2회를 중임한 원장은 조석철, 황계희, 강필악, 김인기 4명과 3회를 중임한 원장은 강항, 황경중 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상주 향내 거주자였다. 중임을 제외하고 선출된 원장 89명 중 14%인 12명은 사마시 입격자였고, 15%에 해당하는 12명은 군수·장령·현납·현감 등의 전·현직 인사가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75%는 모두 향중 인사로 유학이 선출되었다. 이처럼 대부분 향내 유학이거나 생원·진사·유학 및 전직 관료 출신 등으로 향내에 명망 있는 인사가 선출되었으며 이 중 유학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옥산·도산·병산·도동·도남서원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영남 남인계 서원이 퇴계의 서원론에 입각한 향촌 자치제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³⁾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관 12명이 선출된 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에서 서원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지방관과의 연결 고리가 필수적이었지만 재야로 밀려난 영남 남인계 서원은 관료를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맥·인맥·지연을 통해서 유력인사를 추대하거나 전직 관료를 선출한 것이다. 이는 퇴계가 서원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지방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13) 이수환, 앞의 책, 2001, 107쪽.

다음으로 18세기에 선출된 원장의 성관을 조사하여 서원 운영의 참여 성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동서원의 원장 성관 분포가 18세기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구분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18세기 전반기 중임을 포함한 서원의 원장 수는 총 30명이었다. 30명 중 장수황씨가 5명, 홍양이씨 4명, 풍양조·성산여·진주강·재령강·영산김·의성김씨 각각 1명씩, 나머지 신천강·안동권·청도김·광산노·경주손·여산송·전주이·남양홍·부림홍씨가 각각 1명씩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8세기 후반기의 원장은 중임을 포함하여 전체 68명이 확인된다. 18세기 전반기와 큰 차이점은 장수황씨와 풍양조씨가 원장으로 선출된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68명 중 장수황씨가 19명으로 28% 비중을 차지했고, 풍양조씨가 14명으로 21%, 진주강씨가 8명으로 12%, 홍양이씨가 5명으로 7.3%, 경주손·진양정씨가 각각 3명으로 4.4% 등으로 나타났다. 또 18세기 전반기에 보이지 않았던 제향 인물인 사서 전식의 후손 2명이 선출되었는데, 전기형과 전기화이며 선출된 연도는 1761년과 1764년이다. 앞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출된 원장의 성관을 18세기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18세기 전·후반기 옥동서원 원장 성관 분포

성관	18C전반 (인원)	18C후반 (인원)	성관	18C전반 (인원)	18C후반 (인원)	성관	18C전반 (인원)	18C후반 (인원)
長水黃	5	19	光山盧	1	2	草溪丁	·	1
豐壤趙	2	14	全州李	1	2	豐山洪	·	1
晉州姜	2	8	晉陽鄭	·	3	宜寧南	·	1
興陽李	4	5	沃川全	·	2	李氏	·	1
慶州孫	1	3	延安李	·	2	載寧康	2	·
缶林洪	1	2	星山呂	2	2	義城金	2	·
信川康	1	·	安東權	1	·	永山金	2	·
礪山宋	1	·	南陽洪	1	·	淸道金	1	

위 표를 참고하면 18세기 전반기는 한 문중의 성씨가 원장직을 독점하지 않고 대체로 상주 향내 인사들이 고루 선출되어 서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장수황씨와 풍양조씨가 원장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이 두 성씨를 합하면 33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진주강씨, 홍양이씨, 진주정씨를 합하여 19명이 선출되어 서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위 표에서도 나타나듯 18세기 후반에는 전반기에 비해 장수황씨와 풍양조씨가 원장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임의 개별 활동이나 옥동서원의 원임과 도남서원 원임 간의 교류들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17세기 초반에 건립된 도남서원은 상주를 대표하는 首院으로서 충실히 기능하였으며 건립 초기에는 정경세와 그의 문인들이 서원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617년에 노수신, 1631년에는 류성룡, 1635년에 정경세의 추배 역시 정경세의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주도한 문인들 역시 옥동서원을 출입하는 인물들과 학문적으로 문인 관계나 사승 관계 또는 혼반 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옥동서원에 추배된 황뉴는 ‘우복 선생 문하의 제일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며, 사서 전식은 우복 정경세와 막역한 문인 사이였다. 이렇다 보니 도남서원 원장 임기가 끝나면 옥동서원의 원장으로 선출되거나 반대로 옥동서원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도남서원 원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상민(1654~1727, 生父 홍여하)은 1704·1719년, 홍도달(1664~?)은 1717·1722년, 권상일(1679~1759)은¹⁴⁾ 1723년, 이증엽은¹⁵⁾ 1727·1730년, 이인지

14) 權相一(1679~1759)의 본관 안동이고, 자는 台仲, 호는 淸臺이다. 증조부 증좌승지 權坵가 예천에서 상주 근암리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조부는 증 이조참판 權以儻이고, 부친은 증이조판서 權深, 어머니는 경주이씨 부사 李達意의 딸이다. 권상일은 영남 남인 출신의 학자로 선대(6대조 權大器·5대조 權宇)에서 퇴계 이황의 학문을 전수받아 가학으로 계승되었다. 1710년(숙종 36) 문과에 급제한 후 승문원 權知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영조 연간 노론 정

(1683~1746, 이전의 증손)는 1727·1730·1735·1744년, 황민(1684~?)은 1732년, 이들 모두 옥동서원 원장과 도남서원 원장을 역임한 사례이다.¹⁶⁾

18세기 상주 향론에 큰 영향력 있었던 청대 권상일과 주변 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권상일은 1726년에 옥동서원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옥동서원의 원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권상일의 거주지인 산양 지역과 옥동서원은 거리가 꽤 멀어 자주 왕래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신 권상일은 자신과 막역한 사이였던 황익재의 사촌 황익찬(1764년 옥동서원장)과 권상일 자신이 도남서원의 원장 재직 시 재임이었던 황숙(1752년 옥동서원장) 등 자신의 측근을 옥동서원 재임으로 선임하여 옥동서원의 일을 책임지도록 하였다.¹⁷⁾ 옥동서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임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산양과 옥동서원의 중간 지점인 도남서원에서 만나 논의하였다.

권상일이 옥동서원 원장에 선출되었던 시기는 상주지역 남·서인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했던 때였다. 갈등의 시작은 1723년 도남서원 원장이었던 청대 권상일이 상주향교 청금록의 입록자 중 물의를 일으킨 서인 宋邦俊을 논의 끝에 퇴출한 사건이었다.¹⁸⁾ 이에 서인들은 1725년 2월 상주향교를 장악한 후 남인계 金昌欽·呂用賓·洪壽五 등을 삭적하고 서인 자파 임원을 선임한 사

국하에 영남 남인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지만, 퇴계 이황의 산림학자로서 관직 생활을 고수하여 실제 관직 재임기는 길지 않다. 대부분 고향인 상주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저서로는 『청대일기』, 『觀書近思錄集解』 등이 전한다(금장태, 「『청대전집』 해제, 『청대전집』 상, 여강출판사, 1989, 1쪽 ; 우인수, 「영남 남인 권상일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위상, 『민족문화논총』 62집, 2016).

- 15) 이증엽(1674~1742)의 본관은 興陽이고, 자는 晦伯이다. 부친은 진사 李泰至이고, 창석 이준의 현손이 된다. 이증엽은 1710년(숙종 36) 37세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옥동서원이 서원으로 승격되던 1714년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任員錄』, 甲午年). 옥동서원 이견시 『玉洞書院上梁文』을 지었다.
- 16)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490~492쪽.
- 17) 『임원록』, 丙午[1726년], 재임: 趙允明, 黃道重, 黃翼纘, 黃涑, 宋道燮.
- 18) 권상일, 『청대일기』, 1723년(경종 3) 8월 28일.

건에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을 두고 청대 권상일은 “전에 없던 이런 패악한 일이 일어났으니, 한탄스럽다”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¹⁹⁾ 또 그해 6월에는 서인 成爾漢 등이 도남서원 장악하고 원임에 서인을 선임하였는데, 원장에는 成德徵 재임은 成爾澍·金和鼎 이었다. 서인이 도남서원까지 장악한 이 사건을 두고 청대는 “世變이 줄곧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²⁰⁾라며 분노하였다. 이때 청대 권상일이 도남서원 원장직을 사임한 것도 당시 상주의 남·서인(노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²¹⁾ 상주 향론의 혼란기는 1727년 하반기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인 丁未換局을 단행하여 정국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들면서²²⁾ 상주지역의 남·노 갈등도 봉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남서원의 원임을 모두 남인계로 교체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남서원의 현안이나 갈등, 대립 등은 그 시안과 관련된 인물들이 옥동서원의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권상일은 원장 임기가 만료되고 난 후에도 옥동서원의 여러 현안에 수시로 자문 역할을 해 주었다. 옥동서원 원장으로 재임한 이태지·이증엽·이인지·홍상민·김성흠(이현일 신원소 소수)·강석필(권상일 벗)·강항·황만·황중서(황중서의 장자 溲과 권상일 문인) 등은 대체로 권상일의 문인이거나 혼반 관계 혹은 도남서원의 운영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옥동서원에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권상일은 충실한 자문 역할을 해 주었다.

한 사례를 들면 1744년 도남서원의 『원록』에 加錄된 명부를 등사하여 옥동서원 『원록』에 추가하는 문제로 향내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던 일이 있었다. 이때 권상일은 “본원(도남서원)의 원록은 근암과 옥성 두 서원 외에는 취

19) 권상일, 『청대일기』, 1725년(영조 1) 2월 17일.

20) 권상일, 『청대일기』, 1725년(영조 1) 6월 26일.

21) 권상일, 『청대일기』, 1725년(영조 1) 6월 14일.

22) 『승정원일기』 642책, 영조 3년.

해 쓰는 일이 없음은 선배들의 定論이 있어 준수함이 매우 견고합니다. 지금에 이르러 비록 각소에서 통문이 도착했지만 결단코 듣고 허락해서는 불가합니다.”라며²³⁾ 반대 의사를 내었다. 그런데 향내의 긍정적인 여론이 있자 권상일은 “鵜議를 널리 채집하여 좋은 쪽을 따라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라는²⁴⁾ 의견을 주어 도남서원의 원생 명부를 謄寫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세기 전반기에 옥동서원의 원장이 향내 인사들이 고루 선출된 것은 지역 공론으로 승원 직후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향론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 중심에는 우복 정경세 문인, 청대 권상일의 문인 그리고 남인계 공론의 거점 서원인 도남서원 원임이 옥동서원 운영에 참여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의 옥동서원 원장 선출은 두 가지 과업을 진행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업은 옥동서원의 주향인 황희의 후손 축용 황효현과 반간 황뉴를 옥동서원에 추가 배향하는 것이다. 옥동서원의 『追享時敦事錄』를 살펴보면 서원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사림의 공론을 취합하여 1786년 12월 11일에 추향례를 봉행하였다. 『추향시둔사록』에는 당시 원장, 추배 향사 시 집사들의 소임과 명단,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방문객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향사를 위해 분정한 집사의 수는 총 79인에 달한다.

집사들의 소임은 위판을 만들기 위해 별목을 담당한 伐版都監부터 통문을 작성할 製通, 제상과 향탁을 담당하는 床卓有司, 위판의 이동 및 추배 향사 전후로 각종 기록의 담당, 손님 접대와 접빈객의 술자리 담당, 방문객들이 데리고 온 노복의 음식과 말의 먹이를 담당하는 유사에 이르기까지 소임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추배 향사례의 성대한 규모와 절차를 짐작해볼 수 있다. 추향례 봉행을 주도했던 성관은 장수황·풍양조·홍양이씨이며, 당시 원장은 풍양조씨 趙安經, 재임은 성주여씨 呂文復.

23) ‘本院院錄，近巖玉成兩院外，不得取用事，先輩已有定論，遵守甚固。到今，雖各所通文來到，而決不可聽許耳.’(『백옥동잡록』, 「權弼善相一」).

24) 『백옥동잡록』, 「甲子八月 以院錄事 通道南書院文」, 「道南加錄通文」.

홍양이씨 李國培였다.

두 번째 과업은 바로 1789년(정조 13)에 청액 활동 8개월 만에 사액을 성공시킨 일이다.²⁵⁾ 그해 정조는 戊申亂 6주기를 맞아 무신란 진압에 공을 세운 충신을 재평가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우의정 번암 蔡濟燕(1720~1799)은 영남에서 창의한 남인들을 포상하는 데 앞장섰다. 때를 맞추어 남인계 서원이었던 상주 옥동서원에서도 사액을 받기 위한 청액소청팀을 꾸려 상경하였다. 당시 청액소청 임원진의 구성은 疏頭에 풍양조씨 趙圭鎭, 도청 趙允浩 등 풍양조씨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조규진은 청액 활동 기간에 청액 소청에서 추진했던 복합, 경제적인 문제, 소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임원진을 다독이며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당시 안동에서 상경한 李鎭東이 이끄는 영남 『무신창의록』²⁶⁾ 신원소청팀을 만났을 때도 창의록 수정 작업에 청액소청 임원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무신창의록』에는 옥동서원의 제향자 방촌 황희의 10대손 華齋 黃翼再(1682~1747)²⁷⁾도 포함되어 있었다. 황익재는 18세기 영남 향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청대 權相一(1679~1759)과 막역한 사이이기도 했다. 권상일은 『청대

25) 상주 옥동서원의 청액 활동과 사액 관련 내용은 필자의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액 활동과 사액의 의미」(『민족문화논총』 72, 2019) 논문을 참고.

26) 『무신창의록』은 1788년(정조 12) 이진동이 주도하여 1728년(영조 4) 무신란 때 안동과 상주 등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의 명단과 활동 상황을 정리한 책이다.

27) 황익재(1682~1747)의 자는 再叟이고 호는 白華齋이다. 1702년 문과에 급제하여 도사, 성균관전직, 예조좌랑, 현감 등을 역임했다. 황익재 반란군 연루설은 1730년(영조 6)부터 시작된 후 누명을 벗지 못하고 龜城으로 유배되었다. 그가 유배 중에도 '정배한 황익재를 다시 잡아 국문해야 된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1736년(영조 12) 영조의 하명으로 사면되었다. 하지만 황익재가 풀려난 후에도 '정배 명을 거둬들이고 형물로 처단하소서'라는 사면 반대 쟁가 1737년 8월까지 올라갔고, 영조는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끝내 신원해 주지는 못했다. 황익재는 무신란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1788년 11월 11일 52년 만에 정조의 명으로 신원되었다(『영조실록』,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영조 13년(1737년) 8월 ; 『정조실록』, 1788년 11월 11일).

일기』에서 40여 차례 이상 황익재를 언급하며, 학문적인 교류 등 여러 대소사를 의논하던 사이였다. 그런 황익재가 영광군수에 제수되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고을의 수령 자리를 얻었으니 축하할 만하나, 홀로 쓸쓸히 앉아 있으려니 서글퍼 멍한 심정을 견딜 수 없다”²⁸⁾라고 하였다. 황익재는 1721년(경종 1)에 도남서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권상일은 1723년에 도남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3년 후 1726년 권상일은 옥동서원 원장을 맡아주는 등 옥동서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황익재는 권상일과 더불어 상주 향론에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그는 무신란 때 반역자와 연루된 것이 아닌 반란군을 진압한 공을 세운 상주지역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정조는 안동에서 올라온 영남 『무신창의록』에 황익재와 玉川 趙德鄰(1658~1737)²⁹⁾의 공적 기록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서인노련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황익재와 조덕린의 신원과 함께 세초에서 삭제하라는 하명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황익재 신원 2개월 후 옥동서원의 사액도 내려졌다.

이는 영남 『무신창의록』 신원 상소팀과 옥동서원의 청액 상소팀이 정조의 정책 방향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상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액소 준비와 활동을 시작했던 1787년의 원장 조진완, 황건중, 1788년 원장 이희원, 사액 결정부터 사액례를 봉행했던 1789년의 원장 풍양조씨 조석목, 남필의, 그리고 여러 재임³⁰⁾이 사액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8) 권상일, 『청대일기』, 1723년(경종 3) 8월 19일, 321쪽.

29) 조덕린(1658~1737)의 자는 宅仁이고, 호는 玉川, 본관은 溇陽이다. 증조부는 杖 장 趙銜이고, 조부는 趙珩, 부친은 趙顏이다. 조덕린은 1728년(영조 4) 무신란 때 영남호소사에 임명되어 안동에서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관군을 도와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도리어 적과 연루되었다는 모함으로 제주도에 유배되어 가던 도중에 康津 海倉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옥천집』이 전한다.

30) 1786년의 재임은 黃鶴老, 洪學範, 李國培, 呂文復, 趙遇和가 선임되어 활동을 하였고, 1787년의 재임에는 黃弼熙, 李敏儉, 李堯績, 李挺儒, 孫弘慶이 맡았으며, 1788년에는 황필희, 金惠慶, 李最儉이 선임되었고, 1789년에는 황필희 이요적, 손

그 외 옥동서원 원장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의 증손인 이인지(1734 원장), 창석 이준의 현손 이증위(1769 원장)과 죽손 이증무(1741 원장)·이증술(1767 원장)을 들 수 있다. 또 식산 이만부의 손자인 이승연(1779 원장)³¹⁾ 증손인 이경유(1797 원장), 황서희(1778 원장)의 동생이자 대신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³²⁾ 고제인 황계희(黃啓熙, 1727~1785)³³⁾(1781~1782 원장)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이승연은 1779년에 옥동서원장을 역임하였고, 1789년(정조 13)에는 사액례 거행 시 勅諭禮로 차정되어 사액례 봉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 사액례 거행 전 告由文을 지어 고유제를 봉행하는³⁴⁾ 등 좌장 역할을 충실히 한 인물이다. 이승연의 아들 이경유는 1781년에는 재임, 1797년과 1806년에는 원장을 역임하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 옥동서원의 원임으로서 역할을 충실

해경, 黃耆老가 재임을 맡았다(옥동서원 『병오·정미·무신·기유·경술 원임록』).

- 31) 이승연(李承延, 1720~1806)의 자는 台甫·錫子이고, 호는 剛齋이며, 본관은 延安이다. 증조부는 예조참판 李沆(1641~1698), 조부는 식산 이만부(1664~1732, 소양서원·기산서원·근암서원 후), 부친은 李之彬이고 어머니는 서애 류성룡의 5대손 柳聖和(1668~1748)의 딸이다. 저서로 『剛齋遺稿』가 전한다.
- 32)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대신, 시호는 文敬, 본관은 한산이다. 증조부는 李孝濟, 조부는 李碩觀, 부친은 李泰和이며, 어머니는 재령이씨 갈암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손녀이자 밀암 이재(李裁, 1657~1730)의 딸이다. 처는 정경세의 문인 황뉴의 현손 黃混·황덕유 증손의 딸이다. 이상정은 이황 ⇨ 김성일 ⇨ 장흥효 ⇨ 이현일 ⇨ 이재 ⇨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통을 계승하였다. 이상정의 제자 중 金宗德·川沙, 황계희[審幾堂], 南英朝·卍齋는 삼고제[湖門三老]로 알려져 있다(김학수,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산수헌 소장 전적류의 내용과 성격」, 『장서각』 5, 2005, 281~282쪽).
- 33) 황계희(1727~1785)의 자는 景初이고 호는 審幾堂이다. 상주 모동에 거주하였으며, 젊은 시절 경전부터 稗史, 小說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황건중과 함께 대신 이상정 문하에 출입하면서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이후 『대학』, 『성학십도』, 『玉山講義』 등을 강론하였다. 이상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생인 李光靖은 “斯文의 책무는 더욱 공[황계희]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문집으로 『심기당집』이 있으며, 『대산집』과 『심기당집』, 『입재집』에 주고 받은 편지가 남아있다.
- 34) 옥동서원, 『본원일록』, 1789년 2월 27일, 2월 29일.

히 하였다.

1781년에는 황계희가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9년 뒤 옥동서원 원장을 맡은 정종로에게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다. 정종로는 황계희를 두고 ‘내가 이 學文을 함에는 실로 審幾堂(황계희) 공이 깨우쳐 주셨다.’라고³⁵⁾ 할 정도로 자신의 학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황계희를 꼽고 있다.

1790년 원장을 역임한 정종로(1738~1816)³⁶⁾는 황익재의 현손 黃錫老의 장인이기도 하다. 정종로는 사액 결정 후 사액 봉안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행정 처리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컨대 예조에서 발급한 사액 관련 관문을 상주 감영에 직접 가서 접수한다거나, 관문을 재발행하는 업무를 직접 챙겼다. 또 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상주감사 金光默, 함창현감 柳秉筠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하는 등 사액 후 후속 처리 행정을 꼼꼼히 챙겨 주었다.³⁷⁾ 이뿐만 아니라 1789년 8월 번암 채제공의 천거로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어 경향을 오가는 외중에도 장수황문 제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옥동서원에 특

35) 정종로, 『입재집』 권47, 행장. 成均生員審幾堂長水黃公行狀.

36) 정종로(鄭宗魯, 1738~1816)의 자는 士仰이고, 호는 입재, 본관은 진양(晉州)이다.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출신이며, 우복 정경세 6세손으로 이황→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영남학과 직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영남학과 종장 대산 이상정과 중유하며 학문의 저변을 넓혔고, 대산의 3고제[김종덕, 황계희, 남한조와 교유했으며, 특히 정종로 측근에서 가장 가깝게 교유한 인물이 황계희였다. 또, 1795년에 건립한 옥동서원의 문루의 상량문과 현판을 정종로가 지었고, 『옥동서원당재급수석명명기』에 강당과 동서재 등 부속 건물의 편액을 지었다. 입재는 약 200명이 넘는 문인을 양성하면서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다. 저서인 『입재집』에 황효현의 비문과 황계희와 황암로의 제문, 황계희 아들이자 제자인 황신로(黃莘老, 1755~1792, 10통의 편지)·황암로(黃巖老, 1759~1812)·황반로(黃蟠老, 1766~1840)·황재휴(黃載休)·황건중(黃建中)·황태희(黃泰熙)와 주고 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상 이상정의 사돈인 황뉴의 증손 黃鍾粹(1666~1716)가 정종로의 증조부 鄭錫喬의 사위인데 그의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입재집』).

37) 옥동서원, 『본원일록』, 1789년 2월 1일.

별한 관심을 가졌다.³⁸⁾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에는 옥동서원 원장직을 수락하여 사액 후 향내 서원의 위상 제고에 큰 몫을 하였다.

식산 이만부의 증손인 이승연도 1789년 옥동서원 사액례(4월 1일)를 위해 고유제의 제문을 짓고, 향례 절목을 정하는 등 齋禮를 맡아 성공적인 예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⁹⁾

옥동서원은 18세기 후반에 추진한 추가배향과 청액활동 과정에서 우복 정경세 문인, 청대 권상일 문인, 식산 이만부 문인, 대상 이상정 문인들이 과업을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추가배향과 청액활동 과정에서 상주 유림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추가배향 시기부터 사액이 결정되어 사액례를 봉행한 시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세력은 장수황씨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추가배향이 있었던 1786년을 기점으로 장수황씨의 원장 수가 9명이 추가배향 이후는 6명으로 급증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배향과 청액활동, 사액 후 사액례를 봉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서원의 토지를 방매할 때 장수황씨 주도로 추진하였다. 마련한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장수황씨 문중에서 부조를 통하여 경비를 충당하기도 하였다.⁴⁰⁾ 청액 운동을 위해 옥동서원 임원진이 상경했을 때 성균관 대사헌 黃昇源(1732~1807), 감찰 黃瑗 등 황희 본손들이 사액과 관련된 중앙 관료와의 연결, 중앙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준 과정에서도 장수황씨가 주도하였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옥동서원의 추가배향을 기점으로 장수황씨의 원장 선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서원의 운영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원장 수가 급증한 시기의 수치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가 원장 선출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또 두 과업이 추진될 때 장수황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성씨가

38) 『일성록』, 정조 13년(1789) 8월 7일.

39) 옥동서원, 『본원일록』, 1789년 2월 27~4월 1일.

40) 옥동서원, 『본원일록』, 1778년 11월 16일, 2월 26일.

풍양조씨였다. 풍양조씨는 추가배향 추진기에는 원장을 맡았고, 청액 활동 시기에는 소두를 맡아 두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그 결과 사액 된 그해 1789년 옥동서원 원장에 풍양조씨가 선출된 것이다. 풍양조씨가 거둔 이 두 공적으로 인해 18세기 후반기에 장수황씨 다음으로 옥동서원의 운영 주체 세력이 될 수 있었다.

Ⅲ. 19세기 원임 구성의 변화와 특징

다음으로 19세기 옥동서원의 인적 구성 변화와 특징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18세기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임원록』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19세기 옥동서원 『임원록』 현황⁴¹⁾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임술	1802	院長	盧啓心, 姜世白(正字), 孫會慶(都事)	정사	1857	齋任	黃養善, 金義鏞, 金漢羽, 李弘敎, 盧鳳賢, 柳瞻旆, 黃蘭善, 姜遠永, 黃達善
		齋任	黃躋熙, 柳光淑, 金百礪, 黃頤老, 申憬緣			院長	宋鼎陟, 趙述立(未出座), 黃集善
계해	1803	院長	金可權	무오	1858	齋任	金義鏞, 韓致永, 黃在中, 黃鐸, 姜來永, 宋奎憲
		齋任	孫覺慶, 黃夏老, 柳光淑, 黃彥林, 盧象敬, 黃極老, 全在一			院長	孫石練, 姜始永, 黃奎鉉
을축	1805	院長	洪聖天	기미	1859	齋任	宋奎憲, 黃鐸, 姜運永, 黃瓚周
		齋任	趙泰永, 李廷實, 李養誠			院長	洪肯周, 金管礪
병인	1806	院長	姜世白(持平), 李敬(諱奉事), 慮以文	경신	1860	齋任	李秉華, 黃鍍, 洪祐善, 黃麟周
		齋任	趙朴然, 洪學馨, 黃錫老, 黃宣老, 金宗鎬, 黃踏熙			院長	姜性欽(未出座), 黃大鉉

41) 옥동서원, 『임원록』, 甲午[1714년]~辛酉[1799].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정묘	1807	院長	黃鶴老	신유	1861	齋任	洪祐善, 黃麟周
		齋任	金宗鎬, 黃躋熙, 趙鎮城, 黃宣老			院長	盧士敬
무진	1808	院長	姜世蕃	임술	1862	齋任	洪祐善, 黃麟周, 李耆輔, 李秉華, 姜春永
		齋任	黃宣老, 趙述老, 金赫傳, 鄭致權			院長	黃岱老
기사	1809	院長	洪義復	계해	1863	齋任	姜春永, 黃蘭善
		齋任	羅漢東, 黃淳光, 黃趾熙, 姜大欽, 李之存, 黃轅老, 金晉遇			院長	姜彙永
경오	1810	院長	李克培	갑자	1864	齋任	趙榮元, 黃養善, 金奎學
		齋任	黃轅老, 金宗鎬			院長	權淩
신미	1811	院長	黃莘老(生員)	을축	1865	齋任	黃養善, 金奎學(生員)
		齋任	姜哲欽(生員), 黃晉欽, 黃奎老, 黃養老, 金秉一			院長	姜甬永(生員), 鄭允愚(別題)
임신	1812	院長	鄭得魯, 金學培	병인	1866	齋任	李秉華, 黃文善, 金遇河, 趙光夏, 黃蘭善
		齋任	姜大欽, 黃獻老			院長	宋箕璉, 權淩
계유	1813	院長	黃禮熙(生員)	정묘	1867	齋任	黃蘭善, 趙光夏, 黃在敦, 金憲奎, 黃源萬, 黃箕善, 金重八
		齋任	姜大欽, 黃象鉉			院長	鄭民采, 金熙永(係繼)
갑술	1814	院長	姜世綸(修獎)	무진	1868	齋任	朴光梓, 黃養善, 黃龍周, 姜逢永, 黃獻周,
		齋任	黃象鉉, 宋啓泰, 趙燮榮, 黃晉鉉, 李選基, 李坤五			院長	黃擘鉉, 鄭基永(牧使)
을해	1815	院長	黃眉老	기사	1869	一有司	姜申永(生員)
		齋任	李坤五, 黃浩善, 洪燮周, 黃漢老, 金載崙			齋任	黃在昌, 姜逢永, 李韶九, 黃炳善, 宋基魯, 黃達善, 全相龍
병자	1816	院長	南奠浩, 姜世揆(正言)	기사	1869	院長	黃廷老, 南廷鶴(牧使)
		齋任	黃浩善, 洪燮周, 李起宗, 呂思汲			一有司	宋台浩, 宋鎮遠(生員)
무인	1818	院長	鄭成魯, 姜世興	경오	1870	齋任	黃命善, 姜有馨
		齋任	呂思汲, 黃鉉益(未出座)			院長	閔致序(牧使)
기묘	1819	院長	黃磻老(生員), 洪學範	경오	1870	一有司	黃致老, 全鳳九
		齋任	呂思汲, 黃鉉益, 金載崙, 黃淳老, 李士雲			齋任	權杓永, 黃命善, 黃杰老, 趙秉均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경진	1820	院長	李正運, 黃錫老	신미	1871	院長	趙秉老(牧使)
		齋任	黃淳老, 老立敬, 呂思汲, 黃泰鉉, 黃昇鉉, 金載獻			一有司	黃在五
신사	1821	院長	鄭秉老, 趙扑然	임신	1872	齋任	趙秉均, 黃任周
		齋任	黃履鉉, 宋啓高, 南植正, 黃奎鉉, 孫鎮度, 盧立敬			一有司	鄭民采
임오	1822	院長	黃國老, 黃鳳欽	계유	1873	齋任	金炳欽, 黃任周, 金一欽
		齋任	黃麟老, 柳榮漢, 黃命鉉, 趙秉坤			院長	柳重祚(未出座)
계미	1823	院長	黃躋熙	갑술	1874	一有司	鄭蓮愚
		齋任	黃昇鉉, 金宗儒, 姜秀永			齋任	趙在東, 姜芷馨, 黃健周, 姜芷馨
갑신	1824	院長	黃赫熙	을해	1875	院長	洪祐慶(牧使)
		齋任	黃昇鉉, 姜秀永			一有司	黃宗雨
을유	1825	院長	盧象敬, 金經運	병술	1826	齋任	趙在夏, 黃健周
		齋任	黃昇鉉, 姜秀永, 黃彭老, 孫石一, 李天會			都執禮	權滄
병술	1826	院長	趙侃洗, 黃贊熙(正言)	정축	1877	句管有司	朴奎珣
		齋任	黃彭老, 李廷實, 李爽, 黃汝熙, 李圭夏			齋任	權滄, 姜連永, 李秉宇, 金洪九, 黃夏鉉
정해	1827	院長	盧光瑞, 李錫培, 黃趾熙	무인	1878	院長	金奭根(牧使)
		齋任	李圭夏, 盧性浩, 孫石練, 黃台鉉, 黃勉善, 黃典熙, 李翼培			一有司	姜佑永, 黃在弼
무자	1828	院長	姜長欽(參奉), 鄭象履	정축	1877	齋任	李時龍, 黃義學, 黃勉周, 黃在燾
		齋任	黃周鉉, 金晉礪, 孫鎮度, 黃承熙, 盧性純, 黃源善			一有司	金鳳九, 宋奎灝(執義 未出座), 趙胄夏
기축	1829	院長	黃遇熙, 李升培(生員, 參奉), 柳尋春(長吏)	무인	1878	齋任	呂錫九, 黃明善, 黃炳善
		齋任	黃達熙, 黃承熙, 盧性純, 孫石鋪(未出座), 黃德老, 黃大鉉, 姜勉永, 宋啓燮, 姜始永			院長	朴憲陽(牧使)
경인	1830	院長	黃獻老, 鄭象晉(參奉), 姜世閔(參奉)			一有司	黃摯鉉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齋任	李叙, 黃箕鉉, 姜斗欽, 黃龜善(未出座), 黃兌老, 金麟河, 李圭夏, 黃得雨, 宋鼎璉(未出座), 趙榮輔, 孫石鏞			齋任	黃炳善, 呂錫九, 盧載厚
임진	1832	院長	柳晉春, 李士延	기묘	1879	院長	李墻(牧使)
		齋任	黃龜善, 盧圭敬, 黃衡老, 金秀敬			一有司	鄭民英, 姜來永
계사	1833	院長	黃轅老	경진	1880	齋任	黃炳善, 盧載厚, 黃贊周, 宋鎮旒
		齋任	黃衡老, 宋啓浩, 宋箕璉			院長	姜來永
갑오	1834	院長	柳朴春, 黃獻老	임오	1882	齋任	黃贊周, 宋鎮旒, 李時卓
		齋任	李起夏, 黃教雨, 黃大鉉, 金魯岳, 鄭民覺, 孫石鏞, 姜選永, 李圭夏			院長	宋泰璉(未出座), 黃蘭善, 宋奎灝
을미	1835	院長	姜大欽	계미	1883	齋任	李時卓, 黃景善, 孫永承
		齋任	孫石鏞, 李圭夏			院長	李晚綴(牧使)
병신	1836	院長	姜大欽, 黃命鉉, 李延實	갑신	1884	齋任	鄭守默, 黃在鳳, 黃在三
		齋任	孫石鏞, 李圭夏, 黃周鉉, 宋仁璉, 全大一			院長	姜福
정유	1837	院長	姜哲欽(生員), 黃浩善	을유	1885	齋任	黃在三, 鄭守默, 趙鵬九, 黃在高
		齋任	趙益勳, 黃廷老, 宋奎淵(未出座), 盧性愚, 孫石立, 黃義老, 黃弼老, 姜晉永, 姜命欽			院長	閔種烈(牧使)
무술	1838	院長	金揚壽(生員)	정해	1887	齋任	姜璿熙, 黃在高
		齋任	黃一老, 李會秀, 黃教雨			一有司	閔種烈(牧使)
기해	1839	院長	宋奎淵(正言), 黃益鉉			二有司	李炳尙
		齋任	黃邁善, 全鳳九, 黃邁善, 全鳳九, 盧性大, 李圭夏, 金秀敬, 黃岡老			齋任	姜璿熙, 黃在高
경자	1840	院長	姜倅欽, 金揚壽(生員)	무자	1888	一有司	閔種烈(牧使)
		齋任	姜性欽, 黃弼老, 黃得雨, 李鉉佐(未出座), 李圭夏			二有司	黃養善
신축	1841	院長	李起魯	기축	1889	齋任	李時健, 黃聖周
		齋任	黃佑鉉, 黃教雨, 李會秀			一有司	閔種烈(牧使)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간지	재임연도	직임	성명
임인	1842	院長	黃昇鉉			二有司	黃鏞
		齋任	李會秀, 黃摯鉉			掌議	李奎善, 姜詩馨, 孫學秀, 黃源博
계묘	1843	院長	黃淳老, 洪大鉉	경인	1890	一有司	閔種烈(牧使), 尹泰元(牧使)
		齋任	孫永胄, 金履秀, 金永河, 孫石宗, 黃岱老, 李圭夏			二有司	黃鏞, 姜夏永, 姜夏永
갑진	1844	院長	金載崙, 鄭象璜			掌議	孫學秀, 黃源博
		齋任	黃岱老, 李圭夏, 黃岱老, 孫石宗, 黃昞老			齋任	黃義覺, 李晚教
을사	1845	院長	金英壽, 姜哲欽(生員)	신묘	1891	一有司	尹泰元(牧使)
		齋任	姜運欽, 黃昞老, 趙豐勳, 全鳳九			二有司	宋基殷
병오	1846	院長	黃龍善			齋任	黃義覺, 李晚教
		齋任	趙豐勳, 黃在五			임진	1892
정미	1847	院長	姜秉欽(未出座), 鄭民穆, 洪肯周			二有司	鄭克愚, 黃鏞
		齋任	金瑞河, 金重燮, 姜惠永, 黃在直			齋任	黃義覺, 李晚教, 金秉善, 黃義運
무신	1848	院長	李圭錫, 黃源善, 呂思汲, 黃奎鉉(未出座)	계사	1893	一有司	尹泰元(牧使), 李命九
		齋任	金重燮, 黃馨周, 鄭民啓, 黃馨周, 黃摯鉉, 宋奎文,			二有司	黃鏞
기유	1849	院長	姜胄永, 蔡嶷東			齋任	黃義運, 金秉善
		齋任	全叙九, 黃在教, 黃源一, 李起榮, 黃世鉉			갑오	1894
경술	1850	院長	黃台鉉, 金箕絢(牧使), 鄭民秉, 姜周永, 李鉉象			齋任	黃在翼, 柳度燮, 鄭鬪默, 黃義集, 蔡鳴說
		齋任	李起榮, 黃世鉉, 鄭述愚, 黃致老, 宋奎澤, 呂重祖, 黃圭老			을미	1895
신해	1851	院長	宋啓升, 趙述鈴			齋任	蔡鳴說, 黃義集, 金萬源, 黃芝善, 宋世浩
		齋任	呂重祖, 黃圭老, 黃宗雨, 黃在五, 孫汲, 金九協			병신	1896
계축	1853	院長	黃範熙, 盧立敬, 黃大鉉			齋任	宋世浩, 黃在益, 金應奎, 黃遠周
		齋任	趙榮復, 黃世老, 黃祺老, 宋奎駟, 黃在定			정유	1897

간지	재임 연도	직임	성명	간지	재임 연도	직임	성명
갑인	1854	院長	黃大鉉, 姜命欽	무술	1898	齋任	金應奎, 黃遠周, 趙鳴夏(未出座), 黃菊善, 姜允熙, 黃在稷, 鄭在鎬
		齋任	宋奎駟, 黃在直, 姜岱永, 黃爽鉉, 趙基碩			院長	鄭善愚, 李衡教, 趙駿九(府尹)
을묘	1855	院長	姜命欽, 黃奎鉉	기해	1899	勾管有司	黃義集
		齋任	黃爽鉉, 盧秉觀, 全永九			齋任	黃在稷, 鄭在鎬, 柳道燮, 黃義集
병진	1856	院長	黃岱老, 宋台林(正言), 鄭象樞(正言)	기해	1900	院長	姜正熙
				경자		齋任	柳道燮, 黃義集
						齋任	李漢傳(郡守), 黃命善
						齋任	柳道燮, 黃義集

우선 서원의 원임 구성 체제부터 살펴보았다. 18세기 체제였던 ‘원장-재임’ 체제가 19세기에는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원장-재임’ 체제는 1828년(순조 28)까지 이어지다가 1868년(고종5)부터 ‘원장-1유사-재임’ 체제로 바뀌었다. 이 체제는 1879년(고종 16)까지 약 11년간 유지되었고, 1880년~1886년에는 본래 구성이었던 ‘원장-재임’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1887년~1893년 동안은 ‘1유사-2유사-재임’ 체제로 바뀌었다가 1894년~1900년에는 다시 ‘원장-재임’ 체제로 원임을 구성하였다. 이 기간 사이에도 두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1889년에는 일시적으로 ‘1유사-2유사-掌議’, 1890년에는 ‘1유사-2유사-장의-재임’ 체제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임 구성 체제에 변화가 심했던 것은 대원군 집권 초기인 1865년(고종 2) 만동묘 철폐 후 1868년(고종 5)에는 미사액 원사에 대한 훼손을⁴²⁾ 강력하게 단행하면서 사액서원의 원장은 본음 수령이 맡도록 하는 조치 때문이

42) 대원군의 원사 훼손 관련 연구는 김세윤, 「대원군의 書院撤廢에 관한 一考察」,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이은상, 「대원군의 書院撤廢」(『新東亞』 36, 1934 ; 金台俊 「大院君의 書院撤廢令의 意義」, 『新興』 8, 1935 ; 이수환, 앞의 책, 2001, 344~363쪽 ; 윤희면, 앞의 책,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유림의 대응」, 2004 등을 참고하였다.

었다.⁴³⁾ 이때부터 옥동서원도 상주목사가 원장을 맡았고, 향중 인사는 ‘一有司’라는 직명을 추가하여 선출하였다.⁴⁴⁾ 1880년~1886년에는 본래의 ‘원장-재임’ 체제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3회를 제외하고는 상주목사가 원장직을 맡았다. 또 1887년~1893년의 ‘1유사-2유사-재임’ 체제일 때에는 1유사는 상주목사, 2유사는 향중 인사를 선출하여 운영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본래 체제인 ‘원장-재임’으로 운영되었다. 이때부터 지방관이 원장으로 추대되는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체로 향중 인사를 선출하여 운영하였다.⁴⁵⁾

이처럼 지방관이 원장으로 선출된 시기는 대원군 집권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원군 집권 이전 시기에 지방관이 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향촌 자치제를 강조했던 퇴계의 서원론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서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중앙관료 또는 지방관을 연결하기 위한 서원 측의 권청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⁴⁶⁾

반면 대원군 집권 이후 지방관에게 원장을 맡긴 것은 만동묘 철폐를 시작으로 원사 폐단의 명분을 내세워 미사액 원사 휘철로 서원을 개혁한 후, 본음 지방관이 사액서원의 원장을 맡도록 하여 서원을 장악하고자 했던 대원군의 의도였기 때문이었다.⁴⁷⁾

43) 『고종실록』 권5, 5년[1868] 9월 3일.

44) 도남서원의 경우는 1868년 상주목사 鄭基永[옥동서원장 겸임, 1890년 병산서원장이 한 차례 원장을 맡은 것 이외는 휘철되기 전까지 향내 인사가 원장을 맡았다. 이때 체제는 ‘원장-재임’에서 ‘원장-1유사-재임’ 체제로 변경했다가 이듬해부터 휘철되기까지는 ‘1유사-재임’ 체제로 운영되었다. 당시 1868년 원장에는 지방관 1인, 1유사와 재임은 향중 인사에서 1인과 7인을 선출하였고, 이후 ‘1유사-재임’ 체제에서 1유사가 원장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1유사는 전직 관료 또는 향중인사에서 선출하여 운영하였다(도남서원, 『임원록』, 丙午 5월~辛未 2월).

45) 1895년 옥동서원장에 정운우[입재 정종로의 증손의 자 정동기가 선출된 사례와 1900년 원장에 郡守 이한응[미출좌]이 선출된 사례를 제외하면 지방관이 원장으로 선출된 사례는 없었다(옥동서원, 『임원록』).

46) 이수환, 앞의 책, 115~117쪽.

47) 이수환, 앞의 책, 9장 참고.

옥동서원의 경우 지방관이 원장을 맡은 최초의 사례는 1850년(철종 1)에 선출된 목사 김기현이다. 이때는 대원군 집권 이전 시기로 서원 측의 권청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1868년(고종 5)부터 지방관의 원장 부임이 본격화되었다. 원장직을 맡은 지방관 명단을 나열하면 목사 정기영(1868)·남정학(1869)·민치서(1870)·조병로(1871)·홍우경(1874)·김석근(1876)·박현양(1878)·이희(1879)·이만수(1883)·민종열(1885·1887·1888·1889·1890)·윤태원(1890·1891·1892·1893)으로 11명이 확인되며, 이 중 민종열⁴⁸⁾은 5회, 윤태원은 4회에 걸쳐 옥동서원 원장직을 맡았다. 1893년 갑오개혁까지 약 20년간 상주에 새로운 지방관이 파견될 때마다 옥동서원의 원장직을 맡았다.

지방관의 직임명은 원장 또는 1유사로 사용했다. 향중 인사 원임의 직명은 지방관 직명이 원장일 경우는 1유사로, 지방관 직명이 1유사일 경우는 2유사로 하였다. 이는 지방관의 원장 직임은 대체로 향사를 주관하는 명예직에 가까우며,⁴⁹⁾ 실질적인 서원 운영은 향중 인사 직임이던 1유사 혹은 2유사와 책임이 도맡아 했다. 1868년 이후 서원 운영 방식은 옥동서원 이외에 영남 남인계를 대표하는 병산·도동·옥산서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⁰⁾

한편 대원군은 1871년 3월 ‘비록 사액서원일지라도 一人一院의 疊設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라’는⁵¹⁾ 전교와 존치할 서원의 선정기준을 정했다. 선정기

48) 민종열의 자는 景武, 호는 芝潭이다. 1865년(고종 2) 진사시 급제 후 양산군수, 밀양부사를 거쳐 상주목사로 부임했다. 1889년에 민종열은 옥동서원 院宇 重修 차 방문하여, 사당에 참배하였고, 『옥동서원중수기』를 직접 지었다(『상산지』, 인물조, 100쪽).

49) 반면 서인노론계 서원의 경우 중앙 관료 다수가 자파서원 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며, 단순한 명예직을 넘어 서원의 제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서원 측과 서원을 통한 자파세력의 확대를 꾀하려는 중앙 관료들의 상호이해 관계가 결부된 현상으로 한번 추대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존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이수환, 앞의 책, 127~130쪽).

50) 이수환, 앞의 책, 42장 ;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31~135쪽 ; 이병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8, 241~249쪽.

51) 『고종실록』 권8, 8년[1871] 3월 9일.

준은 ‘道學의 연원인 문묘에 중향된 先賢과 ‘忠節大義’에 부합한 인물인지 선별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서원은 철폐할 것을 전교하였다.⁵²⁾ 이에 옥동서원의 주향인 황희는 명신이라는 이유로 ‘忠節大義’에 부합한 인물로 인정받아 옥동서원은 철폐를 면하게 된다.⁵³⁾

다음은 19세기 옥동서원 원임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 시기는 1802~1900년이다. 98년간 전체 원임 인원수는 689명이었다. 이들은 98년 1,176개월 동안 202명의 원장이 재임하였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5.8개월 정도였다. 18세기 원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0.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9세기 재임기는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이는 대체로 춘추향사 때마다 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선출된 원장의 성씨별 분포를 검토했다. 지방관의 원장 수를 제외하면 178명이 향중 인사로 파악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19세기 옥동서원 원장 성관 분포

순번	성관	인원	순번	성관	인원	순번	성관	인원
1	長水黃	57	11	全州李	3	21	星山呂	1
2	晉州姜	32	12	義城金	3	22	善山金	1
3	晉陽鄭	19	13	光山金	2	23	永山金	1
4	礪山宋	12	14	商山金	2	24	沃川全	1
5	豐壤趙	6	15	順天金	2	25	韓山李	1
6	興陽李	6	16	慶州孫	2	26	仁川蔡	1

52) “文廟從享人以外書院 竝爲撤享 至若忠節、大義之炳人耳目, 亦不可無崇報之地 此爲十分稱停, 然後允合事體 禮判, 又稟定于大院君前, 而豐設撤享, 依前下教施行”(『고종실록』 권8, 8년[1871] 3월 18일).

53) 매천야록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명신 3인 중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황희가 꼽히고 있다. “조선왕조 때 명신 중 시호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세 사람이 있다. 익성공 하면 彪材 黃喜인 줄 알고, 文翼公하면 鄭光弼임을 알고, 충무공 하면 李舜臣인 줄 안다. 그리고 封贈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遼東伯 하면 金應河인 줄 알고 있다.”(황현, 『梅泉野錄』, 甲午以前). 대원군 때 존치한 서원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윤희면의 연구(앞의 책, 2004, 165쪽)를 참조.

7	光山廬	6	17	安東權	2	27	미상	1
8	延安李	5	18	南陽洪	2			
9	豊山柳	4	19	宜寧南	1			
10	豊山洪	4	20	慶州金	1	합계		178

178명의 원장 중 장수황씨가 가장 많아 57명으로 32%를 차지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장수황씨가 차지하던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19세기에도 여전히 서원 운영의 주도권은 장수황씨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의 성씨로는 진주강씨 32명, 진양정씨 19명, 여산송씨 12명, 풍양조·흥양이·광산노씨가 각각 6명, 연안이씨가 5명, 풍산류·풍산홍씨가 각각 4명, 전주이·의성김씨가 각각 3명, 광산김·상산김·순천김·경주손·안동권·남양홍씨가 각각 2명, 의령남·경주김·여산여·선산김·영산김·옥천전·한산이·인천채가 각각 1명의 순으로 확인된다.

18세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풍양조씨가 16명에서 6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 상주지역의 유력 성씨가 급격히 퇴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18세기 원장의 비중이 낮았던 성씨가 19세기에는 급격히 높아진 성씨도 있었다. 진주강씨인데 18세기에 10명이던 것이 19세기에는 32명으로 18%를 차지하였다. 장수황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다음은 진양정씨로 18세기에 3명, 19세기에는 19명으로 11%를 차지하며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여산송씨의 경우도 18세기에 1명, 19세기에는 12명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풍산류·광산김·상산김·순천김·경주김·선산김·한산이·인천채씨의 경우는 18세기에 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던 성씨인데 19세기에는 원장으로 선출되어 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풍산류씨 4명, 광산김·상산김·순천김씨가 각각 2명이 선출되었다. 반대로 초계정·재령강·청도김씨의 경우는 18세기에 1~2명 정도 선출되었으나 19세기에 퇴진하여 원장을 배출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사서 전식의 후손인 옥천전씨의 경우는 1명의 원장만 배출하면서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서원 운영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18세기에는 장수황씨와 풍양조씨가 원장직을 42%를 독점했다면 19세기에는 장수황·진주강씨가 89명으로 50%를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비중이 높은 진양정·여산송씨까지 합한다면 120명으로 67%를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19세기에도 여전히 옥동서원의 운영 주체는 장수황씨 문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장수황씨 다음으로 진주강씨가 가장 유력한 성씨로 활동하였고, 이어서 진양정씨와 여산송씨도 서원 운영에 유력한 성씨로 확인된다.

18세기와 마찬가지로 19세기에도 옥동서원 원장 임기가 완료되면 도남서원 원장에 선출되거나 반대로 도남서원 원장 임기가 종료되면 옥동서원 원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남서원과 옥동서원의 원장을 겸임한 경우도 있었다. 1802년에 도남서원과 옥동서원 원장을 겸임한 강세백 그 사례이다. 두 서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영남 남인계 서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⁵⁴⁾

그렇다면 서원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옥동서원 재임(有司)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이를 18·19세기로 구분하여 성별로 나누고, 그 추이를 확인해보자. 18·19세기 재임으로 선출된 성씨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18·19세기 옥동서원 齋任(有司) 추이

순번	성씨	18세기 (名)	19세기 (名)	순번	성관	18세기 (名)	19세기 (名)	순번	성관	18세기 (名)	19세기 (名)
1	黃氏	142	214	11	呂氏	6	11	21	成氏	1	·
2	李氏	53	56	12	洪氏	3	7	22	羅氏	·	1
3	金氏	28	44	13	康氏	4	·	23	南氏	·	1
4	趙氏	43	25	14	曹氏	2	·	24	慮氏	·	1
5	姜氏	9	37	15	琴氏	2	·	25	柳氏	·	8
6	宋氏	15	25	16	權氏	2	2	26	朴氏	·	2

54) 이수환, 앞의 책, 2001, 110~111쪽.

7	孫氏	10	19	17	韓氏	1	1	27	申氏	·	1
8	鄭氏	8	12	18	河氏	2	·	28	采氏	·	2
9	盧氏	8	12	19	徐氏	1	·	합계		350	489
10	全氏	9	8	20	尹氏	1	·				

재임(有司)의 임무는 斯文統檢과 유생공궐, 문서검열, 원곡분급, 세입·세출 등 서원의 주요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한다. 그 구성은 서원의 제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옥동서원의 경우는 현재 원규에도 언급된 것처럼 재임 2명과 별유사를 두고 있다. 재임은 내·외향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며, 별유사는 장수황씨 본손과 타성 각각 1명씩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옥동서원 원규와 현재까지 옥동서원의 재임으로 선출된 황씨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체로 장수황씨였다. 이를 참고하여 재임의 성씨를 분석하면 위 표와 같이 18·19세기 재임의 수는 총 839명이고, 18세기 재임 수는 350명, 19세기 재임 수는 489명이다. 이 중 18·19세기 황씨의 재임은 356명으로 42%를 차지하여 다른 성씨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10명 이상인 성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씨가 109명으로 13%, 김씨가 72명으로 9%, 조씨가 69명으로 8%, 강씨가 46명으로 5.5%, 송씨가 40명으로 5%, 손씨가 29명으로 3.5%, 정씨·노씨가 각각 20명으로 각각 2.4%, 전씨·여씨가 각각 17명으로 각각 2%, 홍씨가 10명으로 1.2%를 차지하였다. 18·19세기 재임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국의 서원들이 문중성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옥동서원도 장수황씨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18·19세기 약 186년 동안의 옥동서원의 원임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와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옥동서원의 『임원록』과 『분향록』,

『집사분정』 등 서원의 고문서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1,133명의 원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와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옥동서원의 원임은 원장과 재임으로 구분하여 선출하였다. 원장직은 서원을 대표하여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자리였다. 서원을 상징하는 존재이기에 학덕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고자 노력하였고, 선출된 이후부터는 원장의 권위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특히 원장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인 강학과 선현에 대한 제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서원의 건물, 재산 관리, 서원에 소속된 구성원의 관리까지 해야 한다.

조선후기 18세기 전·후반기와 19세기로 구분하여 원임 구성과 변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원임의 구성 체제와 원장의 재임 기간을 검토하였다. 원임 구성은 ‘원장-재임’ 체제로 운영하였다. 전체 원임의 수는 444명이고, 중임을 포함한 원장 인원수는 98명이었다. 85년간 98명의 원장이 재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평균 재임 기간은 10.4개월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중임한 경우를 감안하면 계산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별로 분류하여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18세기 옥동서원의 원장은 1년 동안 재직할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개월을 재임한 원장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18세기 성씨별 원장의 인원수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18세기 전반기는 원장 수는 총 30명이었다. 30명 중 장수황씨가 5명, 홍양이씨 4명, 풍양조·성산여·진주강·재령강·영산김·의성김씨 각 1명회, 나머지 신천강·안동권·청도김·광산노·경주손·여산송·전주이·남양홍·부림홍씨가 각 1명씩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시기 성씨 분포를 보면 한 문종의 성씨가 원장직을 독점하지 않고 대체로 상주 향내 인사들이 고루 선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향내 인사들이 고루 선출된 것은 옥동서원이 1714년에 지역 공론으로 승원되었기에 향론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심에는 우복 정경세 문인, 청대 권상일의 문인 그리고 남인계 공론의 거점 서원인 도남서원

원장이 옥동서원 원장에 선출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기가 되면 전반기에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장수황씨와 풍양조씨 원장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68명 중 장수황씨가 19명으로 28% 비중을 차지했고, 풍양조씨가 14명으로 21%, 진주강씨가 8명으로 12%, 홍양이씨가 5명으로 7.3%, 경주손·진양정씨가 각각 3명으로 4.4% 등으로 나타났다. 서원의 제향 인물인 사서 전식의 후손 2명이 원장으로 선출된 모습도 보였다. 큰 변화를 보인 장수황씨와 풍양조씨 두 성씨를 합하면 33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하며 독점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큰 변화가 생긴 계기는 18세기 후반 옥동서원의 추가배향을 기점으로 장수황씨의 원장 선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서원의 운영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원장 수가 급증한 시기의 수치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가 원장 선출에서 드러나고 있다. 풍양조씨의 경우는 추가배향 추진기에는 원장을 맡았고, 청액 활동 시기에는 소두를 맡아 두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그 결과 사액 된 그해 1789년 옥동서원 원장에 풍양조씨가 선출된 것이다. 풍양조씨가 거둔 이 두 공적으로 인해 18세기 후반기에 장수황씨 다음으로 옥동서원의 운영 주체 세력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9세기의 원임 구성 체제를 살펴보았다. 원임 구성은 본래의 '원장-재임' 체제가 1828년까지 이어지다가 1868년부터 '원장-1유사-재임'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체제는 1879년까지 약 11년간 유지되다가 1880~1886년에 잠시 '원장-재임'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887~1893년 동안은 '1유사-2유사-재임' 체제로 바뀌었다가 1894~1900년에 다시 '원장-재임'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 기간 사이에도 두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1889년에는 일시적으로 '1유사-2유사-掌議', 1890년에는 '1유사-2유사-장의-재임' 체제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원임 구성 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은 대원군 집권기에 대대적인 서원 개혁 정책에 의해 미사액 원사를 훼손하고 지방관이

사액서원의 원장을 말도록 하면서였다.

다음은 19세기 성씨별 원장의 인원수와 재임 기간 그리고 성씨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98년간 전체 원임 인원수는 689명이었다. 이들은 98년 1,176개월 동안 202명의 원장이 재임하였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5.8개월 정도였다. 18세기 원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0.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9세기 재임기는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이는 대체로 춘추향사 때마다 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씨별 분포는 지방관의 원장 수를 제외하면 178명이 향중 인사가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78명의 원장 중 장수황씨가 가장 많아 57명으로 32%를 차지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장수황씨가 차지하던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19세기에도 여전히 서원 운영의 주도권은 장수황씨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풍양조씨가 16명에서 6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18세기 원장의 비중이 낮았던 성씨가 19세기에는 급격히 높아진 성씨도 있었다. 진주강씨인데 18세기에 10명이던 것이 19세기에는 32명으로 18%를 차지하였다. 장수황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18세기에는 장수황씨와 풍양조씨가 원장직을 42%를 독점했다면 19세기에는 장수황·진주강씨가 89명으로 50%를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비중이 높은 진양정·여산송씨까지 합한다면 120명으로 67%를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19세기에도 여전히 옥동서원의 운영 주체는 장수황씨 문종인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다. 장수황씨 다음으로 진주강씨가 가장 유력한 성씨로 활동하였고, 진양정씨와 여산송씨도 서원 운영에 유력한 성씨로 확인된다. 제향자 사서 전식의 후손 옥천전씨의 원장은 18·19세기를 합해도 1~2명 정도임을 참고하면 서원 운영에 미미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옥동서원의 원임록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은 18세기 초반 향중 인사가 고루 선출되어 서원이 운영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장수황씨 주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 장수황씨가 높은 비율로 원장으로 선출되어 문중성이 더욱 강화되어 운영되었다.

한편으로 옥동서원은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잘 대응하면서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추진한 추가배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정조가 추진한 남인 우대정책 시기에는 청액 소청팀을 꾸려서 상경 8개월 만에 사액을 받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두 과업을 장수황씨 문중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원임 선출에서도 높은 비율로 선출되어 서원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商山誌』, 『尙州掄校誌』, 『嶺南雜約資料集成』, 『涑水書院志』, 『道南書院院任錄』, 『玉洞書院院任錄』, 『玉洞書院院錄』, 『玉洞書院本院日錄』, 『玉洞書院疏廳日記』

권상일 『청대일기』, 이상정 『대산집』, 이준 『창석집』, 정장 『만오선생문집』, 정경세 『우복집』, 정조 『홍재전서』, 정종로 『입재선생문집』, 홍여하 『목재집』, 황계희 『심기당집』, 황난선 『시려집』, 황뉴 『반간집』, 황반로 『백하집』, 황익재 『백화집』, 황현 『매천집』·『매천야록』, 황희 『방촌집』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해준, 『조선시대 촌란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우인수,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015.

김순한, 「상주 옥동서원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2019.
_____,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액 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2019.
김자운,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산수헌 소장 전적류의 내용과 성격」, 『장서각』 5, 2001.
_____,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_____,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우인수, 「동춘당 송준길의 영남인과의 접촉과 그 추이」, 『홍암서원지』, 興忠保存委員會, 2006.
_____, 「영남 남인 권상일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위상」, 『민족문화논총』 62,

- 2016.
- _____, 「우복 정경세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퇴계학과 유교문화』 49, 2014.
- _____, 「입제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2003.
- 이병훈, 「경상도 서원·사우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16~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 『영남학』 71, 2019.
- _____,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영남학』 73, 2020.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Abstract

Composition and Change of Wonim of Okdong Seowon in Sangju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Soon-han*

This article reviews the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Okdong Seowon(玉洞書院) in Sangju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based on existing old documents. The predecessor of Okdong Seowon was Baekokdong Yeongdang(白玉洞影堂), where the portrait of Bangchon Hwang, Hui(彤村 黃喜) (1401-1456) was enshrined in the 16th century. In 1714 (the 40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it was promoted to a seowon after enshrining Saseo Jeon Shik(沙西 全湜) (1563-1642), and in 1786, Chukong Hwang, Hyo-heon(蓄翁 黃孝獻)(1491-1532) and Bangan Hwang, Yu(槃澗 黃紉)(1578-1626) were enshrined. Later, in 1789 (the 13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it was granted the name Okdong('玉洞') by requesting the tablet given from King promoted by the local literati.

The subjects who organized and operated Seowon are wonim(院任) and wonsaeng(院生). In the case of the composition of members, Okdong Seowon was promoted to a seowon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since then, according to the operation model of Donam Seowon, a representative Seowon of the Sangju Namin line, it has been operated as a 'wonjang-jaeim' system.

The system continued until 1828 (the 28th year of King Sunjo's reign), began operating under the "wonjang-1 yusa-jaeim" system from 1868 (the 5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to 1879 (the 16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 Research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 starji@yu.ac.kr

and operated under the original operating system of ‘wonjang-jaeim’ for about six years from 1880 to 1886. For the next six years, from 1887-1893, it operated under the system of ‘1 yusa-2 yusa-jaeim’ system, in 1889, it briefly operated under the system of ‘1 yusa – 2 yusa – jangui’, the following year, it operated under the system of ‘1 yusa – 2 yusa- jangui – jaeim’: and then, until 1900, it operated under the original system of ‘wonjang-jaeim’. Since Baekokdong Yeongdang was promoted to Okdongs Seowon in the early 18th century, wonjangs and jaeims were generally elected from the local literati in order to take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seowon.

The clans included Hwang of Jangsu, Lee of Heungyang, Cho of Pungyang, Yeo of Seongsan, Gang of Jinju, Gang of Jaryeong, Kim of Yeongsan, Kim of Uiseong, Gang of Shincheon, Kwon of Andong, Kim of Cheongdo, Rho of Gwangju, Son of Gyeongju, Song of Yeosan, Lee of Jeonju, Hong of Namyang, and Hong of Burim. However, by the late 18th century, the proportion of the wonjangs and jaeims elected from the clan Hwang of Jangsu Hwang began to increase. By the 19th century, the proportion of the clan Hwang of Jangsu as wonims was intensifying, and a small number of clans led the operation of Okdong Seowon along with the clan Hwang of Jangsu, such as the clans of Kang of Jinju, Chung of Jinju, and Song of Yeosan.

Key word : Baekokdong Yeongdang(白玉洞影堂), Okdong Seowon(玉洞書院), Wonimrok (院任錄), Operating System, Wonjang

논문 투고일: 2023. 05. 29 심사 완료일: 2023. 06. 19 게재 확정일: 2023. 06. 20

조선시대 箕子 추송의 과정과 그 의미

이 남 옥*

- I. 머리말
- II. 기사 제사 설행 정례화와 유적 정비
- III. 기사 서원 건립과 화상의 봉안
- IV. 箕子祠의 崇仁殿 승격과 관제의 변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기사 제사 설행, 유적 정비, 서원 건립 및 사액, 세습직의 설치 등을 기사에 대한 추송 과정으로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 기자는 은주 교체기 현인이자 유학 정치 사상의 전범인 흥범의 저자이며, 중화 문명을 동방에 전수해준 소중화의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사는 전 왕조의 시조 및 성인으로 추송되었다.

그 결과 조정에서는 기자의 분묘를 정비하고 사당과 비석을 세웠으며,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또한 기자의 서원을 설치하고 화상을 봉안하였으며, 기사 사당을 숭인전으로 승격시켜 그 후손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비된 기자의 유적은 중국 사신의 답사처로 활용되었고, 제사 설행·서원 사액·숭인전 승격·세습직 설치 등은 국왕권 강화, 평안도 위무책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 기사에 대한 추송은 전대 시조 및 성인에 대한 추송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갔던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기사, 추송, 기자묘, 안현서원, 숭인전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koman82@koreastudy.or.kr

I. 머리말

殷周 교체기 현인이자 유학 정치 사상의 전범인 洪範의 저자로 알려진 箕子는 中華의 문명을 동방으로 전수해준 小中華의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자는 고려와 조선에서 前代 始祖 및 聖人으로 모셔졌고, 箕子祠·崇仁殿과 仁賢書院 등이 설치되고 매년 제사가 설행되었다. 또한 수많은 학자와 문인들은 기자의 무덤과 井田 등 유적을 답사하고 기자가 역사상 실존 인물임을 증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문명국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고려에서는 太祖 王建(877~943)의 창업이 기자가 번국을 이룬 것에 비견되었고,¹⁾ 변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대외적 명분을 위해 기자의 봉토라는 인식을 이용하여 전대 왕조의 시조로 공표하였다.²⁾ 또한 우리나라에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기자의 묘를 찾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³⁾ 고려 때 기자에 대한 제사는 吉禮 小祀 雜祀의 형태로 진행되었다.⁴⁾ 조선에서도 기자를 전대 왕조의 시조 혹은 유학적 교화의 상징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유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사를 정례화하였다.

기자에 대해서는 동래설 검토를 시작으로 기자 및 기자조선의 실재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이후 기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⁶⁾ 기자 전승 과정,⁷⁾

1) 『高麗史』 권2, 太祖十六年 春三月 辛巳 조.

2) 『고려사』 권7, 文宗九年 秋七月 丁巳朔 조.

3) 1102년(고려 숙종 7)에 기자묘를 찾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지만 꾸준히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25년(고려 충숙왕 12)에 평양부에 명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1352년(고려 공민왕 1), 1356년(고려 공민왕 5), 1371년(고려 공민왕 20)에도 평양부에 사당을 수리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려사』 권35, 忠肅王十二年 冬十月 戊子 조 ; 『고려사』 권38, 恭愍王元年 二月 丙子 조 ; 『고려사』 권63, 志17, 禮5 吉禮 小祀 雜祀 고려시대 기자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이강한의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한국문화』 50, 2010)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4) 『고려사』 권63, 志17, 禮5 吉禮 小祀 雜祀.

고려와 조선에서의 제사의 실행,⁸⁾ 유적 정비⁹⁾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은나라 주앙을 피해 동래하여 주나라 무왕에게 제후로 봉해졌다는 기자와 깊은 관련을 가진 지역 “조선”을 국호로 가지게 된 국가인 만큼 전대 왕조의 시조로 인식되었거나 유학적 교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간에 조선에 있어

- 5) 幣原坦, 「箕子は平壤に來りしや否やについて」, 『韓國研究會談話錄』 4, 1905 ; 今西龍, 「箕子朝鮮伝説考上」, 『支那學』 2-10, 1922 ; 沈喆俊, 「箕子東來與否와 箕侯에 대하여」, 『淑大史論』 2, 1965 ; 千寬宇, 「箕子攷」, 『東方學志』 15, 1974 ; 梁嘉彬, 「箕子朝鮮考」, 『史學彙刊』 10, 1980 ; 尹乃鉉, 「箕子新考」, 『韓國史研究』 41, 1983.
- 6) 朴光用,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6, 1980 ; 韓永愚,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 3, 1982 ; 金文植, 「18세기 후반 徐命膺의 箕子 認識」, 『韓國史學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7 ; 김문식, 「18세기 후반 順菴 安鼎福의 箕子 인식」, 『韓國實學研究』 2, 2000 ; 김문식, 「星湖 李瀼의 箕子 인식」,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2003 ; 유미나, 「조선시대 箕子에 대한 認識과 箕子 遺像」, 『강좌 미술사』 44, 2015 ; 조원진,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 송영대, 「高句麗와 唐의 箕子朝鮮 認識 檢討」, 『역사와 경계』 100, 2016 ; 정립비, 「한말 箕子조선 인식에 대한 재고찰－『大東歷史』에 나타난 기자조선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사람』 65, 2018 ; 윤석호, 「丁若鏞의 箕子 認識－古法 탐구와의 連動을 중심으로－」, 『韓國實學研究』 42, 2021.
- 7) 오현수,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2012 ; 오현수,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韓國史學報』 65, 2016 ; 김남중, 「箕子전승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 『韓國史學報』 65, 2016 ; 조원진,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109, 2023.
- 8) 이강한,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2010 ; 韓亨周, 「조선시대 ‘역대시조모’에 대한 의례적 고찰」, 『국학연구』 39, 2019.
- 9) 기자 유적의 정비와 인식에 대해서는 김경태의 「임진왜란 시기 朝鮮·만관계와 箕子인식의 양상」(『한국사학보』 65, 2016)와 신주엽의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大丘史學』 148, 2022)을 참고할 수 있다. 김경태는 위 논문에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기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평양에 위치한 유적이 재조명받았다고 하였으며, 신주엽은 위 논문에서 17~18세기 기자 유적 정비과정을 통해 공자보다 낮은 위상을 가진 기자에 대한 인식이 17세기를 기점으로 버금가는 반열에 놓고자 했다고 하였다.

서 기자에 대한 제사 실행의 정례화, 유적 정비, 서원 건립과 사액, 영정 봉안, 송인전과 세습직의 설치 등은 일종의 추송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갖는 각각의 역사적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기자 추송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기자 제사 실행 정례화와 유적 정비

기자에 대한 제사는 高句麗 때 淫祀의 하나로 시작되었다.¹⁰⁾ 이후 고려 때 기자묘를 찾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기자에 대한 제사는 조선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정례화되고 좀 더 존중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에 바로 기자에 대한 제사 논의가 있었는데, 1392년(태조 1)에 禮曹典書 趙璞(1356~1408)은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始受命之主)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始興教化之君)이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도록 하소서.”라고 올린 글이 그 시작이다.¹¹⁾ 이어 1397년(태조 7)에 정종은 즉위 교서를 반포하며 “기자는 조선에 봉토를 받아 실제로 교화의 기초를 닦았으므로 (중략) 마땅히 祭田을 두어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²⁾ 조선에 교화를 일으킨 임금으로서 기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1407년(태종 7)에 許穉(1369~1439)은 賀正使의 從事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여러 제도를 탐문하였고, 산동 지방의 闕里祠도 다녀왔다. 당시 명나라의 京師에서 吏部尙書 蹇義가 “조선에 기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또 四時의 제사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허조는 “後嗣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시의

10) 『舊唐書』 권199, 東夷列傳 高麗條,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11) 『太祖實錄』 권1, 1392년(태조 1) 8월 11일 경신 2번째 기사.

12) 『태조실록』 권15, 1398년(태조 7) 9월 12일 갑신 5번째 기사.

제사는) 본국에서 소재지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411년(태종 11)에 예조 참의 허조가 기자에게 제사 지내기를 청하였고, 태종은 “기자만 못한 사람에게도 모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오직 성인인 기자에게 제사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이제부터는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¹³⁾

이듬해인 1412년(태종 12) 6월에 허조는 다시 上書하여 “본국에 기자가 있는 것은 중국에 요임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정에서 요임금을 제사하는 예에 의하여 기자 사당에 제사하소서.”라고 청하였다. 태종은 이 문제를 예조에서 풀도록 하였고, 예조에서는 “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祀典에 싣고, 春秋에 제사를 드리어 崇德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또 단군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한 사당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¹⁴⁾ 같은 해 7월에 예조에서 계청하여 “춘추로 사신을 보내 단군과 기자의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¹⁵⁾

1413년(태종 13) 11월에 예조에서 祀典의 여러 조목에 대해 상서하면서 당나라 『禮樂志』에 옛 先帝王들을 모두 中祀에 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先農·先蠶·文宣王을 중사에 두었으니, 단군·기자 등을 중사로 하자고 하였다. 또한 校書館 祝版式에서 단군과 기자에게는 ‘國王’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치에 합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조선 국왕’이라고 칭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1414년(태종 14) 9월에는 예조에서 단군과 기자에게 제사하는 儀節을 상정하여 아뢰었다.¹⁷⁾

기자에 대한 제사는 세종 대에 五禮 吉禮 中祀로 지정되어 仲春과 仲秋에 祭享하고, 牲牢는 양과 돼지 각 한 마리를 쓰는 것으로 정해졌다.¹⁸⁾ 기자를

13) 『太宗實錄』 권21, 1411년(태종 11) 4월 27일 정사 1번째 기사.

14) 『태종실록』 권23, 1412년(태종 12) 6월 6일 기미 2번째 기사.

15) 『태종실록』 권24, 1412년(태종 12) 7월 17일 경자 9번째 기사.

16) 『태종실록』 권24, 1413년(태종 13) 11월 4일 경진 5번째 기사.

17) 『태종실록』 권28, 1414년(태종 14) 9월 8일 무인 4번째 기사.

18) 『世宗實錄』 권128, 五禮 吉禮 序例, 辨祀/時日/神位/祝版/牲牢.

제향하는 의례는 단군을 제향하는 의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⁹⁾

한편, 1428년(세종 10) 4월에 변계량이箕子廟碑의 碑銘을 지어 올렸고,²⁰⁾ 1430년(세종 12)에 비석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篆額의 글자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다. 먼저 詳定所에서 ‘箕子廟碑’로 아뢰자, 좌의정 황희·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 등은 찬성했지만, 총제 鄭瑄(?~1434)는 ‘朝鮮國箕子廟之碑’가 맞다는 의견을 냈다. 논의 끝에 전액 글자는 ‘기자묘비’로 결정되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²¹⁾

또한 箕子廟에 쓰이는 ‘朝鮮侯箕子’라는 위호와 관련하여 당시 평안도 관찰사는 기자의 ‘箕’는 나라 이름이고 ‘子’는 작위인데 그 앞에 ‘조선후’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맨 앞에는 ‘殷太師’라 쓰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올린 尊號와 封爵을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당시 廟殿 안에 位板을 봉안하고 神座 앞에 香卓만 놓았을 뿐 다른 儀衛가 없는데, 휘장을 쳐서 신좌를 가리게 하고 좌우에 扇蓋를 설치하여 廟貌를 엄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²²⁾ ‘朝鮮侯箕子之位’라 쓰여진 기자전의 신위판 글자에 대해서 1430년(세종 12)에 예조에서 祀典 의식에 따라 ‘之位’ 두 글자는 삭제하여 ‘後朝鮮始祖箕子’로 수정하도록 청하였다.²³⁾ 결국 1437년(세종 19)에 예조는 기자전 위판을 ‘朝鮮始祖箕子’로 수정하였다.²⁴⁾

1456년(세조 2) 7월에는 단군과 기자의 신주를 고치며, 단군의 신주를 “朝鮮檀君神主”에서 “朝鮮始祖檀君之位”로, 기자의 신주를 “後朝鮮始祖箕子”에

19) 『세종실록』 오례 길례 중 단군 및 기자 제향 의례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실록』 권131, 五禮 吉禮義式 享朝鮮檀君儀 時日/齋戒/陳設/行禮. 한형주의 「조선시대 崇德殿의 제례의식」(『한국학연구』 34, 2014) 178~179쪽에 수록된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세종실록』 권40, 1428년(세종 10) 4월 29일 신사 3번째 기사.

21) 『세종실록』 권48, 1430년(세종 12) 4월 16일 병술 2번째 기사.

22) 『세종실록』 권41, 1428년(세종 10) 8월 14일 계사 3번째 기사.

23) 『세종실록』 권49, 1430년(세종 12) 8월 6일 갑술 4번째 기사.

24) 『세종실록』 권76, 1437년(세종 19) 3월 13일 계묘 2번째 기사.

서 “後朝應始始祖箕子之位”로 각각 수정하였다.²⁵⁾

세조는 1460년(세조 6) 10월 17일에 평양에 있는 太祖(1335~1408)의 眞殿인 永崇殿에 親祭를 지냈고, 이어서 단군·高句麗始祖·기자의 殿에 나아가 친제를 지냈다.²⁶⁾ 이후 선조·광해군·인조·숙종·영조·순조·고종·순종 대 치제를 지내기는 했지만,²⁷⁾ 국왕이 평양에 있는 기자의 묘와 사당에 친제를 지낸 것은 이때가 유일한 기록이다.

한편, 조선 초에는 기자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墳墓 보전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平壤府尹 尹穆(?~1410)은 1408년(태종 8)에 기자 분묘를 새로 단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예악 문물이 중국에 비견되는 것은 기자의 유풍이 있어서 九疇가 밝혀지고 八條가 행해졌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아 만세토록 우러러 사모하는데, 기자의 분묘가 풀숲에 있어 황폐한데도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조정 사신으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반드시 물어서 예를 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봉분을 청소하고 흙을 더 덮어 북돋아 주며, 石羊·石獸와 비석을 세우고 분묘를 지킬 가호를 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²⁸⁾ 기자 분묘 정비는 대체로 이 의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²⁹⁾

25) 『世祖實錄』 권4, 1456년(세조 2) 7월 1일 무진 4번째 기사.

26) 『세조실록』 권6, 1460년(세조 6) 10월 17일 기미 1번째 기사.

27) 『宣祖實錄』 권34, 1593년(선조 26) 1월 28일 계미 2번째 기사; 『光海君日記』 [중초본] 권60, 1612년(광해군 4) 윤11월 6일 을축 1번째 기사; 『仁祖實錄』 권3, 1623년(인조 1) 9월 21일 무신 4번째 기사; 『인조실록』 권3, 1623년(인조 1) 윤10월 14일 경자 1번째 기사; 『肅宗實錄』 권8, 1679년(숙종 5) 11월 28일 기미 2번째 기사; 『英祖實錄』 권29, 1731년(영조 7) 6월 16일 정미 1번째 기사; 『영조실록』 권49, 1739년(영조 15) 5월 23일 무진 3번째 기사; 『純祖實錄』 권27, 1825년(순조 25) 9월 11일 을미 1번째 기사; 『高宗實錄』 권22, 1885년(고종 22) 10월 14일 기묘 1번째 기사; 『純宗實錄』 권3, 1909년(순종 2) 1월 31일 양력 4번째 기사.

28) 『태종실록』 권15, 1408년(태종 8) 5월 9일 정사 1번째 기사.

29)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부분에 따르면 기자의 분묘는 평양 부성의 북쪽 兔山 위에 있었는데, 亭子閣·石人·石羊을 모두 남쪽으로 향해 있

다만, 1419년(세종 1) 2월에는 權弘(1360~1446)이 상소하여 기자의 분묘에 비석을 세울 것을 청했는데, 이에 대해 세종은 평양 사람들이 전해온 기자의 분묘는 세대가 멀어 믿기 어려우므로, 사당에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다.³⁰⁾ 사당은 평양성 안 義理坊에 있었다.³¹⁾ 箕子廟에는 殿直 2명을 두고, 祭田을 마련하여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사를 지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大內에서 향을 내려 小牢로 제사를 지냈다.³²⁾

한편, 1456년(세조 2) 4월에 世祖(1417~1468)는 평안도 관찰사에게 평양의 단군과 기자 및 고구려 시조의 사우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단청이 더러워졌으니 수리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명나라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곳을 배알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이에 앞서 1450년(세종 32)에도 명나라 사신 倪謙(1415~1479)이 조선에 올 때 평양을 지나왔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사당이나 분묘에 가서 배알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는데, 조정에서는 평안감사로 하여금 箕子殿과 분묘를 수리하고 고치게 했다.³⁴⁾

1488년(성종 19)에 명나라에서는 弘治帝(1470~1505)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조선에 頒詔使를 보냈다. 이때 正使는 左春防 右庶子 兼翰林侍講 董越(1430~1502)이었고, 副使는 工科 右給事中 王敏(1453~1515)이었다.³⁵⁾ 정사 동월은 평양에 도착하자 배알하기 위해 기자의 분묘와 사당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분묘는 성 밖 멀리 있어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사당은 성안에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동월은 바로 箕子廟로 가서 四拜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기자

있다고 한다. 즉 사당에 세워진 비석을 제외하고는 기자의 분묘는 윤목의 의견대로 정비되었던 것이다.

30) 『세종실록』 권3, 1419년(세종 1) 2월 25일 경자 6번째 기사.

31)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32) 『세종실록』 권41, 1428년(세종 10) 8월 14일 계사 3번째 기사.

33) 『세조실록』 권3, 1456년(세조 2) 4월 28일 정묘 5번째 기사.

34) 『세종실록』 권127, 1450년(세종 32) 윤1월 13일 무오 1번째 기사.

35) 『成宗實錄』 권213, 1488년(성종 19) 2월 28일 임술 4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214, 1488년(성종 19) 3월 3일 정묘 2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214, 1488년(성종 19) 3월 9일 계유 2번째 기사.

묘의 문밖으로 나와 檀君廟를 보고는 다시 무슨 사당인지 물었고, 단군묘라는 대답을 듣고는 再拜禮를 행하였다.

이때 동월은 단군 이후 후대 왕조에 대해 물었는데, 이에 대해 “단군의 뒤는 바로 기자인데, 전하여 箕準에 이르러 한나라 때를 당하여 연나라 사람 衛滿이 기준을 쫓아내고 대신 썼으며, 기준은 도망가서 馬韓 땅에 들어가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도읍하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단군·기자·위만을 三朝鮮이라고 이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에서는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이라는 계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기자묘에 들르는 일이 계속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1488년(성종 24) 12월에 俞好仁(1445~1494)은 지난해 자신이 본 기자묘는 담장이 낮고 사우가 기울어져 누추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리 필요성을 이야기했다.³⁶⁾ 이에 성종은 평안감사 李則으로 하여금 기자묘의 담장과 丁字閣 등의 높낮이·길이·너비를 자세하게 자로 재어 그림을 그려서 올려 보내도록 하고, 담장은 벽돌을 구워 改築하도록 하였으며, 담 안에 벽돌을 쌓는 것과 丁字閣을 整齊하고 改構하려면 몇 명의 인부로 며칠 동안에 役事를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물건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하지만 당시 평안도에 군사를 사역시킬 곳이 많은데다가 흉년이 들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기자묘를 수리하는 것은 뒤로 미루게 되었다.³⁷⁾ 이후로도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평양을 지날 때면 기자묘에 들러 참배하는 일은 계속되었다.³⁸⁾

한편,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명나라 제독 李如松(1549~1598)은 평양성을

36) 『성종실록』 권285, 1493년(성종 24) 12월 22일 임오 4번째 기사.

37) 『성종실록』 권285, 1493년(성종 24) 12월 22일 임오 9번째 기사 ; 『성종실록』 권286, 1494년(성종 25) 1월 21일 신해 3번째 기사 ; 『성종실록』 권286, 1494년(성종 25) 1월 22일 임자 3번째 기사.

38) 『中宗實錄』 권84, 1537년(중종 32) 3월 4일 계미 2번째 기사 ; 『중종실록』 권 90, 1539년(중종 34) 4월 5일 임인 2번째 기사 ; 『중종실록』 권90, 1539년(중종 34) 4월 7일 갑진 4번째 기사.

수복하고 1593년 1월 10일에 箕子廟에서 제사를 지냈다.³⁹⁾ 당시 평양은 전쟁의 참화로 인해 남아나는 것이 없었고, 箕子墓 역시 왜적의 도굴이 시도되었으나 이어송이 제사 지낸다는 소식에 서둘러 보수하여 다행히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⁴⁰⁾ 宣祖 역시 箕子墓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⁴¹⁾ 이후 1593년 전투 중에서 손상된 墓碣은 1594년 수리하였고,⁴²⁾ 墓는 1603년(선조 36)에 수리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훼손된 전대 임금의 陵墓를 조사하여 수리하면서 箕子墓도 함께 진행했던 것이다.⁴³⁾

이후 箕子墓는 영조 대에 다시 한번 개수하게 된다. 기사묘에 있던 각종 石物과 시설이 남아 벗겨져 떨어져 나간 것을 오래도록 수리하지 못했는데, 1731년(영조 7) 6월에 평안감사 金取魯(1682~1740)가 장계를 올려 개수하기를 청했고, 영조가 허락하여 시행되었다. 아울러 香과 祝文도 내려주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영조는 기사에 대한 공경을 표하기 위해 여러 차례 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墓道를 개수한 이때 다시 근시를 보내 승인전에 제사를 지내고 묘를 개수하는 사유를 고하도록 하였다.⁴⁴⁾

영조는 1739년(영조 15) 5월에도 近臣을 보내 승인전에 치제하게 하고 기자의 능묘를 수리하도록 명하였다.⁴⁵⁾ 정조 대도 전대 임금들의 왕릉과 함께

39) 『선조실록』 권34, 1593년(선조 26) 1월 11일 병인 13번째 기사 ; 『선조실록』 권34, 1593년(선조 26) 1월 14일 기사 5번째 기사.

40) 『선조실록』 권34, 1593년(선조 26) 1월 24일 기묘 7번째 기사.

41) 『선조실록』 권34, 1593년(선조 26) 1월 28일 계미 2번째 기사.

42) 『箕子廟改碣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RD04054> “箕子墓舊有碣, 癸巳兵亂中, 上頭一字見缺, 易石新之, 將其舊附立于後, 蓋圖新存舊之意也, 萬曆二十二年三月日.” 번역은 다음과 같음. “箕子廟에는 옛날에 墓碣이 있었는데, 癸巳年(1593) 병란 중에 윗부분 한 글자가 깨져버렸다. 돌을 바꾸어 새로 만들었는데, 옛것을 그 뒤에서 세우고자 하니, 이는 새것을 도모하되 옛것을 보존하려는 뜻에서 그러한 것이다. 만력 22년(1594) 3월 일.”

43) 『선조실록』 권166, 1603년(선조 36) 9월 9일 임술 1번째 기사.

44) 『承政院日記』 725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16일 정미 21/21 기사 ; 『승정원일기』 725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23일 갑인 8/23 기사.

45) 『영조실록』 권49권, 1739년(영조 15) 5월 23일 무진 3번째 기사.

기자묘를 개수하였으며,⁴⁶⁾ 고종 때에는 기자릉을 수리하고 참여한 관원들을 시상하기도 하였다.⁴⁷⁾

한편, 1888년(고종 25)에 箕子墓는 箕子陵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⁴⁸⁾ 기자릉에 관원이 배치되었다. 종9품 참봉 1인은 평안도 내 생원과 진사 중에서 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 택해서 30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종8품 봉사로 승진시키고 다시 15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종7품 직장으로 승진시키고 다시 15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종6품 영으로 승진시키고 다시 30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경관직으로 옮겨 주는 것을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였다.⁴⁹⁾ 이는 기자릉을 관리하면서 평안도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자의 사당인 箕子祠가 崇仁殿으로 승격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수정 보완되었는데, 기자릉의 관제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Ⅲ. 기자 서원 건립과 화상의 불안

조선후기 평안도 선비들은 기자를 모시는 서원 건립을 청원하였다. 이때 평안 감사와 조정에서도 지원하여 평양부 서남쪽 蒼光山 근처에 기자를 모신 서원이 건립되었다. 먼저 1564년(명종 19)에 진사 楊德禧(1553~1635) 등은 평안감사 鄭宗榮(1513~1589)에게 청하여 精舍를 세우고 學古堂이라 이름하였다. 이후 1576년(선조 9)에 감사 金繼輝(1526~1582)가 洪範書院이라 이름하고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일을 마치기 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서원의 건물이 모두 불타고 말았다. 전쟁 중이긴 하지만 평양성 탈환 후인

46) 『정조실록』 권1, 정조 대왕 행장.

47) 『고종실록』 권26, 1889년(고종 26) 11월 28일 경오 7번째 기사 ; 『고종실록』 권48, 1907년(고종 44) 4월 20일 양력 2번째 기사.

48) 『고종실록』 권25, 1888년(고종 25) 11월 25일 임신 1번째 기사.

49) 『고종실록』 권25, 1888년(고종 25) 12월 22일 기해 2번째 기사.

1594년(선조 27)에 감사 李元翼(1547~1634)은 서원을 중건하고 書劔齋라 이름하였다.⁵⁰⁾

1600년(선조 33)에 평안감사 徐滄(1558~1631)은 ‘기자가 무왕에게 洪範에 대해 아뢴 모습을 趙孟頫(1254~1322)가 그린 그림’을 중국에서 얻어 서원에 보관하였다. 1604년(선조 37)에 감사 金信元(1553~1615)은 叙倫堂과 東齋·西齋를 건립하였고, 1608년(선조 41년) 가을에 참봉 金乃聲과 생원 楊德綠(1553~1635) 등이 사액해 달라고 청하는 상소를 올려 ‘仁賢’이란 이름을 받았다. 1613년(광해군 5) 봄에 院長 金台佐와 有司 曹三省, 양덕록 등이 감사 鄭陽湖(1553~1616)에게 仁賢殿을 중건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⁵¹⁾

1623년(인조 1)에 양덕록 등은 기자의 畫像을 봉안해달라고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1626년(인조 4) 여름에 畫師 李臣欽을 보내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洪範圖와 遺像을 모사하도록 하였으나, 미처 봉안하기도 전에 정묘호란을 만나 진본은 잃어버리고 草本만 남게 되었다. 1632년(인조 10)에 감사 閔聖徽(1582~1647)가 다시 모사하게 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香祝을 내려준 인현전에 봉안하였고, 서륜당은 홍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⁵²⁾

한편, 숙종 대 평안감사를 지낸 柳尙運(1636~1707)은 기자의 화상을 평양 한 곳에만 보관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계를 올려 기자 화상을 모사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모사된 기자 화상 3점은 각각 평안도 成川, 龍岡, 谷山에 봉안되었다.⁵³⁾ 그리고 이 세 곳에서 각기 사액을 청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50) 李廷龜, 『月沙集』 권45, 「箕子廟碑銘【并序應製】」; 『인조실록』 권28(인조 11), 10월 9일 무진 1번째 기사.

51) 徐命膺, 『箕子外紀』 下篇 第7, 廟享 平壤仁賢書院

52) 서명응, 『기자의기』 하편 제7, 묘향 평양인현서원.

53) 『書院叢錄』 8책, 庚申五月二十日. “一. 幼學韓世台等上言據, 曹啓目粘連云云. 觀此上言, 則殷太師揭處之所, 只是平壤一處, 則實非永世壽傳之道乙仍于. 故相臣柳尙運任箕伯時, 狀請模出三件, 其二則各奉於成川·龍岡, 權奉於中宗派後裔韓德欽家矣. …”

먼저 성천에 있는 箕子書院의 사액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평안도 江東의 유생 韓浚亨 등은 成川에 있는 기자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 처음에는 ‘기자는 본국의 군주였으므로, 서원을 건립하여 사액하는 것은 일의 체모 상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의견을 내어 막았는데, 한 준형 등이 다시 상소하여 평양의 인현서원과 다른 도에 있는 孔子書院의 예를 들어 사액을 거듭 청하였다.⁵⁴⁾

1705년(숙종 31) 11월에 예조판서 閔鎭厚(1659~1720)는 기자 화상을 성천에 봉안하는 것이 일의 체모 상 온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미 화상을 봉안하고 조정에 아뢰었으므로 도리상 돌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성천의 儒生이 기자서원을 새로 세워 그 화상을 봉안하고 상소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임금으로 東國에 臨御하였는데 서원을 세우고 사액하는 것은 일의 체모상 미안하므로 윤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봉안하였으니, 돌보아 돕는 방도가 아주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가에서 祭物을 마련하여 보내고, 額號는 ‘箕子景殿’이라 써서 걸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의 논의가 있었으나, 숙종은 민진후의 주장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⁵⁵⁾ 결국 성천에 위치한 기자서원은 ‘기자영전’으로 사액되었다.

다음으로 용강에 있는 기자영당의 사액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1724년(경종 4)에 咸從과 龍岡의 한씨들이 기자의 자손이라고 하여 사적으로 재력을 모아 용강의 黃龍山城 뒤에 사당 하나를 건립하고 기자의 화상을 봉안한 다음 사액을 청하였다. 이때는 서원 첩설 금지가 강조된 때라서 기자의 화상을 이미 인현서원에 봉안하고 또 성천의 영전에 봉안하였는데 다시 용강에 사액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다.⁵⁶⁾ 그러나 용강의 기자영당은 이듬해인 1725년(영조 1)에

54) 『서원등록』 2책, 乙酉十一月初七日. “一. 今十一月初四日入診時, 禮曹判書閔鎭厚所啓: ‘年前江東儒生韓浚亨等, 以成川箕子書院請額事, 上疏, 自上不令該曹稟處, 而直命依施, 本曹, 以箕子君臨本國, 建院賜額, 事體未安之意, 入啓防塞矣. 後亨等, 又爲上疏, 引平壤仁賢書院及他道孔子書院爲證, 而申謝賜額事, 下本曹矣.’”

55) 『숙종실록』 권42, 1705년(숙종 31) 11월 3일 계해 4번째 기사.

56) 『서원등록』 5책, 甲辰二月初十日. “一. 曹啓目: ‘粘連云云. 觀此平安監司李眞儉

서원 첩설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천의 예에 따라 사액이 허가되었다.⁵⁷⁾ 결국 용강에 위치한 기자영당도 ‘箕聖景殿’으로 사액되었다.⁵⁸⁾

하지만 ‘사사로이’ 기자의 화상을 모사한 다음 서원을 세워 달라고 갑자기 요청하였으니, 후일 폐단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라고 한 趙命臣(1684~?)의 말과 같은 논의가 조정에서 계속되어 이후로는 대부분 사액되지 않았다.⁵⁹⁾

1740년(영조 16)에는 곡산에 위치한 기자영당에 사액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비와 같이 유상운의 청에 의해 모사되었던 기자 화상 3점 가운데 2점은 성천과 용강에 봉안되어 서원과 영당이 각각 사액되었다. 나머지 1점은 처음에 韓德欽의 집에 봉안되었으나, 이 집이 폐망하여 화상을 보관하기 마땅하지 않게 되자, 유학 韓世台 등이 1733년(영조 9)에 谷山府 동쪽 高達山 天王洞에 전각을 건립하고 화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그리고 성천과 용강의 전례에 따라 곡산의 영당도 사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원 첩설 금지가 한창이던 이때는 사액되지 않았다.⁶⁰⁾

狀啓, 則以爲: 「龍岡縣令柳敬如撰呈內『咸從及本縣紳韓世諸人, 以箕聖子孫, 私取財力, 創設一宇, 奉安箕子畫像, 于本縣黃龍山城之後, 鄰近數三邑士林, 與其子孫, 論報請額之意, 縷縷程文, 參商事狀啓, 聞請額亦爲白有置。』…」箕子畫像, 雖是傳本, 百餘年之後, 既失還出, 爲稀貴. 祠宇既成, 道臣至於狀請宣額是白乎矣. 箕子畫像, 奉安於平壤仁賢書院, 仍爲宣額, 今亦似當依此施行. 而院宇之弊, 近來莫甚, 疊設之禁, 前後申飭, 不啻嚴明是白在如中. 箕子畫像, 既爲奉安於仁賢書院, 又爲奉安於成川景殿. 今此所請事, 係疊設有難聽許, 以此回移可知. 雍正二年二月初十日, 行都承旨臣李萬選次知啓, 依允.”

57) 『서원등록』 8책, 庚申五月二十日. “一. 幼學韓世台等上言據, 曹啓目: ‘粘連云云. 觀此上言, 則『… 粵在乙酉年成川景殿, 依仁賢書院現額例, 舉行事, 陳達蒙允爲白遣. 其後乙巳年龍岡景殿瑤額時, 與書院疊設有異, 依成川景殿例定額事, 覆啓蒙允是白如乎。』…”

58) 『龍岡縣志』, 「箕聖景殿延額祭祝文【英宗乙巳. 校理洪鉉輔製進.】.

59) 『승정원일기』 623책, (탈초본 34책) 영조 2년 9월 5일 갑오 21/21 기사.

60) 『서원등록』 8책 庚申五月二十日. “一. 幼學韓世台等上言據, 曹啓目: ‘粘連云云. 觀此上言, 則『殷太師揭處之所, 只是平壤一處, 則實非永世壽傳之道乙仍于. 故相臣柳尙運任箕伯時, 狀請模出三件, 其二則各奉於成川·龍岡, 權奉於中宗派後裔韓

이때까지 평안도 곡산을 포함해 황해도 長淵, 載寧 등지에서 사적으로 모사된 기자 화상은 평양의 송인전으로 옮겨 봉안하게 되었고, 이후로 사적으로 기자 화상을 모사하면 논죄하기로 결정되었다.⁶¹⁾ 이는 당시 강화되어 가던 서원 첩설 금지 분위기와 함께 사액을 통해 균역을 면하고자 한 해주 지역 사건에서 촉발된 것이다.⁶²⁾

앞서 언급되었던 정묘호란 때 잃어버렸던 인현서원 화상의 진본은 훗날 韓氏 성을 가진 승려가 얻어서 長淵에 있는 鶴接寺에 보관해 놓았었다. 이 승려는 자신이 돌아다니다가 잘 보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韓連希에게 맡겼는데, 한연희는 자신이 기자의 후손이라 여겨 보물처럼 보관하였고 이후 4대 손인 韓晉泰에게까지 전해졌다. 1719년(숙종 45) 11월 20일에 그 상자를 가지고 와 인현서원에 돌려주었는데, 인현서원의 화상과 조금의 차이도 없었으므로 그 상자를 서원에 보관하였다. 1721년(경종 1) 10월 21일에 韓命厔 등이 올린 상소로 인해 이 화상은 黃龍山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해주에 사는 한씨들이 균역에 많이 편입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균역을 면제받으려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사사로이 기자의 화상을 모사한 다음 그의 집에 모셔놓고 학접사에 소장했던 진본임을 사칭하고 조정에 상언하였다. 이때 황해감사 徐宗玉(1688~1745)이 조사하여 거짓임을 밝혔다.

德欽家矣. 德欽家敗散之後, 景胤無所依歸, 其矣等, 依成川·龍岡景胤額列, 乃於癸丑秋, 遂構一殿於谷山府之東高達山天王洞, 而移奉焉. … 谷山景胤奉安之所, 獨未蒙宣額之典, 一依成川·龍岡賜額列, 宣額爲白良結, 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殷太師之有大公德於我東, 卽一國舍生之所, 追慕崇奉之節, 比他有別是白乎矣. 景胤所安, 既有成川·龍岡兩家賜額之典, 則谷山之又設景胤, 實從重疊. 至於疊許賜額, 亦有違於疊設之禁. 今姑置之何如. 乾隆五年五月二十日, 右副承旨臣洪聖輔次知啓, 依允.”

61) 『서원등록』 8책, 辛酉二月初七日; 『서원등록』 8책, 辛酉四月二十二日; 『서원등록』 8책, 辛酉五月十八日; 『서원등록』 8책, 辛酉七月初四日; 『서원등록』 8책, 辛酉九月十四日.

62) 서명응 편, 『기자외기』 하권 제7, 묘향 평양 인현서원; 『정조실록』 권12, 1781년(정조 5) 7월 23일 제해 1번째 기사.

곡산 역시 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간직해 둔 모사본을 이용하여 모금해서 이익을 챙기는 등 여러 폐단이 이루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사적으로 모사한 기자 화상을 승인전으로 옮겨 봉안하고, 이후 사적으로 모사하는 것은 금지했다.⁶³⁾ 이후로도 기자 화상 봉안 시도는 여러 곳에서 계속되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779년(정조 3) 2월에 京畿儒生 安撥 등은 상소하여 “문묘 옆에 箕子廟를 따로 세워 孔子와 함께 똑같이 높여 제사를 지내게 한 다음 승인전에 봉안되어 있는 眞像 1본을 移奉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는데, 정조가 윤택하지 않았다.⁶⁴⁾ 또 1781년(정조 5) 7월에도 四學儒生 朴宗堯 등도 상소하여, “廟宇를 重建하고 승인전에 봉안했던 화상을 다시 봉안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정조는 “물러가서 학업을 연마하라”는 부정적인 비답을 내렸다.⁶⁵⁾ 기자 영정을 봉안하는 장소를 이미 사액한 평양의 ‘승인전’과 ‘인현서원’, 평안도 성천의 ‘기자영전’, 용강의 ‘기성영전’으로 한정할 것이다.

IV. 箕子祠의 崇仁殿 승격과 관제의 변화

1611년(광해군 3)에 평안감사 崔瓘은 馳啓하여 “기자의 후손 鮮于寔을 특별히 해조에서 옛 경전을 근거해서 천백년 끊어졌던 후사를 잇게 해서, 평양 士民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면 나라가 報本하는 恩典에 실로 합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광해군이 허락하였다.⁶⁶⁾ 이듬해인 1612년(광해군 4)에 평양의 箕子祠를 崇仁殿으로 승격시키며 선우식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또한 승인전으로 승격하면서 본래 사당 관리 및 제사 설행을 위해 두던 종9품 참봉

63) 『서원등록』 8책, 辛酉五月十八日.

64) 『정조실록』 권7, 1779년(정조 3) 2월 15일 경오 1번째 기사.

65) 『정조실록』 권12, 1781년(정조 5) 7월 23일 계해 1번째 기사.

66) 『광해군일기』[정초본 권46, 1611년(광해군 3) 10월 14일 경진 2번째 기사.

을 혁파하고 종6품 典監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직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선우씨를 기자의 후손으로 확정하며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다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군적에 편입시키지 말고 사당 아래 모여 살면서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광해군은 승지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평안도 관찰사가 이러한 사실을 비석에 새길 것을 청하자 이정귀에게 비문을 지어 올리게 하고 그 비를 송인전 옆에 세우도록 하였다.⁶⁷⁾

府尹에게 명하여 묘소를 증축하고 祠宇를 수리하였으며 祭田과 守戶를 증설하여 제수를 공급하고 청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또 무릇 姓이 선우인 사람은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고 軍籍에 넣지도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자의 사당 아래 모여 살게 하는 한편 近臣을 보내 향을 가지고 가서 사당에 祝祭하여 告由하게 하였으니, 기자를 존송하는 禮典이 이에 이르러 더할 나위 없게 되었습니다.⁶⁸⁾

선우씨를 기자의 후손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603년(선조 36)에 『주역』 명이괘를 강독한 경연 석상에서 기자의 후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자의 후손이 없어 서운하다는 선조의 말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尹根壽(1537~1616)·柳永慶(1550~1608)·尹暉(1571~1644) 등이 그 논의에 참여했다. 당시 논의를 정리하면, 馬韓·辰韓·弁韓 三韓의 국호에서 유래한 淸州韓氏를 비롯해 孔哥·印哥·鮮于哥가 모두 기자의 후손으로 여겨졌지만, 이 가운데 鮮于氏는 ‘기자의 작은 아들이 于에 봉해져 선우라 한다’는 것과 ‘기자의 후손은 구레나루 좋은 노인이 많다[箕子枝裔多髯翁]’는 옛 시가 鮮于樞를 가리킨다는 것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평안도에서 선우씨가 대대로 기자전 참봉을 지냈던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⁶⁹⁾ 또 1611

67)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2, 1612년(광해 4) 4월 27일 신묘 11번째 기사.

68) 이정구, 『월사집』 권45, 「箕子廟碑銘【并序應製】」.

69) 『선조실록』 권165, 1603년(선조 36) 8월 13일 병신 1번째 기사.

년(광해군 3)에 평안도 선비 鄭旻 등도 상소하여 위와 같은 근거로 선우씨가 기자의 후손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자묘 곁에서 산 지 10여 년이 된 선우식에게 그 제사를 맡길 것을 청하였다. 광해군은 평안감사에게 선우식을 찾아보고 보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상소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선우씨를 기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던 것이다.⁷⁰⁾

1623년(인조 1) 반정을 통해 즉위한 인조는 송인전에 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냈고,⁷¹⁾ 1629년(인조 7)에는 鮮于震을 송인전감으로 삼았다.⁷²⁾ 이후로 송인전감은 선우씨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1656년(효종 7) 鮮于楫, 1707년(숙종 33) 鮮于任, 1734년(영조 10) 鮮于堉, 1742년(영조 18) 鮮于說, 1775년(영조 51) 鮮于鈺, 1807년(순조 7) 鮮于銓, 1809년(순조 9) 鮮于慎, 1821년(순조 21) 鮮于璫 등이 차례로 송인전감에 임명되었다.⁷³⁾

앞서 언급한 대로 1612년부터 송인전에 6품 典監을 두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송인전 관제는 여러 이유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는데, 『續大典』, 『大全通編』, 『大典會通』 등 조선시대 법전을 통해 송인전 관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조 대 편찬된 『속대전』에는 송인전에 종5품 令 1인과 종6품 監 1인을 두었는데,⁷⁴⁾ 정조 대 편찬된 『대전통편』에서 송인전감을 선우씨가 세습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⁷⁵⁾ 고종 대

70) 이정구, 『월사집』 권45, 「箕子廟碑銘【并序應製】」.

71) 『인조실록』 권3, 1623년(인조 1) 윤10월 14일 경자 1번째 기사.

72) 『승정원일기』 26책, 인조 7년 윤 4월 24일 기묘 2/6 기사.

73) 『승정원일기』 139책, (탈초본 7책) 효종 7년 5월 17일 을미 11/13 기사; 『승정원일기』 436책, (탈초본 23책) 숙종 33년 6월 29일 경술 23/23 기사; 『승정원일기』 771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1월 12일 기축 10/33 기사; 『승정원일기』 1361책, (탈초본 76책) 영조 51년 3월 23일 경오 8/21 기사; 『승정원일기』 1938책, (탈초본 102책) 순조 7년 12월 19일 병술 15/25 기사; 『승정원일기』 1976책, (탈초본 104책) 순조 9년 12월 3일 무자 16/30 기사; 『승정원일기』 2137책, (탈초본 110책) 순조 21년 1월 13일 을축 17/25 기사.

74) 『續大典』 권1, 吏典_外官職_平安道. “從五品 令 增置崇仁殿 從六品 監 增置崇仁殿”

75) 『大典通編』 권1, 吏典_外官職_平安道. “【崇仁殿】【續】(增)箕子廟在平壤 令 從五

편찬된 『대전회통』에서는 이후 개편된 승인전 관제가 정리되어 있다.

【崇仁殿】【續】〔增〕箕子廟는 평양에 있다. 〔補〕참봉 2인을 둔다. 1인은 吏曹에서 평안도가 천거한 청천강 남쪽과 북쪽의 백성과 암행어사가 추천한 사람을 번갈아 임명하고, 1인은 관찰사가 鮮于氏를 三望으로 이조에 보고하여 의망하여 차정하게 한다. 30개월을 채우면 奉事로 單付하고, 또 15개월을 채우면 直長으로 단부하며, 또 15개월을 채우면 丞으로 승진시켜서 30개월을 채우면 都政에서 內職으로 옮긴다. ○영 이하에 결원이 있으면 다시 참봉을 임명한다. 丞 中6품〔속〕 中5품〔보〕 차례대로 올려주는 임시 관직으로 삼는다. 參奉 2인 中9품〔속〕 監 中6품〔중〕 선우씨가 세습한다. 〔보〕고쳐서 둔다.⁷⁶⁾

이전에 中5품 영 1인과 中6품 감 1인을 두던 승인전은 먼저 中9품 참봉 2인을 두고 임기를 채우면 中8품 奉事, 中7품 直長, 中6품 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승인전 참봉 2인 중 1인은 이조에서 평안도가 천거한 청천강 남쪽과 북쪽 백성, 암행어사가 추천한 사람을 번갈아 가며 임명하고, 1인은 평안도 관찰사가 선우씨를 三望으로 이조에 보고하여 의망하여 차정하게 하였다. 이후 참봉이 30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奉事로 單付하고, 奉사가 15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直長으로 단부하며, 직장이 15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영으로 단부하고, 영이 30개월의 임기를 채우면 內職으로 옮겨 주었다. 그리고 영 이하 관원에 결원이 있으면 다시 참봉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승인전 관직의 세습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 조정에서는 기자에 대한 존송의 차원에서 후손인 선우씨에게 관직을 세습하도록 하였으나, 승인전 참봉 등이 관직 진출의 한 경로가 되면서 후사가 없을 경우 양자

品. 監 從六品.〔增〕鮮于氏世襲.”

76) 『大典會通』 권1, 五十 吏典_外官職_平安道. “【崇仁殿】【續】〔增〕箕子廟在平壤 〔補〕置參奉二員. 一本曹以清南北道薦繡薦人輪差, 一觀察使以鮮于氏備三望報本曹擬差. 滿三十朔權作奉事單付, 十五朔權作直長單付, 十五朔陞付權作令, 滿三十朔待都政內遷. ○令以下有缺還作參奉. 令 從六品.〔續〕從五品.〔補〕作序陞權作策. 參奉二員 從九品.〔續〕監從六品.〔增〕鮮于氏世襲.〔補〕改置.”

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730년(영조 6) 8월에는 평안감사尹惠敎(1676~1739)가 전임 崇仁殿令 鮮于任의 양자를 성급히 정했다하여 待罪하는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⁷⁷⁾

이 일은 이듬해인 1731년(영조 7) 6월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전임 승인전령 선우임이 죽은 뒤로 후사가 없어서 그 양자와 조카가 적통을 다투었는데, 이 일이 조정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선우씨 가운데 현자를 선택하여 후사로 세우되, 혹 양자나 그 조카 중에서 선정하여 속히 후사를 잇게 하여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⁷⁸⁾ 1809년(순조 9)에도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했다.

1809년 2월에 鮮于樞가 擊錚하길, “선우씨가 승인전감을 세습하는 것은 법전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으며, 제 조부가 사망한 뒤에 부친이 承襲하는 것으로 啓聞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9월에 泰川 族人 鮮于郁이 長派라 칭하면서 殿監을 빼앗으려 전 감사에게 소장으로 올렸고, 결국 세습을 빼앗겼습니다. 有司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하고 공정히 판결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⁷⁹⁾

같은 해 5월에 평안감사 徐榮輔(1759~1816)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장계를 올렸다. 서영보가 系譜를 조사해보니, ‘기자의 후손으로 鮮于完·鮮于寬·鮮于寧·鮮于寔·鮮于審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선우녕이 바로 격쟁한 선우규의 8대조였으며, 『平壤志』에는 1612년(광해 4) 崇仁으로 편액을 바꾸고 전감을 만들어 배치했을 때 선우식이 마침 本殿의 참봉으로 있었고 본전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감에 올렸다고 하였다. 또한 崇仁 殿碑文을 살펴보니, ‘선우식에게는 전감 벼슬을 주며 자손에게 대대로 주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문세를 따져보면 여기서 말한 자손은 선우식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⁸⁰⁾

77) 『승정원일기』 708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8월 3일 기해 5/15 기사.

78) 『승정원일기』 725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16일 정미 21/21 기사.

79) 『승정원일기』 1963책, (탈초본 103책) 순조 9년 2월 18일 무신 24/28 기사.

80) 『승정원일기』 1966책, (탈초본 103책) 순조 9년 5월 7일 병인 17/21 기사.

이후 선우씨의 계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선우식의 아들로 鮮于洽과 鮮于浹이 있는데, 선우흡이 관직을 승습하였지만 정묘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하여 관직을 잃게 되었고 선우식의 재종제인 鮮于震이 선비들의 중망으로 전감을 맡게 되었다. 선우진이 후사 없이 죽자 선우협에게 출계하였던 선우흡의 둘째 아들 鮮于楸이 승습하고 鮮于翼에게 전해졌다. 선우익이 일로 인해 관직을 잃게 되자 선우녕의 증손 鮮于瑋가 선비들의 중망으로 전감이 되었다. 이후 4대를 전하여 증손 鮮于鉦에 이르렀다. 이 선우옥이 바로 격쟁을 한 선우규의 조부이다.

선우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선우옥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별 일없이 승습해오던 승인전감을 선우옥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우식부터 승인전감을 내려주고 그 자손에게 세습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그 사이에 비록 여러 대에 걸쳐 관직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세습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서영보는 재작년에 이미 전 감사 趙得永(1762~1824)이 “전감은 선우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손에게 세습하였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에 모두 근거가 있으니 선우식의 자손 중 한 사람을 특별히 그 직임에 차정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조사 시행했던 것이 모두 근거가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조 대 승인전 관제가 개편되면서 승인전에 종6품 전감 1인을 두는 것에서 종9품 참봉 2인을 두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임기를 채우면 종8품 봉사, 종7품 직장, 종6품 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821년(순조 21)에 승인전감이 되었던 鮮于璣은 1824년(순조 24)에 승인전령에 임명되었고, 鮮于濬은 승인전 참봉에 임명되었다.⁸¹⁾

본래 승인전 관원이 천전하는 규례는 없었는데, 1824년에 김조순이 筵奏

81) 『승정원일기』 2186책, (탈초본 111책) 순조 24년 12월 22일 경진 19/24 기사.

에서 이러한 규례를 만들었다.⁸²⁾ 이전까지는 송인전에는 1명의 전감이 있었는데, 전감은 선우씨가 세습하며, 참봉은 평안도 사람을 위해 실제로 직무를 하지 않고 직함만 가지는 借銜에 불과해서 천전하는 규례는 없었다. 1824년 9월에 송인전감은 참봉 2명을 두는 것으로 바뀌되 1명은 항상 선우씨 중에서 차출하고 1명은 청천강 남쪽과 북쪽에 나누어 文行이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차출하고 임기를 다 채우면 京司로 천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송인전령의 경우 문과 급제자와 음관을 교대로 차출하되 평안도 사람이 말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송인전을 기자를 높이 받드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세습직이 아닌 평안도 사람을 위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이다.⁸³⁾

하지만 송인전 참봉 1과를 청천강 남쪽과 북쪽에서 문행이 있는 사람으로 뽑는 일 역시 균형 있게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855년(철종 6) 9월에 병조판서 李景在(1800~1873)가 입시했을 때 한 말을 살펴보면, 당시 송인전 참봉을 의망할 때 대부분 청천강 남쪽에 편중되어 청천강 북쪽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이후로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한번은 청천강 남쪽에서 한번은 북쪽에서 교대로 차출하도록 하였다.⁸⁴⁾

1824년 송인전 참봉이 된 선우준은 1827년(순조 27)에 봉사가 되고, 1828년(순조 28)에 직장이 되었으며, 1827년에 선우준과 함께 봉사가 된 이환오도 1828년에 직장이 되었다. 1830년(순조 30)에 송인전 참봉이 된 黃巒은 1832년(순조 32)에 봉사가 되었고, 1834년(순조 34)에 직장이 되었다. 이렇게 선우씨 이외에도 평안도 사람을 함께 차정하게 되었으며, 종9품 참봉에서 시작한 이들이 임기를 채우면 종8품 봉사, 종7품 직장, 종6품 령에 차례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규례는 현종, 철종 때까지 지켜졌다.

하지만 고종 대에 이르러 송인전 관직이 加設職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사람이 임명되고 체직되었다. 1885년(고종 22) 5월 崔承龍을 가설직으로 송인전

82) 『승정원일기』 2571책, (탈초본 124책) 철종 6년 9월 5일 을축 17/17 기사.

83) 『승정원일기』 2183책, (탈초본 111책) 순조 24년 9월 7일 병신 33/33 기사.

84) 『승정원일기』 2571책, (탈초본 124책) 철종 6년 9월 5일 을축 17/17 기사.

참봉에 단부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운용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임기를 채웠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1885년 이후로는 한 번에 여러 명을 임명하거나 한 해에 수십 명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기자에 대한 존송을 위해 건립하고 운영했던 초기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조선시대 기자는 은주 교체기 현인이자 유학 정치 사상의 전범인 흥범의 저자이며, 중화 문명을 동방에 전수해준 소중화의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자는 전대 시조 및 성인으로 추송되었다. 그 결과 조정에서는 기자의 분묘를 정비하고 사당과 비석을 세웠으며,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또한 기자의 서원을 설치하고 화상을 봉안하였으며, 기자 사당을 승인전으로 승격시켜 그 후손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특히 1604년에는 인현서원이 사액되었고, 1612년에는 기자사가 승인전으로 승격되면서 선우식을 전감으로 제수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다만 기자 추송 과정에서 국가에서 다양한 특혜를 내려주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726년에 기자의 화상을 봉안하는 사당을 만들어 달라거나, 1779년과 1781년에 기자의 화상을 봉안한 사당에 사액을 요청하는 등의 일이 계속되었으며, 1730년과 1809년에는 선우씨의 승인전 관직 세습과 관련하여 후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조정에서는 더 이상의 기자 사당 건립 및 사액을 거부하며 특혜를 이미 사액한 평양의 ‘승인전’과 ‘인현서원’, 평안도 성천의 ‘기자영전’, 용강의 ‘기성영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1824년에 승인전의 관제를 세습직 전감 1명을 두던 것에서 참봉 2명을 두고 천전하는 것으로 개편하면서 참봉 1명은 선우씨 중에서 뽑았지만, 1명은 평안도 사람 중에서 뽑았다. 이로써 선우씨의 세습 지위는 약화되었고, 평안도를 위무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었다.

송인전의 최고 관직인 송인전령에 선우씨 이외의 인물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전시기를 걸쳐 기자 제사 설행, 분묘 정비, 사당·서원 건립 및 사액, 세습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추숭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된 기자의 유적은 중국 사신의 답사처로 활용되었고, 제사 설행·서원 사액·송인전 승격·세습직 설치 등은 국왕권 강화, 평안도 위무책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 기자에 대한 추숭은 전대 시조 및 성인에 대한 존숭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 갔던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高麗史』
『舊唐書』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中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정초본·[중초본], 『仁祖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書院叢錄』
『龍岡課稿』
『箕子廟改碼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RD04054>
- 魯認, 『錦溪日記』
李廷龜, 『月沙集』
徐命膺, 『箕子外紀』
申在植, 『北京錄』
- 김경태, 「임진왜란 시기 朝鮮·明관계와 箕子인식의 양상」, 『한국사학보』 65, 2016.
김남중, 「箕子전송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 『韓國史學報』 65, 2016.
金文植, 「18세기 후반 徐命膺의 箕子 認識」, 『韓國史學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7.
김문식, 「18세기 후반 順菴 安鼎福의 箕子 인식」, 『韓國實學研究』 2, 2000.
김문식, 「星湖 李瀼의 箕子 인식」,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2003.
今西龍, 「箕子朝鮮傳說考 上」, 『支那學』 2-10, 1922 ; 沈喆俊, 「箕子東來與否와 箕候에 대하여」, 『淑大史論』 2, 1965.
朴光用,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6, 1980.
송영대, 「高句麗와 唐의 箕子朝鮮 認識 檢討」, 『역사와 경계』 100, 2016.
신주엽,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大丘史學』 148, 2022.
梁嘉彬, 「箕子朝鮮考」, 『史學彙刊』 10, 1980.
오현수, 「箕子 전송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79, 2012.
- 오현수,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韓國史學報』 65, 2016.
- 유미나, 「조선시대箕子에 대한認識과箕子遺像」, 『강좌 미술사』 44, 2015.
- 尹乃鉉, 「箕子新考」, 『韓國史研究』 41, 1983.
- 윤석호, 「丁若鏞의箕子認識-古法 탐구와의連動을 중심으로-」, 『韓國實學研究』 42, 2021.
- 이강한, 「1325년箕子祠祭祀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2010.
- 정립비, 「한말箕子조선 인식에 대한 재고찰-『大東歷史』에 나타난 기자조선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사립』 65, 2018.
- 조원진,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 조원진,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109, 2023.
- 千寬宇, 「箕子攷」, 『東方學志』 15, 1974.
- 幣原坦, 「箕子は平壤に來りしや否やについて」, 『韓國研究會談話錄』 4, 1905.
- 韓永愚, 「高麗-朝鮮前期의箕子認識」, 『韓國文化』 3, 1982.
- 한형주, 「조선시대崇德殿의 제례의식」, 『한국학연구』 34, 2014.
- 韓亨周, 「조선시대 ‘역대시조묘’에 대한 의례적 고찰」, 『국학연구』 39,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commemorating Gija(箕子) in the Joseon Dynasty

Yi, Nam-ok*

During the Joseon Dynasty, Gija's rituals were held, his historical site was renovated, and a Confucian academy such as Inhyeonseowon was built. This article considers these things as commemorating for Gija and examines their mean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Gija was a wise man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Eun and Zhu dynasties and the author of Hongbeom(洪範), a representative book of Confucian political ideas, and served as a symbol of that transferred Chinese civilization to the East. Accordingly, Gija was exalted as the progenitor of the previous dynasty and Confucian saint.

As a result, the court maintained the mausoleum of Gija, erected the tombstone, and held regular rites every spring and fall. In addition, the Confucian Academy of Gija was established and his portrait were enshrined, and Gija Shrine was promoted to Sunginjeon(崇仁殿). And the court gave his descendants official posts to manage that place. This was the process of commemorating Gija in the Joseon Dynasty.

The well-maintained historic site of Gija was used as a diplomatic space with Chinese envoys. In addition, the execution of rites,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Academy, and the installation of official posts were used as policies to strengthen the king's authority and comfort the people of

*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yongan-do. In short, the commemorating Gija in the Joseon Dynasty began with respect for the founder of the previous dynasty and Confucian saint, but it can be said that it was used politically in various ways.

Key word : Gija(箕子), Commemorating, Mausoleum of Gija(箕子墓), School of Inhyen(仁賢書院), Shrine of Gija(崇仁殿)

논문 투고일: 2023. 05. 31 심사 완료일: 2023. 06. 19 게재 확정일: 2023. 06. 20

『儒林外史』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 私學

김수경*

- I. 서론
- II. 상실의 공간
- III. 도태된 자성
- IV. 반성의 서사
- V. 결론

【국문초록】

을을 지나치게 중시한 중국 풍토에 과거제도가 결합되며 공부는 지위와 신분을 갖는 기술로 화했다. 노력의 본의는 아래에서 위를 향한 인재 선발에 놓였고 학문은 출세 수단을 넘어 인품의 척도가 되었다. 과거를 통해 빈한한 선비들도 공명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교육은 개인의 영달 실현만 조력했다. 당(唐)대 『신동시(神童詩)』는 '천자는 영웅호걸을 소중히 여기니 문장은 너희들을 가르친다. 세상 모든 것이 하품이지만 오로지 독서만이 고귀한 것이다.'라 하고 송(宋)대 『권학문(勸學文)』은 '집안이 부유해지려면 좋은 땅을 살 필요 없다. 책 속에 천 석의 쌀이 있다. 편안하게 살려면 고대광실을 지을 필요 없다. 책 속에 금으로 지은 집이 있다. 밖에 나갈 때 수종이 따르지 않는 걸 탄식하지 말아라, 책 속에 수레와 말이 가득 있다. 장가들 때 좋은 중매쟁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책 속에 얼굴이 옥 같은 여인이 있다. 사나이가 평생의 뜻을 이루려면 창문 아래에서 육경(六經)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에서 본 지침보다 현실은 더 적연(的然)했다. 예사로운 삶을 살던 서민들은 정적(靜寂)한 세상에 이름 한 번 내고 싶었다. 입신하는 확실한 방법도 있었다. 근작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현생을 접고 공부에 매달렸다. 영달에서 시선을 돌린 오경재(吳敬梓)의 눈에 청의 미래가 보였다. 불안하고 격정

* 상지대학교 FIND칼리지 / soosoo@sangji.ac.kr

됐다. 마침내 과거를 비판하고, 교육을 걱정하고, 유생(儒生)은 동정하는 글을 썼다. 우려되는 교육에는 대안을 문인의 학문적 공허함에는 조소를 속사(塾師)의 초라한 삶에는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유림외사』에는 청대 사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사실 정보가 있다. 청의 교육은 과시(科試) 준비 단일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림외사』에 소개된 청의 교육엔 장점과 약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적시되어 있다. 당시 이곳은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고 없어서도 안 되는 곳이었다. 청의 교육과 속사는 청의 종식을 앞당기는 동시에 청을 유지시키는 기저로 작용했다.

주제어 : 淸, 유림외사, 사교육, 義塾, 家塾, 塾師, 科擧, 유생, 풍자

I. 머리말

오경재(吳敬梓 1701~1754)는 명문세족에서 태어났다. 선대를 따라 과거에 응시했다. 두 차례 수재(秀才)에 합격했지만 낙방한 뒤로 과거와 명리에 큰 회의를 품었다. 36살에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¹⁾ 정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병을 핑계 삼아 나가지 않았다. 과거를 통한 출세를 혐의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목표가 없어지고 유산도 탕진했다. 고향 사람들이 아이를 훈계할 때 쓰는 나쁜 본보기가 되었다. 제술(製述)엔 워낙 특출한데다 23살까지 글공부만 한 것은 그나마 장처(長處)가 되었다. 간신히 매문매필로 생계를 유

1)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 : 박학굉사(博學宏辭)·사학겸무(詞學兼茂)를 줄여서 박홍(博鴻)이라고도 한다. 박학홍사란 ‘학문이 넓고 문장이 크다.’는 의미이다. 청의 중국 지배를 지지하지 않은 한인(漢人) 학자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1679년(강희 18)과 1736년(건륭 1) 2회에 걸쳐 시행했다. 옹정말기(1733년)조서를 내려 각 성의 총독(總督)과 순무(巡撫)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박학홍사를 시행했고 이 때 오경재도 추천을 받았으나 병을 이유로 시험에 참가하지 않았다(宋浪, 胡益民, 「‘崑関科第求人’ - 刘大魁与吴敬梓科举观之比较」, 『安徽大学学报』 6, 2014, 55쪽.)

지했지만 책은 다 내다 팔았다. 서른이 넘어 그간 만나왔던 사람들, 청에 대한 걱정, 인생에 대한 회의를 담아 『유림외사』를 쓰기 시작했다. 흥금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데에는 10년이 넘게 걸렸다.²⁾ 유생(儒生)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부조리를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던 사연을 털어놓으니 책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작금에는 중국 6대 고전 소설로 꼽히게 되었다.

노신(魯迅)은 ‘오경재의 『유림외사』가 나타남에 이르러서야 공심을 가지고 시폐(時弊)를 지적했다. 기봉(機鋒)은 사람을 향했다. 문장은 또 슬프면서도 해학을 잘했고 완곡하면서도 풍자가 많았다. 소설 가운데 비로소 풍자 하는 책이 나타나게 되었다. ... 이 뒤로는 『유림외사』처럼 공심으로 세상을 풍자한 책은 거의 없었다.’³⁾고 했고 천현동(錢玄同)은 중국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수호전(水滸傳)』, 『홍루몽(紅樓夢)』과 함께 『유림외사』를 들었다.⁴⁾ 호적(胡適)은 『유림외사』를 백화(白話) 문학의 최고 걸작⁵⁾으로 꼽았다.

『유림외사』에서 오경재는 명(明)을 빌어 18세기 청과 유생, 교육, 과거(科擧)를 이야기한다.⁶⁾ 묘사하는 사건에는 비판이 있지만 염려가 있고 언급하는 인물들을 힐책하지만 동정한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작품에서 본 연

2) 陳美林, 『吳敬梓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11, 293-294쪽.

3) 魯迅: 追吳敬梓『儒林外史』出, 乃秉持公心, 指摘時弊, 機鋒所向, 尤在士林. 其文威而能諧, 婉而多諷. 於是說部中乃始有足稱諷刺之書. ...是後亦鮮有以公心諷世之書如『儒林外史』者.

4) 林文光, 『錢玄同文選』, 四川文藝出版社, 2010, 131쪽.

5) 胡適著, 季羨林主編, 『吳敬梓傳』, 2003, 743쪽.

6) 과거제도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명·청소설은 150여 편 정도이다(鄭榮豪, 「明清소설 속의 과거문화와 지식인」, 『中國語文學論集』 28, 2003, 456쪽 참고). 많은 명·청소설이 입신출세, 매관매직, 관료사회의 부정, 부패, 시험응시와 진행 중 발생한 부정 등을 묘사하고 있어 명청소설에 묘사된 지식인, 과거문화에 대한 연구는 수 십 편이 있다(金曉民, 『明清小說與科擧文化的關係』, 北京大學 박사논문, 2003 참고). 특히 『儒林外史』의 연구는 유생과 과거 시험, 여성, 상인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유림외사』의 과거문제와 연과지어 강화 공간과 속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구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청대 강화공간, 숙사(塾師), 사교육이다. 『유림외사』에 나오는 여러 교육기관은 사건이 생산·가공되는 현장이고 숙사는 이 책을 구성하는 모든 인물이다. 『유림외사』의 유생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선생을 모셔 공부했고 누군가에게 과거 준비를 시키는 선생이 됐다. 책은 촌학(村學)이야기로 시작해 교관(敎館)이야기로 끝났다.⁷⁾ 신여섯 편 중 열여덟 편에서 교육을 거론하고 사숙(私塾), 촌학(村學), 촌학당(村學堂), 학당(學堂), 가족(家塾), 족속(族塾), 의숙(義塾) 등과 같은 강화처는 서른아홉 개 이야기의 배경이었다. 숙사(塾師), 좌관(坐館), 교관(敎館)은 헤아릴 수 없이 나왔다. 작품에 등장하는 술한 선생들은 모두 주인공이었다. 『유림외사』에 기록된 교육과 교육자는 이야기를 견인하는 동시에 당시 교육이 갖고 있던 문제를 공개했다.

II. 상실의 공간

『유림외사』이야기⁸⁾는 원(元) 말 시작돼 명(明) 홍무(洪武)를 거쳐 성화(成化)로 이어진다. 시간적 배경을 명으로 설정해 필화(筆禍)를 피하고 실제로는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 삼조(三朝)의 과거와 교육의 폐단, 지식인의 부조리를 이야기한다.

7) 『유림외사』도입부인 설자는 왕면(王冕)이 서당을 그만두는 이야기이며 마지막 55회의 이야기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던 개관(蓋寬)이 최후에 은 8량을 받고 가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8) 현재 확인된 『유림외사』는 50회본, 55회본, 56회본, 60회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 1803년 간행된 56회본 와한초당본(臥閑草堂本)으로 조사된다. 60회본은 56회본에 4회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朱一玄·劉毓沈編, 『儒林外史資料彙編』, 南開大學出版社, 1998, 207~223쪽). 본 연구는 55회본을 바탕으로 했으며 번역은 홍상훈 옮김, 오경재 지음, 『유림외사』(상하), 을유문화사, 2009와 김관용·김정은 역, 오경재 저, 『유림외사』(1, 2), 을재클래식, 2020을 참고했다.

제목이 말하듯 이 책은 여전히 유생이거나 유생이었거나, 유생을 포기한 인물들의 변이편의 이야기다. 속사는 이 책에 나오는 수십여 명의 유생들이 가장 많이 경력 한 직업이다. 강학처는 주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거쳐 가고 머물러 있는 곳이다. 유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고 좌절 후 돌아가는 곳이다. 또 인물들이 연을 맺고 모종의 사건을 모사(謀事)하는 곳이다. 청이 운용되고 작품이 전개되는데 불가결한 장소이다. 강학처는 교육, 도모, 도피의 기능을 한다. 교육은 두 가지가 진행된다. 하나는 취업 교육이고 하나는 인성 교육이다. 전자는 소설의 소재가 된 실제이고 후자는 작가가 작품에 투영한 기대이다.

1. 과거 준비

청대 부와 명에는 과시(科試) 합격으로 실현 가능했다. 인생의 목적을 영달에 둔 사람들에게 과거는 엄청난 유혹이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일회적이고 편협한 시험에 몰닉했다. 수험생들은 일생을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외우고 기승전합(起承轉合) 대구를 맞추는 문장을 만드는데 보냈다. 때가 되면 적당한 곳에 글공부할 공간을 만들고 선생을 청해 고득점 요령을 익혔다. 극히 일부 거업(擧業)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상이탐을 쌓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이 컸으니 올해는 선생 한 분을 모셔야겠어요, 이 암자를 서당으로 쓰면 됩니다.” 하총갑(夏總甲)이 말했다.

“훈장 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 고(顧)나리 덕에서 그분을 가정 훈장으로 모신지 3년 만에 고씨 덕 자체분이 우리 마을 매(梅)씨덕 셋째 도련님과 함께 작년 수재로 합격 뒀습니다.”⁹⁾

9) 2回：“孩子大了，今年要請一個先生，就在這觀音庵裏做個學堂。”夏總甲道：“先生倒有一個，... 顧老相公請他在家裏三個年頭，他家顧小舍人去年就中了學，和咱鎮上梅三相一齊中的(吳敬梓着，李漢秋輯校，『儒林外史匯校匯評』，上海古籍出版社，2010，9쪽.)

“저는 팔고문을 통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기 짝이 없는 데도 혼장 자리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¹⁰⁾

『유림의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강학처는 ‘촌숙(村塾)’, ‘族塾(족숙)’ 또는 ‘村學堂(촌학당)’ 등과 같은 의숙(義塾)이다. 2회에 나오는 설가집(薛家集) 관음암(觀音庵)에 하총갑(夏總甲)이 세운 학교와 40회에 소운선(蕭雲仙)이 청풍성(靑楓城) 선농사(先農祠)에 세운 학교가 의숙¹¹⁾의 전형이다. 산둥(山東)의 한 마을에서 서당 개학이 논의된다. 아이들이 학교 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은 과거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총갑(總甲)으로 지역 대소사를 수의(隨意)로 좌지우지 하던 하총갑이 관련된 모든 일을 결정했다. 사람들의 의견 조사는 필요 없었고 교육 방향도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교육은 과시에 맞춘 강의 개설과 적화된 선생 고용으로 안착됐다. 관음암(觀音庵)뿐 아니라 다른 사숙이나 가숙에서 하는 교육도 과거 응시 대비였다. 때문에 무서(武書)와 같이 성품이 비범하고 인정 많고 보는 사람마다 탄복하는 문장을 쓰는 기재(奇才)도 팔고문을 지을 줄 모르면 혼장을 할 수 없었다.

가숙(家塾)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진(周進)이 고씨네 가정 혼장으로 들어갔다가 3년 만에 학생을 수재로 만든 것(2회), 왕덕(王德)과 왕인(王仁) 형제가 늙생(廩生) 만으로는 살림이 어려워 가숙을 겸업하는 것(5회), 어느 숙사가 거태수(藎太守)의 집에서 가숙할 때 하나 뿐인 손자를 체벌해 해임된 것(8회), 노편수(魯編修)가 무남독녀에게 가숙(家塾)을 시킨 것(10회), 우포(牛浦)가 숙사를 하기 위해 안동현으로 떠났던 것(23회), 우박사(虞博士)의 할아버

10) 36回 : 門生並不曾作八股文章, 因是後來窮之無奈, 求個館也沒得做(吳敬梓, 위의 책, 2010, 226쪽.)

11) 의숙(義塾)은 의학(醫學)을 지칭한다. 북송(北宋) 범중엄(范仲淹)이 소외된 서민 자제를 위해 설립한 것이 최초이다. 청 강희 41년(1702년)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강희 51년(1713년) 부터는 ‘각 성부주현(省府州縣)에 더 많은 의학을 두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모아 학업을 돕게한다.’는 규정이 설립되었다. 통상 지역 지주나 향민들이 기부로 설립 운영하며 6세에서 11세까지 학생들이 글공부와 독서 같은 몽학 위주의 공부를 가르쳤다.

지, 아버지가 대대로 숙사를 하고 우박사 역시 숙사를 한 것(33회), 심대년(沈大年)이 엄마도 없는 딸을 두고 타향에 가서 숙사를 한 것(41회), 탕진대(湯鎮臺)가 두 아들을 직접 가르치다 급기야 취업고사 전문 선생을 찾는 것(44회), 우화현(虞華軒)이 아들 교육을 위해 여유달(余有達)에게 선생이 되어 달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46회), 개관(蓋寬)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찻집을 정리하고 모씨 집으로 들어가 숙사를 하기로 한 것(55회) 등이 이 책에 나오는 가축이다. 가축이 사회 기층에 광범위 하게 퍼진 것도 오로지 과거 때문이었다. 『유림외사』의 모든 가축이 과거 시험 준비만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노편수는 아들이 없는 까닭에 딸을 아들 삼아 길렀다. 대여섯 살 때부터 선생을 청해 글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사서오경을 배웠고 열두어 살 되면서는 옛 글의 뜻을 설명하고 문장을 읽었다. 그 선생이 우선 왕수계(王守溪)의 문장부터 철저히 익히게 하고 파제, 파승, 기강, 제비, 중비를 짓게 했다. 선생에게 높은 사례금을 주었고 선생도 사내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쳤다. 딸은 워낙 자질이 뛰어난데다가 ... 시험답안 등을 3,000여 편이나 환히 꿰뚫고 있었다. ...

노편수는 늘

“저것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진사 급제, 장원 급제를 골백번이나 했을걸!” 하고 탄식했다. 일이 없을 땐 딸을 앉혀 놓고
“팔고문 하나만 잘 지을 수 있으면 뭐든 다 마음대로 된다.”
고 말했다.¹²⁾

아들이 없는 것이 여한인 노편수는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난 시를 보아도 합격자가 쓴 작품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12) 10回：魯編修因無公子，就把女兒當作兒子，五六歲上請先生開蒙，就讀的是『四書』，『五經』，十一二歲就講書，讀文章，先把一部王守溪的稿子讀的滾瓜爛熟。教他做‘破題’，‘破承’，‘起講’，‘題比’，‘中比’成篇。送先生的束修，那先生督課，同男子一樣。... 這小姐資性又高，... 肚裏記得三千餘篇，... 魯編修每常歎道，“假若是個兒子，幾十個進士，狀元都中來了，...” 閑居無事，便和女兒談說，“八股文章若做的好，隨你做甚麼東西。”(吳敬梓，위의 책, 2010, 9쪽.)

학문이 높다고 믿는 사람이다. 아들이 없는 것을 애석해하며 딸을 아들 삼아 키운다. 과거 시험 자격조차 없는 여식에게 과거 공부를 시켜 딸을 팔고문의 달인으로 만든다. 딸에겐 줄곧 팔고문을 잘하면 ‘세상이 다음 대로 된다.’고 가르친다. 사위를 선택할 땐 한 청년을 글공부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청년이 조만간 거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인다. 사위가 된 청년에게 글을 지어 보게 하지만 법규에 맞는 글이 아님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노편수는 첩을 들여 아들을 낳아 과거 공부를 시킬 계획까지 세운다. 과거 공부를 하고 팔고문에 능통한 노편수의 딸은 남편이 팔고문을 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예 정상이 아니라고 여긴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노편수의 딸이 남편의 무학을 한탄하자 몸종은 아들을 낳아 과거 공부시키길 권한다. 노편수의 딸은 정말 아들을 낳아 과거 공부를 시키기로 한다. 아버지도 딸도 손주도 대를 이어 과거 공부를 한다. 당시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과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함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글로는 도저히 합격할 가망이 없다.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훈장을 모셔 저놈들을 가르치도록 해야겠다.”

(탕)진대는 이렇게 말하며 매일 그 일로 고민했다.

어느 날 문지기가 들어와 아뢰었다.

“양주에 사시는 소씨 님 둘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

탕 진대는 그 말하는 품이 영리한 것을 보고 서재에 앉혀 놓고 음식을 대접했다. 두 아들에게도 나와서 동무하게 했다. 오후에 탕 진대는 자식들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하자면 훈장을 청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꺼냈다. 소백천이 한 명을 천거했다.

“… 그분은 공시생이고 시험 지도를 잘 할 사람입니다.”¹³⁾

13) 44回 : “这个文章如何得中. 如今趁我来家, 须要请个先生来教训他们才好.” 每日踌躇这一件事. … 那一日, 门上人进来颤道. “扬州萧二相公来拜.” … 汤镇台见他说话伶俐, 便留他在书房里吃饭, 叫两个公子陪他. 到下午, 镇臺自己出来说, 要请一位先生替两个公子讲举业. 萧柏泉道. “是一位明经先生, 举业其实好的.” (吴敬梓, 위의 책, 2010, 275쪽.)

탕진대(湯鎮臺)는 『유림외사』에 나온 거의 유일한 지용(智勇)을 겸비한 인물이다. 큰 공을 세우지만 모함으로 세 등급 강등당한다. 이렇게 탕진대는 과거로 실현된 벼슬도 대수로운 것이 아님을 몸소 겪은 사람이다. 그러나 아들들을 데리고 낙향한 뒤로는 두 아들의 거업(舉業)에만 신경 쓴다. 과거 준비에 적합한 선생 찾는다는 신중을 기하지만 자식들의 성품 교육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탕진대의 아들들도 과거와 공명에 큰 관심이 있었다. 다만 이미 선대가 쌓아놓은 성공을 공력 없이 누리는 것에 익숙했고 행실이 나쁜 삼촌과 어울려 놀며 일찌감치 쾌락을 알아버렸다. 합격에 대한 절실함도 노력도 포기도 없었다. 과거 공부를 하는 이유를 몰랐다. 모의고사에서 아들들이 쓴 형편 없는 글을 본 탕진대는 선생을 모셔 두 아들에게 본격적인 과거 공부를 시킬 계획을 세운다. 탕진대는 현직에 있을 때 곁에서 권하는 부정을 귀담아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본업에 성실했고 부정함도 없었다. 올곧은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실력대로 거인이 되길 바랐다. 여타 소설이라면 탕진대의 행실이 인정돼 두 아들의 전망은 좋은 방향으로 설정됐을 것이다. 그러나 『유림외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기록했다. 두 아들은 기숙을 통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사회의 늪에 빠졌다. 오경재는 작품에서 ‘홀륭한 아버지 밑에 미천한 아들은 없다.(虎父無犬子)’고 표현했다. 그러나 탕진대의 아들들은 평범하지도 못했다. 사학에서는 과거 준비만 시켰고 도리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공부는 예로부터 사람마다 꼭 해야 할 일이었지요. ... 명조에 이르러서는 문장으로 선비를 뽑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공자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해도 과거 공부로는 문장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결코 ‘말을 조심하고 행동에 주의하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날마다 그런 소리를 해 보았자 벼슬을 주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공자님의 도(道)도 때가 지났습니다.”¹⁴⁾

14) 13回 : 举业二字是从古及今人人必要做的. ... 到本朝用文章取上, 这是极好的法则, 就是夫子在而今, 也要念文章, 做举业, 断不讲那‘言寡尤, 行寡悔’的话. 何也? 就日日讲究‘言寡尤, 行寡悔’, 那个给你官做? 孔子的道也就不行了.”(吴敬梓,

위에서 과거 공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마이선생(馬二先生)이다.¹⁵⁾ 작품에는 자(字)가 순상(純上)인 처주(處州)사람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오경재의 친구인 풍수중(馮粹中)이다.¹⁶⁾ 풍수중은 실제로 금릉(金陵) 종산서원(鍾山書院)과 정백기(正白旗) 관학(官學)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주지(滁州志)』에는 매우 비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풍수중의 복제인 마이선생도 『유림외사』에 평생 숙사를 하고 과거 시험 모범답안지 작성으로 사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이선생은 입버릇처럼 ‘總以文章舉業為主’을 말한다. 또 ‘과거는 훌륭한 제도이고 관료가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라고 주장한다. 머릿속은 봉건적 설교와 사서오경에서 따온 인용문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은 느끼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 춘추(春秋), 한(漢), 당(唐)의 일까지 모두 외우고 유자(儒子)의 심간을 통견하고 있다. 도처를 떠돌며 숙사를 할 때도 문장을 선택할 때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과거 응시생에게 유리한지 고민한다. 사회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는 착실한 사람이다. 신실하고 악함이 없다. 잇속도 챙기지 않고 허위나 거짓도 없다. 다만 고집스럽게 학문과 교육은 과거 시험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저히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과시 모범답안지를 간행한다. 당시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자였다. 마이선생은 끝내 거업도 이루지 못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지도 못했다.

소운선(蕭雲仙)은 이렇게 말하고 주둔한 군사 2,300명 가운데 글자깨나 아는 병정을 열 사람 뽑아 심(沈)선생에게 매일 학문을 배우게 했다. 그다음 서당을 열 곳 차려놓고 그 열 사람이 서당 훈장 노릇을 하게 하고 백성의 자식들 가운데서 총명한 아이들을 뽑아다 그 서당에 기숙하면서 공부하게 했다. 두 해 정도 가르친 뒤에 심선생은 아이들에게 파제, 파승, 기강 따위 팔고문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 그리하여 그들도 글공부가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를 알

위의 책, 2010, 275쪽.)

15) 陈美林, 『儒林外史辞典』, 南京大学出版社, 1994, 392쪽.

16) 풍수중(馮粹中) : (?~1752), 이름 조태(祚泰), 저서 『치하전후책(治河前后策)』 4권이 있고, 건륭(乾隆)17년 향시에서 순천거인(順天舉人)에 합격했다.

게 되었다.¹⁷⁾

소운선은 학당을 만들고 공생(貢生) 심대년(沈大年)을 초빙해 사랑하는 백성들의 총명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다. 소운선은 청풍성으로 발령 받고 성을 쌓은 뒤 유민들을 불러 모아 살게 했다. 농토를 개간하고 수로 개선도 했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위로했다. 백성들은 소운선의 은덕에 감동해 선농사(先農詞)를 세웠다. 그리고 신위(神位)를 모시고 소운선의 장생녹위패(長生祿位牌)¹⁸⁾를 두었다. 소운선은 진심으로 선의를 베풀었고 사람들은 고마움을 알았다. 소운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평범 이상으로 잘살게 해주고 싶었다. 2세들을 가르쳐 더 큰 세상에 나가게 해주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과거 시험 지도 경력이 긴 선생을 불러 본격적으로 공시 준비를 시켰다.

『유림외사』는 설자(楔子)를 마치자마자 선생과 학생을 모으고 적당한 곳을 정해 교육을 시작한다. 천거된 사람은 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경험이 있는 선생이다.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학생을 찾아간다. 선생을 시켜달라고 자처한다. 과시에 탈락하면 숙사를 할 만한 곳을 찾는 것을 제일 먼저 한다. 숙사는 과거 탈락 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학생과 선생이 연결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학생들은 차안대(遮眼帶)를 쓰고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 앞에 촌학, 사숙, 가숙에서 과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정말 사서삼경(四書三經)에 통달한 사람, 정당한 도리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등 당시를 사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사람이다. 청대 사람에게 교육은 과거 준비였고 강화처는 과거 시험 준비하는 곳이었

17) 40回 : 蕭云仙又道：“只得先生一位，教不来。”便将带来驻防的二三千多兵内，拣那认得字多的兵选了十个，托沈先生每日指授他些书理。开了十个学堂，把百姓家略聪明的孩子都养在学堂里读书，读到两年多，沈先生就教他做些破题、破承、起讲。但凡做的来，… 这些人也知道读书是体面事了(吴敬梓, 위의 책, 2010, 250쪽.)

18) 長生祿位牌 : 생존한 은인의 이름을 쓴 위패로 절 등에 세워두고 은인의 장수와 복을 기원한다. 명청소설에는 『儒林外史』외에 『紅樓夢』에도 자주 묘사되어 있다.

다.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저업이니 이곳에서 과거 외의 교육은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공부해서 시험에 붙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니 조속히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유림외사』속 어느 서생의 말은 청대 사학의 본령이자 범인(凡人)들의 목표였다.

2) 인성 교육

오경재는 인간성을 부식시키는 교육에 대한 회의를 인성교육 시행으로 위로한다. 실제 의숙이나 가숙에서 순수 학문과 인성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교육이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학처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저자가 제안하는 ‘백년지계’의 방향임은 분명하다. 당시 사학 공간에서 실제로 인성관련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또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당시 교육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 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¹⁹⁾ 그러나 당시 충분한 인성교육이 진행되었는데 백발이 되도록 시험에 거듭 실패만 하면서도 현실 자각을 못하는 공시생, 갓은 비열한 수단으로 하층민들에게 이익을 편취 하는 관료, 도박과 여색에 빠져 있는 거인(舉人)들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성교육은 오경재가 『유림외사』를 제시한 이상적인 교육 방향임은 명확하다.

“저걸 좀 보라, 보아하니 백성들도 이젠 살길을 만난 것 같다. 저 아이들이 모두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데 선생을 구해다 글을 가르쳐 주면 더욱 좋을 것 같구나!”²⁰⁾

19) 蘇立, 「从『儒林外史』看吴敬梓的教育思想」, 『滁州学院学报』第19卷, 2017, 1~2 쪽. 『유림외사』의 전반부 32회까지 도적적으로 타락한 인물과 과거와 팔고문으로 점철된 교육을 언급하고 33회 이후 품행이 빼어난 인물, 도덕, 유교적 질서, 효행, 인성 교육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대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 40回：“你看这般光景，百姓们的日子有的过了，只是这班小孩子，一个个好模好样，

“우리 아들놈에게 우선 형님 같은 인격을 갖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

“저의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외가의 형님뻘 되는 여(余)선생님을 모신 건 다름 아니라 품행 방정한 사람으로 길러 달라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 아들 녀석이 권세에 눈이 어두운 소인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²¹⁾

“하늘이 정한 운명을 따르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도리를 깨닫게 하려는 생각에서지, 어쨌든 저 애가 내 슬하에서 즐겁게 지내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²²⁾

46회에서 화천(華軒)에게 가숙을 제안받는 사람은 여유달(余有達)이다. 여유달은 평생 가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문학적 명성이 높고 품행 또한 높아 여기저기 선생으로 초청받는 일이 많았다. 화천의 제안이 있기 전 탕진대가 아들들의 과거 시험공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은 5,60냥의 연봉 제안을 먼저 했다. 그런데 탕진대의 아들이 예의 없는 초청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 여유달은 거절한다. 여유달은 계속 동가식서기숙하며 살다 우화현에게 인성교육을 해달라는 가숙 제안을 받는다. 우화현은 예를 갖춘 초청장을 보내고 곡진하게 아들 공부를 부탁한다. 여유달은 기꺼워하며 승낙한다. 여유달은 기본 인격도 갖추지 않는 사람에게 과거 공부는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균을 웃도는 연봉으로 주관을 바꾸지는 않는다.

여유달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여유달은 무뚝뚝하지만 엄격하고 꼼꼼하다. 내성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 할 줄 안다. 도리를 아는 사람에겐 예를 갖추어 대한다. 여유달은 주관 있고 소양이 있는 선생이자 오경재가 추천하는 선생이다. 여유달이 이상향의 인물이듯 청대 전인 교육은

也还觉得聪俊，怎得有个先生教他识字便好。”(吴敬梓，위의 책，2010，250쪽.)

21) 46回：“第一要学了表兄的品行”...“小儿也还早哩。如今请余大表兄，不过叫学他些立品，不做那势利小人就罢了。”(吴敬梓，위의 책，2010，290쪽.)

22) 8回：“要他知道乐天知命的道理。在我膝下承欢就好了。”(吴敬梓，위의 책，2010，53쪽.)

기대 속에 있는 교육이다. 오경재는 청 교육이 개인의 욕구 실현을 돕고 세속적 성공은 지지하나 지식함양과 인성 지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8회에서 거태수는 ‘교육이 도리를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12회에 나오는 훈장은 열일고여덟 살 된 학생에게 과거를 보라고 충동 질해서 퇴물을 만들어 버리고 원망받고 있다. 12회에 나오는 권물용(權勿用)은 어려서부터 과거 공부를 하다가 낙방 거사가 되어 글방을 차린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과거 공부를 가르쳤으나 나중에 천문, 지리를 가르치고 천하를 구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과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결국 학생들이 오지 않아 글방 문을 닫는다. 인성 관련 교육뿐 아니라 과거와 관련 없는 과목을 들으려는 수강생은 없었다. 오경재는 청대 인성 교육을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지만 기본 바탕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거 공부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Ⅲ. 도태된 지성

1. 교육자의 지위

과거 시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관련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도 많아졌다. 교육계 종사자도 많아졌다.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됐고 교육자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학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수요자 측의 초빙이 없으면 자기 집 문을 열고 제자를 모집했다. 미입사(未入士)가 미입사를 가르치는 것도 흔해졌고 선생 인건비와 가치는 동시에 떨어졌다. 『유림외사』에 나오는 숙사들은 나이가 많고 수염이 덩수룩하며, 행색이 남루하고, 주눅 들어 있다. 대부분 재정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모두 불안정했다. 이 책은 청대 숙사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궁핍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선생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녹봉으로 표현한다.

신상보(申祥甫)가 공수하고 나서 주진을 대청으로 모셔 들여서야 매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진과 대면했다... 매구가 말했다.

“선생님이 재계하신다니 얼마 전 저와 함께 수재로 합격한 현성의 고수재의 부친께 들은 우스운 얘기가 떠오릅니다. ...

“명칭이, 수재, 오랫동안 재계하네, 턱에 수염은 더부룩해도, 경서는 펼치지 않네, 지필은 스스로 마련하고, 내년엔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네.”

매구는 이렇게 시를 읊조리고 나서 말했다.

“노형께서는 학식이 깊으시니까 제가 방금 읊은 그 명칭이야 아니겠지요.”

...

“고나리 댁 훈장님이 바로 주선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매구는 사과했다.

“아하, 그래요? 제가 몰랐습니다. 별주를 들지요, 사실 이 얘기는 주형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수재를 빗대고 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재계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이지요. ... 노형도 올 가을 정제를 지낼 무렵이면...”²³⁾

주진을 숙사로 초빙한 마을 사람들은 개학 전 선생과 학부모 상견 자리를 마련한다. 수재가 된 매구에게 특별히 접객을 맡겨 나름 예를 갖추어 대접하는 듯 연출한다. 하지만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선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식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상석은 마땅히 선생이 앉아야 한다고 자리를 양보했던 매구가 제일 노골적으로 조롱을 시작한다. 매구는 걱정만 한 듯 사람들 앞에서 주진을 놀림거리로 만든다. 내용인즉 자신이 어떤 멍청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우연인지 고의인지 매구가 말한 그 멍청이가 선생으로 초빙되어 지금 자리에 나와 있는 주진이었다.

23) 2回 : 申祥甫拱进堂屋, 梅玖方才慢慢的立起来和他相见. ... 梅玖道: “今日之事不同。”周进再三不肯. ... 只有周, 梅二位的茶杯里, 有两枚生红枣, 其余都是清茶. 吃过了茶, 摆了两张桌子杯筷, 尊周先生首席, 梅相公二席. 众人序齿坐下, 斟上酒来 ... 梅玖道: “我因先生吃斋, 倒想起一个笑话, 是前日在城里我那案伯顾老相公家.” ... “呆, 秀才, 吃长斋, 胡须满腮, 经书不揭开, 纸笔自己安排, 明年不请我自来!” 念罢说道, “像我这周长兄, 如此大才, 呆是不呆的了?” ... “顾老相公家西席就是周先生了.” 梅玖道 “我不知道该罚不该罚? 但这个笑话, 不是为周长兄, 他说明了是个秀才. 但这吃斋也是好事...俺这周长兄, 只到今年秋季 ... (吴敬梓, 위의 책, 2010, 10쪽.)

실컷 놀리고 과거에 꼭 합격하라는 성원도 잊지 않는다. 숙사 주진은 자신을 향한 우롱에 수치도 분노도 비치지 않는다. 무기력하기도 했지만 어떤 감정도 선생을 해야 한다는 절실함보다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진에 대한 무시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고씨이다. 주진은 고씨 아들을 수재에 합격시켰다. 고씨는 주진을 위해 상을 차리고 극단 연회까지 불러 대접한다. 그리고 선생이 없는 데서는 그를 한심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

아래는 주진선생이 고씨집에서 가숙 할 때 짓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 시이다.

呆(dāi), 멍청이
秀才(cái), 수재
吃長齋(zhāi), 오랫동안 재계하네
胡須滿腮(sāi), 턱에 수염은 덥수룩해도
經書不揭開(kāi), 경서는 펼치지 않네.
紙筆自己安排(pái), 지필은 스스로 마련하고,
明年不請我自來(lái), 내년엔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네.

주진은 처량한 '가숙선생'인 자신에 대한 자조를 위와 같은 시로 표현했다. 자칭 'dai'라고 한다. 멍청한 'dai(呆)'이기도 하지만 알량한 선생 자리를 놓고 떠나질 못하는 'dai(呆)'이기도 하다. 매 문장은 '哎ai(아휴, 아이고)'로 끝난다. 숙사 스스로 하는 깊은 탄식과 애통함이 느껴진다. 예순이 넘은 선생은 늙어 수염이 덥수룩하도록 가숙이나 하고 있는데 제자가 먼저 시험에 합격했다. 교재를 미리 보고 수업 준비는 하지 않는다. 이제 더는 외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고씨 집은 소문난 부자이지만 혹여나 수업에 필요한 붓과 종이를 대달라고 했다가 눈 밖에 날까 염려되어 이런 건 월급을 털어 알아서 준비한다. 제자가 시험에 붙었으니 더는 선생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찾아가 부탁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굳이 형식에 얽매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살려 한 글자로 시작해 일곱 글자로 창

작했다. 조흥까지 붙였다. 처량한 처지는 속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사를 은근히 알아보기도 했지만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

“당신이 훈장이겠구먼” ...

하인이 결상을 갖다 놓자 왕 거인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상좌에 앉았고, 주진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다. 주진은 상대가 거인임을 알고 자기를 낮추었다. ...

“이 분은 작년 향시에 거인이 되신 왕나라이십니다, 선생이 모시고 계십시오” ...

한담하고 있을 때 하인이 등불을 켜 놓고 술과 밥에 반찬으로 닭고기, 생선 오리고기를 한 상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왕 거인은 주진에게 권하지도 않고 혼자 먹고 나서 하인에게 상을 치우라고 일렀다. 이윽고 종이 주진의 저녁을 들여왔는데 철이 지난 채소 반찬에 끓인 물 한 주전자만 전부였다.²⁴⁾

“왕거인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는가? 그건 분명 주선생이 우리 마을에서 순 영감네가 돈이 좀 있는 걸 알고 일부러 말을 만들어 명절 때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한 수작이야.”²⁵⁾

하 총감의 얼굴을 봐서 사람들은 그에게 훈장을 그만두라고는 못했다. ... 하총감도 눈치 없이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주진이 미웠다. ... 주진을 그만두게 했다. 선생에서 쫓린 주진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²⁶⁾

24) 2回：“你想就是先生了？”...从人摆了一张凳子，就在上首坐了。周进下面相陪。王举人道，“你这先生贵姓？”周进知他是个举人，便自稱道，“這王大爺，就是前科新中的先生陪了坐著。”彼此說著閑話，掌上燈燭，管家捧上酒飯，雞，魚，鴨，肉，堆滿春台。王舉人也不讓周進，自己坐著吃了，收下碗去。隨後和尚送出周進的飯來，一碟老菜葉，一壺熱水。(吳敬梓， 위의 책， 2010， 11쪽.)

25) 2回：“那里是王举人亲口说这番话！这就是周先生看见我这一集上只有苟家有几个钱，捏造出这话来奉承他，图他个逢时遇节。”(吳敬梓， 위의 책， 2010， 11쪽.)

26) 2回：因是碍著夏总甲的面皮，不好辞他...后来夏总甲也嫌他呆头呆脑，不知道常来承谢，由著众人把周进辞了。来家那年，却失了館，在家日食艰难。(吳敬梓， 위의 책， 2010， 11쪽.)

갓 서른 넘긴 왕거인(王擧人)은 일면식도 없는 주진을 하대한다. 왕거인은 거인이고 주진은 촌학 선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인도 주진에게 왕거인과 말동무를 하고 있으라고 시킨다. 주진은 왕거인이 꿈 이야기를 해주면 공손히 경청하고 간간이 구용도 한다. 이튿날은 일찍 일어나 거인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도 치운다. 거슬릴 일 없도록 삼가 조심한다. 그런데 얼마 후 왕거인이 주진한테 한 이야기가 소문난다. ‘순매(荀枚)라는 아이 이름을 과거 방문에서 봤다.’ 는 왕거인의 꿈 이야기이다. 바로 구설이 생긴다. 소문을 만든 사람은 거인인데 사람들은 주진이 만들 말이라고 단정한다. 주진은 난처하지만 반박하거나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매달 은 한 냥짜리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해임된다. 주진이 선생으로 고용되는데 조력을 했던 사람에게 고마움의 대가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달 연봉 은 12냥 짜리 촌학 선생일지언정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해고당한 주진에게 처남이 찾아와 선생 같은 ‘하찮은(不稂莠不莠)’일 그만하라고 타산적인 충고를 한다. 일거리도 제안해 준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교육을 받아본 적 없던 주진은 “우물에 빠진 앓은뱅이는 건져 올렸다 해도 앓아 있는 그 꼴(癱子掉在井里, 撈起来也是坐)이니 더 이상 잘못될 일이야 없겠지.”라고 말한다. 청대 속사는 ‘不稂莠不莠’하며 ‘癱子掉在井里’같은 직업이다. 저자는 『유림외사』에서 선생이 학부모에게 미성을 기대하는 것은 ‘奉承’으로 고용한 사람이 피고용인에게 마음을 표하는 것은 ‘奉謝’로 표현했다. 촌지를 기대하는 것은 조롱받지만 촌지로 돌아가는 사회였다. 속사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못했다. 속사가 하대받는 모습은 『유림외사』에 자주 묘사되어 있다.

“내년에 우리 백정들한테 글 가르칠 훈장 자리나 하나 줄게 그러면 해마다 은냥 몇 푼 들어올 테니 그거면 자네 늙은 어미와 여편네는 먹여 살릴 수가 있을 거네”²⁷⁾

27) 3回 : 明年在我们行事里, 替你寻一个館, 每年赚几两银子, 养活你那老不死的娘和

원시(院試)에서 1등을 하고 온 범진(範進)이 장인 호(胡)백정에게 향시보러 갈 때 쓸 노잣돈을 좀 얻으려 하자 장인은 위와 같이 말한다. 범진의 장인은 반백 살이 되도록 과거에만 매달려 사느라 시험 보러 갈 노자도 없는 사위가 밍다. 사위에게 오줌을 싸 놓고 복 없는 면상을 비춰보라는 구박도 서슴지 않는다. 범진은 된 옥을 먹고 나면 얼떨떨 하지만 처량한 마음은 접어두고 밥을 굶으며 몰래 향시를 보러 간다. 돌아오면 또 들볶인다. 숙사들은 노골적인 하대를 받아도 원망하지도 돌파하지도 않는다. 숙사들은 비록 공명만 흠모하고 자존감은 없지만 자신을 하대한 사람을 미워하고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다. 훗날 성공해도 복수하지 않는다. 범진이 그랬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고 장항신(張翹紳)에게 축하금을 받아 장인 호백정에게 모두 주었다. 오경재가 숙사에 갖고 있던 지극한 연민은 숙사 누구도 악인으로는 그리지 않고 미약한 사람으로 표현한 데서 드러난다.

여유달(余有達)은 부모의 장례를 마치자 남경²⁸⁾에 가서 두소경(杜少卿)에게 사례도 했다. 돈을 다 써버렸으니 어디 훈장 자리라도 하나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²⁹⁾

여유달은 집에 돌아오라는 동생의 편지를 받았다. 동생뻘 되는 친척 우화헌 맥에 있던 가정 훈장이 사표를 내고 그만뒀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이 있다면 곧 돌아오라는 사연이었다. ... 이튿날 짐을 꾸려 장강을 건넜다.³⁰⁾

你老婆才是正经! (吴敬梓, 위의 책, 2010, 17쪽.)

28) 『유림외사』에서 남경은 문화도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도시, 흥망성쇠의 역사를 표상하는 도시, 작품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묘사되어 있다(최형섭, 『儒林外史와 南京』, 『중국소설논총』 52, 2017, 72~77쪽). 실제로 『儒林外史』에서 여유달이나, 우박사, 어머니도 없는 자식을 홀로 남겨 두고 숙사를 하기 위해 남경으로 가는 모 유생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29) 46回 : 话说余大先生葬了父母之后, 和二先生商议, 要到南京去谢谢杜少卿, 又因银子用完了, 顺便就可以寻馆。(吴敬梓, 위의 책, 2010, 224쪽.)

30) 46回 : 余二先生 有家書來約大先生回去, 說, “表弟虞華軒家請的西席先生去了,

노인이 또

“시험 답안 문집을 몇 권 사다가 읽어 보게. 장차 시험을 보아서 생원이 되면 훈장 자리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길세”

하고 권하여 우(虞)박사는 그 말을 옹계 듣고 답안 문집을 사다가 공부했다.

우박사는 스물네 살에 시험을 봐서 생원이 되었다. 이듬해 20리 떨어진 양가촌에 사는 양씨 성 가진 사람이 훈장으로 청해 갔다. ... 우 박사가 서른두 살 되던 해 훈장 자리에서 떨어졌다. ... 그해 가을에 또 가장 훈장 자리가 생겼다. ... 이어 오륙 년 동안 또 훈장 노릇을 했다. ... 얼마 후 경사로 가서 회사를 보았으나 진사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우박사는 배를 타고 강남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훈장 노릇을 했다.³¹⁾

이때 순매(荀玫)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집에는 어머니밖에 없었
다. 순매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다.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기가 어려워 얼마 되지 않는 전답도 조금씩 다 팔아 버렸단다. 다행히 네가 수재가 되었으니 이후엔 훈장 노릇을 하여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했다.³²⁾

과거 공부를 하던 사람이 계속 낙방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숙사 뿐이었다. 서생들에게 숙사는 보루이자 유일한 대안이었다. 서생 주변 사람들도 공부하다 안되면 선생이라도 하라고 혹은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나마 낙점되지 못하면 무관무직이었다. 존경받는 선생이 되는 방법도 있었다. 과거에 붙으

要請大哥到家教兒子,目今就要進館,請作速回去.”… 次日東裝渡江.(吳敬梓, 위의 책, 2010, 290쪽.)

31) 36回 : “你还该去买两本考卷来读一读,将来出去应考,进个学,館也好坐些.” 虞博士听信了祁太公,果然买些考卷看了,到二十四岁上出去应考,就进了学.次年,二十里外杨家村一个姓杨的包了去教书...虞博士到三十二岁上,这年没有了館...这年下半年又有了館...一连又做了五六年的館...料理去上京会试,不曾中进士...又不曾中.就上船回江南来,依旧教館.(吳敬梓, 위의 책, 2010, 223쪽.)

32) 7回 : 此時荀老爹已經沒了,只有母親在堂.荀玫拜見母親,母親歡喜道,“自你爹去世,年歲不好,家裏田地漸漸也花黃了,而今得你進個學,將來可以教書過日子.”(吳敬梓, 위의 책, 2010, 44쪽.)

면 됐다. 과거에 합격만 하면 선생에 대한 괘시는 괘목으로 변했다.

“이거 바로 주선생님의 장생패(長生牒)아닙니까?”

두 사람이 보니 제물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엔 향로와 축대와 금글자의 패가 있는데 그 패에 ‘진사 출신이신 광동제학어사(廣東提學御史) 현재 국자감 사업으로 승진하신 주 대인의 장생복위(長生祿位)라고 쓰여 있었다. 패쪽 왼편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은 진(進), 자는 궈헌(實軒), 고향은 본촌’이라고 쓰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설가집 사람들과 관음암의 승려가 함께 모심’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 둘은 선생님의 위패라는 것을 알자 공손히 몇 번 배례를 올리고 나서 노승을 따라 뒤뜰에 있는 선방으로 갔다. ... 복판 칸 벽에는 주 선생이 친필로 쓴 주련이 아직 붙어 있었다. ... 매구는 주련을 가리키며 노승을 보고 말했다.

“주선생님의 친필인데 그냥 여기에 붙여 두어선 안 되겠소. 물을 뿌려 떼 다음 잘 표구해 보관해 두어야겠소.”³³⁾

주진은 과거에 합격하고 국자감 사업으로 승진한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 들고 찾아와 축하한다. 주진이 선생하다 내쫓긴 설가집(薛家集)의 수업 현장에는 주진의 장생패(長生牒)가 놓인다. 주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조소하고 군림하던 매구는 누구보다 주진을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 매구는 자기가 수재에 합격할 때 함께 합격한 사람이 주진의 학생이니 자신도 주진의 제자라고 사칭한다. 숙사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이나 저명인사의 막료로 들어가거나 상업적 출판 활동에 종사하면서도 과거 급제라고 하는 좁은 문을 포기하지 못했다. 용문(龍門)을 넘어 상류사회로 발돋움하면 남녀노소 모두 환대했다. 출세를 하고 나니 숙사를 할 때 업신여겼던 사람들의 태도가 판판

33) 7回：“这里不是周大老爷的长生牌？”二人看时，一张供桌，香炉，烛台，供着个金字牌位，上写道：“赐进上出身广东提学御史，今升国子监司业周大老爷长生禄位。”左边一行小字写着：“公讳进，字实轩，邑人。”右边一行小字：“薛家集里人，观音庵僧人同供奉。”两人见是老师的位，恭恭敬敬同拜了几拜。又同和尚走到后边屋里周先生当年设帐的所在，...只有堂屋中间墙上还是周先生写的联对，...梅玫指着向和尚道，“还是周大老爷的亲笔，你不该贴在这里，拿些水喷了，揭下来，裱一裱收着才是。”(吴敬梓，위의 책，2010，44쪽.)

이 됐다. 시험에 합격만 하면 숙사를 하며 하대받던 시간까지 모두 대우받게 됐다. 선생을 무시하는 학생이나 매질을 하려는 장인의 백안시가 거슬리지 않은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시험만 붙으면 상황은 일시에 전복될 수 있다는 신기루를 보았기 때문이다. 숙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바로 같은 숙사이다. 주진은 인생의 전반생을 숙사로 지내다 과거에 붙은 후, 같은 숙사 출신으로 자신과 똑같은 길을 가는 범진(範進)을 동정했다. 주진은 출세한 후 공명을 등에 업고 교만을 부리지 않았다. 측은지심이 예전의 자신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는 범진에게 이입됐다. 동병상련인 범진의 인생을 구체해줄 기로 했다. 숙사가 무능하고 비참하다는 것은 숙사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숙사는 숙사를 하대하지 않았다.

청대 숙사들은 신, 예순까지 숙사를 하며 자기주장은 내세우지 못하고 주변에 순응하는 성격이 형성됐다. 융통성은 없지만 악하지 않았다. 그들의 성격이 복잡하지 않은 것은 선생을 해도 대우받거나 존경받아 본 적이 없고 영혼이 온통 과거에 침식되었기 때문이다. 청의 숙사들은 순수 학문이 극선으로 여겨지던 때나 가능했던 선비의 위신은 내려놓고 욕망만 좇다 힘이 빠진 수동적 인간이 되었다.

저자 오경재가 선생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대목도 있다. 오경재가 당시 선생들을 시시하게 여기는 지점은 현실을 대하는 그들이 서투름이 아닌 허망과 무식이다.

“경명 선생이 술에 취하여 ‘사천에선 소식(蘇軾)의 문장이라도 6등(최하 등급)으로 합격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

거경옥(蘧景玉)은 이렇게 말하더니 소매로 입을 가리고 킬킬 웃다가 “그런데 사업님께서 어떻게 선생님께 그 소매라는 분을 부탁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범진은 워낙 고지식한지라 이것이 농담인 줄 모르고

“소식은 그 문장이 잘 되지 못했으니 찾지 못해도 괜찮겠지만 소매는 은사님께서 뽑아 주라고 부탁한 학생이라 찾아내지 못하면 면목이 없어”

하고 곤란해했다.³⁴⁾

마이(馬二)선생은 속으로 웃었으나 이윽고 한 사람이 또

“이청조(李清照)이신가?”

하고 묻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소약란(蘇若蘭)이 아니시오?”

하고 거듭 물으며 또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주숙정(朱淑貞)이구나!”

하고 외쳤다. 마이선생은

“이 사람들은 뭐가? 공명에 대해선 안 묻는 것 같군! 딴 곳으로 가느니만 못 하군!”³⁵⁾

범진은 춘화에서 배웠고 가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문장 수준이 너무 높아 세 번쯤은 읽어야 그 빼어남이 이해될 정도로 글을 잘 썼다. 거인이 되고 나서는 정3품까지 오른다. 그러나 소식(蘇軾)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 듣는다. 마이선생은 평생 서원(書院)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과거 시험 답안지’를 내면 책방에서 마이선생을 모셔다 훌륭한 답안을 뽑는 이벤트를 한다고 광고를 냈다. 그러나 이청조와 소약란, 주숙정을 몰랐다. 범진은 자신에게 과거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이 순매라는 학생을 잘 봐주라 했으니 그 학생을 꼭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지도 모르는 소동파는 어떤 인물이건 간에 상관없었다. 마이선생도 미문(未聞)의 이청조, 소약란, 주숙정은 안중에 없었다. 공명을 빌 곳을 찾는 게 급했다. 범진과 마이선생 이야기는 과거 시험을 위한 내용 없는 교육의 폐단과 실력 없는 선생들이 가숙과 서원에서 학생들

34) 7回 : 景明先生醉后大声道, … 说罢将袖子掩了口笑。又道, “不知这荀玫是贵老师怎么样向老先生说的?” 範学道是个老实人。也不晓得他说的是笑话, 只愁着眉道, “苏轼既文章不好, 查不着也罢。这荀玫是老师要提拔的人, 查不着不好意思的。(吴敬梓, 위의 책, 2010, 43쪽.)

35) 14回 : 马二先生听了暗笑。又一会, 一个问道, “可是李清照?” 又一个问道, “可是苏若兰?”, 又一个拍手道, “原来是朱淑贞”。马二先生道, “这些甚么人? 料想不是管功名的了, 我不如去罢。”(吴敬梓, 위의 책, 2010, 91쪽.)

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낙방 거사인 오경재는 팔고문에만 능한 문사들의 실력을 잘 알고 있다. 좁고 획일적인 공부로 과거만 준비했던 사람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었다.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선생들은 실력이 없었다.

청대 교육 내용, 교육자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이소성(異所性)이다. 교육은 본분을 잃고 교사는 본업을 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교육과 관계 없는 일이 진행됐다.

“훈장을 할 때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일이 있는데 순매(荀玫) 라는 학생이 있네 ... 사정을 보아 그 애를 뽑아 주게”³⁶⁾

범진(範進)은 스승인 주진에게 한 학생의 동생합격을 부탁받는다. 합격자 600여 명의 답안지를 확인해 보지만 학생의 이름이 보이지 않자 탈락자들의 답안지까지 뒤져본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속이 타서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무슨 낯으로 선생님을 뵈겠는가?(我查不到, 将来怎样见老师)’하며 다음날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미루려 한다. 꼭 청탁을 받아 붙여주어야 할 학생이 있다는 긴급함을 주변에 알리고 막객들을 동원해 고득점자의 답안지를 찾는다. 제자의 합격을 부정 청탁하는 선생, 학정이 되어 스승에게 특정인의 청탁을 의뢰받는 제자, 이를 돕는 막객들의 행위가 모두 자연스럽다. 아무도 부정한 청탁, 내정자의 실력,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교와 사제, 동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도모하고 협력한다. 『유림외사』에는 대리 시험이나 매수, 시험지 바꿔치기 등으로 동생(童生)이나 감생(監生)을 사는 다양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시험 부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스승과 제자로 맺은 학연을 통한 부정 청탁이다.

36) 7回 : “山东虽是我故乡, 我却也没有甚事相烦. 只心里记得训蒙的时候, 乡下有个学生叫荀玫 … 推情拨了他.”(吴敬梓, 위의 책, 2010, 42쪽.)

“학정님 소인의 스승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너의 스승이 누구냐?”

“지금 국자감 사업으로 계시는 주계현 선생인데 존함은 진(進)이라 하옵니다. 소인은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가 주 선생님의 학생이었냐? 좋다 그럼 잠시 곤장만은 면해 준다.”³⁷⁾

황당한 문장을 제출했다가 학정에게 책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매구는 자신과 학정의 관계를 이용한다. 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호소에 같은 스승의 학생이라는 관계를 결부시킨다. 구실을 들어 면죄 받으려는 행위가 수용된다. 매구는 자신이 범진과 같은 선생님인 주진에게 배웠다고 했지만 매구는 주진이 수재가 되기 전 그를 대놓고 모욕하고 조소했던 사람이다.

2. 未入士 근로자

『유림외사』는 당시 숙사들이 어떤 처지였는지 수치로 보여주기도 하듯 구체적으로 그들의 인건비를 언급한다.

1년 보수는 은 열두 냥이고, 매일 식비는 은 두 푼씩이며 절간에서 중이 밥을 해주기로 했다. ...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주진은 학부형들이 보내온 사례금을 펼쳐 보았다. ... 다 합쳐도 한 달 밥값이 안 됐다. ... 꼭 참고서 글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었다.³⁸⁾

종제, 우량은 여유달(余有達) 형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해마다 사례금 40냥을 드리며 명절에는 따로 사례 하겠습니다.³⁹⁾

37) 7回：“大老爺，看生員的先生面上開恩罷。”...“你先生是那一個？”...“現任國子監司業周蕢軒先生，諱進的，便是生員的業師。”...“你原來是我周老師的門生，也罷，權且免打。”(吳敬梓，위의 책，2010，43쪽.)

38) 2回：每年酬金十二兩銀子，每日二分銀子，在和尚家代飯。...學生回去，把各家的見面禮拆開來看，...不夠一個月飯食。...周進只得耐著性子，坐著教導。(吳敬梓，위의 책，2010，9쪽.)

우박사는 스물네 살에 시험을 봐서 생원이 되었다. 이듬해 20리 떨어진 양가촌에 사는 양씨 성 가진 사람이 혼장으로 청해 갔다. 연봉은 은 30냥이었다.⁴⁰⁾

모실 의향이시면 이 분 보다 나은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사례금은 한 해에 은전 5,60냥 정도면 될 겁니다.”⁴¹⁾

개관(盖寬)은 그 뒤 반년 동안 차(茶)를 팔아 살았으나 이듬해 3월에 어떤 사람의 집에 가정 혼장으로 초빙되어 갔는데 한 해의 봉급은 여덟 냥이었다.⁴²⁾

위에 소개된 숙사들의 인적 및 연봉은 아래와 같다.

	나이	과거 응시 내역	경력	연봉
周進	60세 이상	童生 1등 합격, 秀才 낙방	願씨집 자제 3년 지도 후 수재 합격시킴	은 12냥
虞育德	25세	24세 生員, 수재 명성 있음	1. 양씨집 가숙 8년 2. 某씨집 가숙 5~6년	30냥
余有達	50세 이상	貢生, 막객	鹽商집에서 가숙	무관 탕진대 연봉 은 50~60냥 제안 (탕진대가 무례해 수락하지 않음) 虞華軒 : 연봉 40냥 제안
盖寬	70세 이상	없음	전당포, 찻집 운영, 書, 書판매	연봉 은 8냥

이들 외에도 능생을 하며 숙사를 했던 왕덕(王德), 왕인(王仁)형제⁴³⁾, 국자감 교습이 되기 전까지 숙사, 교학을 했던 광형(匡迥) 등은 정확한 연봉은 기록되

39) 46回 : 愚表弟虞梁, 敬請余大表兄先生在舍教訓小兒, 每年修金四十兩, 節禮在外. 此訂.(吳敬梓, 위의 책, 2010, 290쪽.)

40) 36回 : 到二十四歲上出去應考, 就進了學. 次年, 二十裏外楊家村一個姓楊的包了去教書, 每年三十兩銀子.(吳敬梓, 위의 책, 2010, 223쪽.)

41) 44回 : 若要請先生, 只有這個先生好. ... 每年館穀也不過五六十金.(吳敬梓, 위의 책, 2010, 276쪽.)

42) 55回 : 盖寬依舊賣了半年的茶. 次年三月間, 有個人家出了八兩銀子束修, 請他到家裏教館去了.(吳敬梓, 위의 책, 2010, 248쪽.)

43) 5回 : 他兩個阿舅姓王, 一個叫王德, 是學府裏膳生員, 一個叫王仁, 是縣樂稟膳生員, 都做著極興頭的館, 錚錚有名.(吳敬梓, 위의 책, 2010, 29쪽.)

어 있지 않지만 박봉에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좌관의 수입원은 속수(束修), 수포(修脯), 기타 수입이다. 명절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금품을 선물한다. 지도하는 학생이 과거에 붙으면 상여금을 받기도 한다.(2회) 선생 소득은 상당히 차이가 났다. 유명한 선생은 소득이 풍부해 여유롭게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박록에 시달리며 거업과 함께 생활고를 걱정해야 했다.

숙사의 인건비는 정해진 금액도 없고 기본급이 아예 높지 않았다. 실력이 있다고 알려졌어도 과거에 응시해 보았거나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으면 강의료가 낮았다. 동생(童生)보다는 생원(生員)이 생원보다는 공생(貢生)의 연봉이 높았다. 『유림외사』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인건비와 물가는 다음과 같다.

뫼자리 뫼주는데 은 12냥, 뫼중 뫼값 은 10냥, 열네 뫼문 짓는 대가 은 80냥, 장례식 은 300냥 이상, 점사뫼 은 5냥, 납뫼 은 500냥, 중매인 사례뫼 옷값 은 12냥과 식사뫼 은 4냥, 수재 대리 시험 은 1000냥, 집세 1칸 1년 은 40냥(월 10냥 짜리도 있음), 입양 소개뫼 은 20냥(인사뫼 명뫼), 약 한 첩 은 5냥, 관(棺) 은 16냥, 부동산 중개수수료 은 23냥(증명서 작성 뫼도 은 2,30냥), 수재(秀才)자격 은 300냥, 과거 시험 뫼기 뫼한 학교 뫼전 기금 은 120냥(학교 수리뫼 명뫼), 하인 연봉 은 40냥(두소경집 경우)이다. 『李慈銘銘日記』에 근거한 청대 북경의 물가는 쌀 한 섬에 은 2.5냥, 두 칸짜리 방 월세는 은 2냥이다. 월세만 해도 24냥이 뫼요했다. 『過去的錢值多少錢』은 광서(光緒)⁴⁴⁾ 년간 물가를 기준으로 북경 5인 가족의 생계유지 최저 뫼용을 은 48냥으로 추산했고 관리의 인건뫼는 연간 은 100냥 정도로 조사했다. 하덕강(何德剛)의 『낭잠억구(郎潛憶旧)』에 근거하면 형주부사 석뫼(錫彬)의 녹봉은 은 60냥인데 연간 식뫼 지출은 대략 은 20냥 주택, 의뫼, 기타 지출을 고려하면 매년 은 100냥은 있어야 했다. 석뫼는 당시 전형적인 서민층(溫飽型)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⁵⁾ 1729년(옹정 7년) 세워진 함안궁관학(咸安宮官學)에서는 內務府

44) 邵義, 『過去的錢值多少錢』, 上海人民出版社, 2011, 63쪽.

8기 官學生과 8기 만주 관학생 교육을 했는데 여기 입학한 학생들도 최소한 난방용품과 생필품, 매월 은 2냥, 매달 쌀 5석 3말은 지급 받았다.⁴⁶⁾ 이에 근거하면 청대 2차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입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 주진의 연봉은 중매 한 번 잘 서는 정도이고 우박사의 연봉은 부동산 매매 증명서 한번 작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관의 연봉으로는 쌀 세 섬도 채 못산다. 선생에게 더러 촌지를 보낸 학부형도 있었지만 대체로 한 달 밥값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당시 물가로 은 4,50냥은 있어야 겨우 일 년 뼈뺏한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선생은 정원 외의 학생 몇을 더 받거나 다른 일을 추가로 해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가족이 아프면 제대로 약도 사 줄 수가 없었다.

밥벌이가 어려운데도 숙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았고 찾지 못했다. 생업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초로가 되어도 과거 시험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며 전업을 못했던 것은 과거 시험을 대비한 글공부 외에 다른 것은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유림외사』의 공시생 범진은 요괴는 만나지 못하고 백정의 딸과 결혼한다. 장인에게 기대면 먹고 살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에게 빌붙어 살려면 갖은 멸시와 구박은 감내해야 했다. 경제적 기반이 위계가 되는 구조에서 숙사 수입으로 생계를 도모하던 문인들은 하부구조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점점 주변의 노골적인 비하와 궁핍한 삶에 익숙해져 자신을 둘러싼 불편한 업무

45) 『18世纪的中国與世界·农民卷』에 기록된 건륭(乾隆)시기 중간 농가 한 호의 년 수입은 약 은 30량이고 현령 수입은 년 은 1,800량이다. 현령 한 명의 수입이 농가 60호의 수입과 같은 정도이다. 청대 관료의 공식 수입은 1품 관료(내각대학사 등) 1년 급여는 은 180냥에 쌀 180곡, 4품의 지부(知府)는 녹봉 은 105냥, 쌀 105곡, 7품 지현(知縣)은 은 45냥에 쌀 45곡이다. 북경 관료들은 부수입이 들어올 기회가 없다고 하여 옹정(雍正) 연간 녹봉이 두 배로 올랐다. 청나라는 옹정 연간에 지방 관리들에게 공식 보조금으로 염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가장 부유한 양강 총독은 1년에 3만 냥씩 퇴직금을 받았고 퇴직금이 가장 적은 사천 총독도 1년에 1만 3,000냥을 받았다(戴逸, 『18世纪的中国与世界·农民卷』, 遼海出版社, 1999, 286~291쪽).

46) 中华文史网：咸安宫官学.

여건도 크게 개치지 않게 됐다. 아래는 청대 숙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이다.

아이들은 코를 꿰지 않은 송아지처럼 조금만 눈이 가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기왓장을 깨고 공을 차면서 매일 심한 장난을 쳤다.⁴⁷⁾

아버님은 여러 해 동안 타관에 나가서 글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
가셨습니다.⁴⁸⁾

여(余)선생은 우(虞)씨 집에서 가숙을 했는데 아침엔 일찍 오고 저녁엔 늦게
돌아가는게 몸에 배었다.⁴⁹⁾

우리 형제는 나이가 많아서 매일 봐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둘이 각각 다른 고
장에서 훈장 노릇을 하느라 두 해 동안이나 헤어져서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⁵⁰⁾

숙사들은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어도 하루 종일 근무를 하더라도 엄마도 없
는 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나더라도 형제끼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 선
생 자리가 생기면 기꺼이 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해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모두 박봉의 숙사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시학은 불필요한 교육을 하고 숙사는 무시 받지만 서당 교육은 숙사의 생존
에 반드시 있어야 했다. 여러 형태의 2차 교육기관은 교육자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어떤 형태의 교육기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배출에 있
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교육자에게도 이 공간은 절실했다. 그들이 피교육자
였을때 이곳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지만 꿈이 좌절되면 이곳은 최선이자
유일한 '밥벌이'를 위한 도피처가 됐다. 한때 그들을 이끌던 꿈은 그들을 좌절

47) 2回 : 那些孩子, 就像蠢牛一般, 一時照顧不到, 就溜到外邊去打瓦踢球, 每日淘氣
的不得了。(吳敬梓, 위의 책, 2010, 11쪽.)

48) 40回 : 家父歷年在外坐館, 先母已經去世。(吳敬梓, 위의 책, 2010, 260쪽.)

49) 48回 : 余大先生在虞府坐館, 早去晚歸。(吳敬梓, 위의 책, 2010, 290쪽.)

50) 48回 : 我們老弟兄相聚得一日是一日。從前我兩個人各處坐館, 動不動兩年不得見
面。(吳敬梓, 위의 책, 2010, 301쪽.)

시켜 다시 이곳으로 소환했다. 숙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청대 강화처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었다. 유생이자 숙사인 사람들은 시종일관 이곳을 통해 꿈이 실현되길 모색한다. 염원이 실현되지 않으면 다시 찾아와 삶과 연계해간다. 위에 열거한 공간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출현해 유지되고 사회 운영에 기여 하며 누군가에게는 출세와 성공의 전당이 되었다.

IV. 반성의 서사

1. 오경재의 교육관

많은 경우 작품은 저자의 체험이다. 또 화자나 주인공은 저자이거나 이상형이다. 자각하고 성찰한 인간은 탄식하고 개탄하기 마련이다. 탄식과 개탄이 창의적인 언어로 정제되면 문학작품이 나온다. 『유림외사』는 위와 같은 창작 과정을 그대로 좇아 완성됐다. 오경재는 철저한 의도를 갖고 작품에서 인물, 사건, 사물, 시공간을 언급했다. 애증의 대상은 더욱 여러 번 작품에 등장시켰다. 춘학, 기숙, 시숙, 학당, 숙사, 공부는 면면히 나온다. 오경재 자신도 어려서부터 기숙을 통해 공부했다. ‘사서오경’을 외우고 ‘기어(綺語)’와 ‘비함(秘函)’을 익혔다. 십 수년간 과거를 준비하고 23살에 수재에 합격했지만 더이상 과거와 인연은 없었다. 저자는 경서를 통달하고 글재주가 탁월해도 과거에 붙지 못하면 이것들은 더없이 무용한 것이고 과거를 위해 익힌 팔고문은 온당한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체득했다.⁵¹⁾

51) 蘇立, 「从『儒林外史』看吴敬梓的教育思想」, 『滁州学院学报』 19, 2017, 1~2쪽에 서는 오경재가 『유림외사』를 통해 과거제도를 반대해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과거를 무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왕면(王冕)이 서당에서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보고 싶은 천문, 지리 관련 책을 보며 뜻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통해 설명한다고 보았다.

『유림외사』에서 왕면(王冕)과 두소경(杜少卿)⁵²⁾은 귀감이며 저자 자신이다. 오경재, 왕면, 두소경은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⁵³⁾ 세 사람 모두 시문에 탁월한 소양이 있다. 그러나 일찌감치 과거 공부를 정폐했고 과거를 재권유 받아도 사절했다. 또 세류를 싫어했다.

어머니가 샴바느질하여 마을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그 후 3년이 지나 왕면이 열 살 되었다. 어머니는 왕면을 앞에 불러 놓고 말했다. …

“네 뒷바라지를 못할 것 같다. 이제는 별 수 없다. 너를 옆집 소몰이로 보내려 한다. 그렇게 되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내일 가도록 하거라.”

왕면이 말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당에만 박혀 있으면 속이 막 답답해요. 차라리 남의 집 소를 먹이는 편이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책 몇 권 끼고 가서 읽으면 되는 거지요.”⁵⁴⁾

52) 『유림외사』에서 안휘(案徽), 천장현(天長縣)의 수재로 묘사된 두소경은 조상대대로 진사와 거인을 지낸 명문가 집안의 자재로 묘사 되어 있다. 두소경의 집안에서는 두 명의 장원 급제와 2대에 걸쳐 6명의 진사를 배출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로 오경재의 집안에서는 3명의 장원 급제와 4대에 걸쳐 6명의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나왔다. 또 두소경이 『시설(詩說)]을 저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경재 저술 가운데 『시경(詩經)]을 연구한 『문목산방시설(文木山房詩說)]이 있다. 이 책은 현재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오경재가 병을 핑계로 홍박(鴻博)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두소경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순무(巡撫)직을 거절 했던 것 등 많은 유사한 내력으로 오경재는 두소경에게 자아를 투영했던 것이 확인된다(吳敬梓著, 李漢秋輯校, 위의 책, 2010, 370쪽).

53) 符蓀葦, 『論『儒林外史』의自傳書寫 拉曼大學中文系』, 碩士學位論文, 2019, 16~18쪽.

54) 1回: 他母親做些針黹, 供給他到村學堂裏去讀書. 看看三個年頭, 王冕已是十歲了. 母親喚他到面前來, 說道, …“如何供得你讀書? 如今沒奈何, 把你雇在隔壁人家放牛, 每月可以得他幾錢銀子, 你又有現成飯吃, 只在明日就要去了.” 王冕道, “娘說的是. 我在學堂裏坐著, 心裏也悶, 不如往他家放牛, 倒快活些. 假如我要讀書, 依舊可以帶幾本去讀.(吳敬梓, 위의 책, 2010, 1쪽.)

위는 『유림외사』의 설자(楔子) 부분이다. 왕면은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로 공부했다. 현실은 고됐으나 왕면의 미래는 미지(未知)했다. 뒷바라지 3년 만에 현실에 굴복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가정 형편을 알게 된 왕면은 학업을 그만두고 인생 궤로를 바꾸는 것을 결정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기왕에도 서당에 별 흥미가 없던 왕면은 자신이 서당을 다니는 바람에 집이 탕산됐다는 말에 다른 고민은 하지 않았다. 왕면은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출세와는 멀어졌지만 뜻은 호방해졌다. 공명은 포기하고 세속적 욕망과 야심을 모두 버린 은둔지사로 지내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과거 응시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청원과 소환이 번갈아 있었지만 급기야 도망치기까지 했다. 훗날 혼자 익힌 그림과 시문 창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중엔 아예 은거해 살다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이 모여 장례도 치뤄주었다. 하루도 벼슬을 한 적이 없는데 문인 학사들은 그를 왕 참군(參軍)이라 불렀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왕면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답답한 서당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왕면은 오경재가 가공한 이상적인 인물이다. 실존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나 오경재의 인생을 이입해 적당히 각색한 인물이다. 왕면은 동심을 간직한 목동이자, 재능있는 기인이다. 소를 먹이며 연꽃을 그린다. 그가 유난히 잘 그린 그림은 연꽃이다. 왕면이 그린 연꽃은 눈에 있는 생화 같았다. 왕면은 연꽃이었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지만 물들지 않는다. 왕면이 세태에 동화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왕면은 화창하고 버드나무가 아름다운 시절 달구지에 어머니를 태우고 높은 모자를 쓰고 넓은 옷을 입고 채찍을 들고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시골 마을과 호숫가 도처에서 놀았다. 시골뜨기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따라다니며 비웃었지만 인중에 없었다. 왕면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천진난만했다. 그러나 권세의 핍박을 마주했을 때 풍찬노숙하며 도망칠지 언정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는 초가집에서 멀리 떨어져 천하의 창생을 품으면서 ‘이 방법은 잘 정하지 못했구나! 장차 독서인은 곧 영신의 길을 갖게 될 것이며, 그 文行이 나온 근거를 모두 경시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왕면은

소설의 결론이고 취지이다. 그는 작가의 이상과 시대의 이상을 갖춘 선비이자 명류이다. 왕면은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통찰된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오경재가 구하는 중국 선비정신이다. 왕면의 이야기는 오경재가 당시 강학 공간을 얼마나 무소용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이상을 제시한 오경재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자신의 교육관을 말한다. 과시를 위한 교육은 당연히 부정한다. 학문보다도 덕행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형산(遲衡山)이 한담을 늘어놓았다.

“지금 글 읽는 친구들은 과거 시험을 봤거나 시 몇 줄 지을 줄 알면 대단하게 여깁니다. ... 경사의 예(禮)·악(樂)·병(兵)·농(農)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습니다. ... 벼슬을 하는데 아무 공적이 없으면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벼슬을 따름이지요. 그러면 아예 벼슬을 안 하는 게 나아요.”⁵⁵⁾

지형산이 말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다 편견에 불과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학문을 닦는 이들은 학문에만 전념하고, 공명은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명을 얻으려는 이들은 공명을 얻을 궁리만 하고 학문이라는 것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학문과 공명,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 한다면 결국 어느 것도 성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⁵⁶⁾

태백사에서 제사를 지낼 일을 논의했다. 여러 사람이

“그런데 제주(祭主)는 어느 분을 추대할까요?”

라고 했다. 지형산이

“이건 대성인의 제사인 만큼 제주도 역시 ‘성현지도(聖賢之徒)’라야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청해 와야 하겠습니다.”

55) 33回：“而今讀書的朋友，只不過講個舉業，若會做兩句詩賦，就算雅極的了，放著經史上禮，樂，兵，農的事，全然不問！…正爲走出去做不出甚麼事業，徒惹高人一笑，所以寧可不出去的好。(吳敬梓， 위의 책， 2010， 207쪽.)

56) 49回：“遲衡山道”這都是一偏的話。依小弟看來，講學問的只講學問，不必問功名，講功名的只講功名，不必問學問。若是兩樣都要講，弄到後來，一樣也做不成。(吳敬梓， 위의 책， 2010， 309쪽.)

하고 말했다.⁵⁷⁾

앞은 모두 지형산이 한 말이다. 지형산은 마르고 눈썹이 손가락만큼 굵고 눈이 이글이글한 평범치 않은 외모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예·악·병·농과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벼슬을 하는 사람은 업적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높은 학식은 실용적으로 민중을 교화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쓰여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문을 하는 자는 학문만 하고 공명을 추구하는 자는 공명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한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했다.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한 가지 일만 했고 지식 전수와 문화 전파에만 힘을 쏟았다. 지형산은 두소경(杜少卿)의 사촌인 노화사(盧華士)의 가정교사를 했으나 과거 시험을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지형산의 범상치 않은 말투와 고상한 행동을 존중했다. 두소경같이 의식 있는 사람은 한눈에 지형산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그를 조카의 가정교사로 초빙했다. 지형산은 몸소 문화 지식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문화를 중시하고 바른 전통이 세워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태백사(泰伯祠)를 짓고, 태백(泰伯)에게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는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추고자 했다. 지형산이 '성현지도(聖賢之徒)'로 꼽은 인물은 『유림외사』에 '상상(上上)'으로 여기는 우육덕(虞育德), 즉 우박사이다. 우박사는 이상적인 인물이고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진유(眞儒)이다. 우박사도 평생 숙사를 했다. 오경재는 지형산을 통해 실용적이며 구세, 구인하는 교육이 실현 되어야 하는 것과 진짜 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했다.

오경재는 당시 교육 내용, 교육공간, 교육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다. 그러나 오경재는 기껏해야 조금 더 나은 삶이 모색될까 기웃거리려는 서당과 출세하기 위해 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 보수적 이야기만 외우게 하

57) 35回：商議祭泰伯祠之事。眾人道，卻是尋那一位做個主祭？”遲衡山道，“這所祭的是個大聖人，須得是個聖賢之徒來主祭，方爲不愧。如今必須尋這一個人。”(吳敬梓, 위의 책, 2010, 222쪽.)

는 학교를 체념하지는 않았다. 그는 청의 미래를 초잠식지하고 있는 교육 문제 시정하기 위해 글로 써서 널리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강학 공간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동시에 제시 했다. 저자 한 사람의 한탄은 아니었다. 분명 일각에서는 청의 교육이 와오(訛誤) 되었다는 것과 존경받을 사람은 팔고문을 가장 잘하는 460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과거에 인생을 건 문인들이 팔고문, 교육, 숙사를 비판한 이 책을 지극히 애독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은 강학 공간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기득하지 못한 사람들, 즉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2. 각성과 대책

『유림외사』 속 절대 다수 문인들은 출세와 명리를 위해 공부한다. 오경재는 몇몇 자주성이 강한 인물을 통해 이상적인 문인과 교육자, 추구되어야 할 교육을 제시한다. 우박사(虞博士)의 이름 육덕(育德)은 『역경(易經)』 ‘君子以果行育德’에서 따온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훈장을 했고 아버지는 어린 우박사를 서당에 데리고 다니며 공부시켰다. 아버지도 기(祔)씨 집에서 가숙을 했고 우박사도 대를 이어 기씨집 아이를 가르쳤다. 우박사는 따로 선생을 청해 고문, 시, 사를 배우고 나중을 생각해서 시험 답안지를 사다가 독학했다. 24살에 생원이 되었고 양씨네 집에 들어가 8년간 가숙을 했다.

우 박사가 서른두 살 되던 해 훈장 자리에서 떨어졌다. ...

“올해는 어떡하나요?”

하고 아내가 걱정했으나 우 박사는 태연했다.

“괜찮소, 내가 훈장 노릇을 시작한 뒤부터 해마다 정해 놓고 한 서른 냥씩은 꼭꼭 벌었소, 연초에 연봉을 스물 몇 냥이라고 정한 해에는 이거 모자라는데 어떡하나 하고 속을 태우지만 그런 해는 으레 사오월에 가서 학생이 몇 명이 더 늘지 않으면 하다못해 글을 봐 달라고 가져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러저럭 모자라는 액수를 벌충했소. 연초에 몇 냥이라도 더 생기게 되는 해는 났다.

올해는 넉넉하겠다. 속으로 좋아하지만 그런 해는 으레 또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돈이 다 없어지고 말았소, 그러니 역시 정해진 운수란 게 있는 모양이오 공연히 속 태울 것 없소”...

그해 가을에 또 가정 훈장 자리가 생겼다. ... 이어 오륙 년 동안 또 훈장 노릇을 했다. ... 얼마 후 경사로 가서 회시를 보았으나 진사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산동에서 두 해 남짓 보내고 올라가서 회시를 보았으나 역시 또 낙방거사가 되었다. 우박사는 배를 타고 강남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훈장 노릇을 했다.⁵⁸⁾

우박사는 결혼하고도 가숙하던 기노인 집에 의탁해 살았다. 가숙이나 훈장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구태여 도모하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풍수, 복술, 택일 하는 방법을 배워두었다.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다. 그러나 뭇자리를 봐주고 받은 사례금을 돈이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해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나누어주었다. 수재가 되고 자천(自薦)을 권유받지만 점잖지 못하다고 마다했다. 내내 훈장을 하며 지내다가 손이 되어서야 진사가 됐다. 급제한 진사들이 모두 나이를 속였지만 우박사만 고지식하게 많은 나이를 이력서에 그대로 기록해 한직을 제수받았다. 하지만 풍경 좋은 곳으로 발령받았다고 좋아했다. 국자감 박사를 지내며 어려운 학생을 진심으로 도왔다. 학자 기색도 내지 않고 진사 기색도 내지 않았다. 몸종도 시집을 보내주고 몸값으로 받은 돈은 예물로 돌려보냈다. 어려운 조카가 찾아오면 수종의 돈을 모두 내주었다. 사람들은 우박사를 위로는 백이(伯夷)와 유하혜(柳下惠) 아래로는 도연명(陶淵明)에 비교했다. 태백의 제사를 지내야 할 땐 제주(祭主)로 예빙

58) 36回：虞博士到三十二歲上，這年沒有了館。娘子道，“今年怎樣？”虞博士道，“不妨。我自從出來坐館，每年大約有三十兩銀子。假使那年正月裏說定只得二十幾兩，我心裏焦不足，到了那四五月的時候，少不得又添兩個學生，或是來看文章，有幾兩銀子補足了這個數。假使那年正月多講得幾兩銀子，我心裏歡喜道，‘好了，今年多些。’偏家裏遇著事情出來，把這幾兩銀子用完了。可見有個一定，不必管他。”... 這年下半年又有了館 ... 一連又做了五六年的館 ... 料理去上京會試，不曾中進士。... 在山東過了兩年多，看看又進京會試。又不曾中。就上船回江南來，依舊教館。(吳敬梓, 위의 책, 2010, 224쪽.)

됐다. 너그럽고 온유하지만 ‘나는 팔고문 짓기를 싫어한다.(我也不耐烦做时文)’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다. 팔고문은 쓸 줄 몰라도 심복시킬만한 글을 짓는 학생은 자처해서 가르쳤다. 우박사는 훈장과 가축이 생계였지만 구차하게 연연하지 않았다. 속사로 살림이 어려울 땐 다른 일을 했다.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을 했지만 억지로 자리를 구하지 않았다.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주변을 살폈다. 우박사는 오경재가 이상하는 신실하게 학문에 정진하고 진심으로 후학양성을 하는 완미한 지식인이다. 그러나 오경재는 우박사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18세기 청에서 우박사의 형상은 그가 주관했던 제사처럼 견실하고 진중하나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었다. 우박사는 소설에 제안된 이상형이자 염원이었다.

우박사처럼 자족하고 과거가 아닌 데서 살길을 찾고 공명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많은 유생들이 최후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권세에 빌붙어 파렴치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식자 양성이 교육의 소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박사는 현실에 연연하지는 않았지만 시종일관 거업도 포기하지 않았다. 수재(秀才)가 되고 향시(鄉試), 회시(會試)를 모두 치렀다. 그는 벼슬을 우러르지도 않고 벼슬을 마다하지도 않았다. 농사짓는 대신에 벼슬을 했다. 욕심이 있으면서도 욕심이 없었다. 욕망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해방감은 지켰다. 자연과 사회 법칙엔 능동적으로 적응했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내지 않았다. 버팀목이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안했다. 당시 속사로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우박사와 같았다면 오경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사람들도 속사를 우습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박사는 권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외자(局外者)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코 앞까지 와있는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인 범인 중에 범인이다. 단지 무덤덤하게 현실에 순응하고 상식 밖의 일을 싫어 할 뿐이다. 『유림외사』에서 과거에 뜻을 놓지 못하는 술한 유럽들의 나이는 거의 5, 60이다. 하지만 지천명(知天命)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저자는 우박사를 통해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그 결과는 천명(天命)에 맡기고 느슨한 태도를 취해야 초라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과거제도를 포함한 교육 질서와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박사의 인생철학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V. 결론

『유림외사』를 통해 살핀 청의 사교육은 봉건시대의 종식과 중화 민족의 신속한 낙오를 예인했다. 하지만 청이 운용되는 데에는 본의를 잃은 교육과 교육의 장, 교육자는 반드시 필요했다. 『유림외사』에 묘사된 청대 교육은 청의 발전은 저해 하지만 국가를 지속시키는 요체였다. 교육은 ‘불필요’이고 ‘문제’였지만 ‘필요’이자 ‘해결’이었다.

청대 교육의 소임은 과거 응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과거 공부를 위한 기초 학습을 했다. 이로써 기저층까지 교육이 보급 확장되었다. 계몽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서오경을 외우고 파제, 승제, 기강, 입수, 기고, 중고, 후고, 속고를 하는 문자 유희를 익혔다. 진부하고 경직된 내용이지만 술한 사람들의 인내심이 강해졌다. 서민층의 자질 향상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에는 모두 성현을 대신해 입언 하는 것만 가능하게 됐다. 표면적으로 청의 교육에는 인성교육도 포함됐다. 선생에게 과거 공부보다는 인격을 기르고 깨닫는 교육을 해달라는 간청도 있었다. 인간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 될 때는 ‘입이 무거운 선생’, ‘엄한 선생’은 호평받고 ‘과거를 보라고 종용하는 선생’이나 ‘체벌하는 선생’은 해임 됐다.

사학은 유생의 위선과 타자성을 양성했다. 『유림외사』에는 백 수십여 명의 인물이 나온다. 이들 중 유생인 사람은 대부분 선생이다. 도둑, 염상, 농부, 백정, 의원, 승려, 부녀자, 사공 등은 유생과 선생의 부정적 특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유생들은 과거 준비를 하다 실패하면 선생이 됐다. 선생을 해야만 했다. 과거 실패를 우려할 때도 대책은 선생 뿐 이었다. 선생

을 하는 것이 청대 유생들의 거의 유일한 출로였다. 거업이 목표인 사람이 많아지니 실패한 사람도 많아지고 선생을 해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사교육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선생들의 수입은 백정, 사공, 중개인만도 못했다. 사회는 남루하고,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을 잃은 숙사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었다. 교육자에 대한 존경과 위엄은 없었다. 교육자를 향한 멸시는 거시 합격으로 바꿀 수 있었다. 시험에 합격한 숙사에겐 부와 명예 그리고 가르친 적 없는 제자, 태어나지 않은 고향, 없던 인품이 생겼다. 사학은 여러모로 미입사 유생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생존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학 공간은 도태자를 양성했지만 도태자가 기탁 할 곳이 되기도 했다. 이곳에선 약순환이 반복됐지만 인맥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구성되었다.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기도 했고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비정상적으로 유지 되지만 명맥이 끊어지면 안되는 공간이었다.

『유림외사』에 언급된 청대 사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경재 실건을 바탕으로 한다. 오경재는 오랫동안 가숙을 하고 여기서 배운 것은 과거 시험 당일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교육 현장 밖에서 보니 문제가 보였다. 청의 교육으로는 이치를 깨닫고 도덕적 수양은 할 수 없었다. 오래 교육을 받을수록 삶은 피폐해졌다. 청의 사교육은 인재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었다. 1905년 과거 시험은 폐지되고 1912년 청이 무너졌다. 청의 교육이 공식적으로 쓸모없게 되었다. 숙사도 필요 없게 됐다. 그릇된 교육으로 신속하게 낙후되어 가는 청을 우려한 오경재는 청 종식 150년 전 교육과 지식인이 바뀌기를 당부했다.

【참고문헌】

- 金諍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 홍상훈 옮김, 오경재지음, 『유림외사』(상하), 을유문화사, 2009.
- 김관웅·김정은 역, 오경재 지, 『유림외사』(1, 2), 올재클래식, 2020.
- 조관희, 『『儒林外史』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정영호, 「『明清소설 속의 과거문화와 지식인』, 『중국어문학논집』 28, 2004.
- 나선희, 「『清代의 상인계층- 소설 『儒林外史』의 계층이동모습』, 『중국인문과학』 38, 2008.
- 박민수, 「『儒林外史』를 통해본 清初 江南지역의 士人과 商人」, 『동아문화』 47, 2009.
- 최형섭, 「『儒林外史』와 南京」, 『중국소설논총』 52, 2017.
- 胡適, 「吳敬梓年譜」, 『努力周報』, 1922년 12월 3일~1923년 5월 13일.
- 戴逸, 『18世紀的中國與世界·農民卷』, 遼海出版社, 1999.
- 吳敬梓著, 李漢秋輯校, 『儒林外史匯校匯評』, 上海古籍出版社, 2010.
- 吳敬梓著, 『儒林外史』, 大眾文藝出版社, 2010.
- 陳美林, 『吳敬梓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11.
- 邵義, 『過去的錢值多少錢』, 上海人民出版社, 2011.
- 唐彪, 『家塾教學法』, 中國畫報出版社, 2017.
- 饒丹婷, 「從《儒林外史》看明清私塾教育」, 成功教育, 2012.
- 符蓀韋, 「論『儒林外史』的自傳書寫」, 拉曼大學中文系, 碩士學位論文, 2019.
- 宋浪, 胡益民, 「『豈關科第求人才』- 劉大櫟與吳敬梓科舉觀之比較」, 『安徽大學學報』 6, 2014.
- 李鵬飛, 「『儒林外史』第五十六回爲吳敬梓所作新證」, 『中國文化研究』, 2017.
- 蘇立, 「從『儒林外史』看吳敬梓的教育思想」, 『滁州學院學報』, 2017.
- 陳文新, 「論吳敬梓的儒生情懷與社會觀察」, 『大慶師範學院學報』, 2020.
- 兰婷, 「論『儒林外史』中的科舉民俗敘事及意義」, 今古文創, 2022.
- 張旭, 「『儒林外史』中的小人物形象」, 『鄂州大學學報』, 2022.
- 張緣緣, 「淺析『儒林外史』中的正面人物形象」, 參花, 2023.
- 馬福華, 「從《儒林外史》看吳敬梓的教育思想」, 『淮北師範大學外國語學院』, 中華文史網, 2023.

Abstract

China's 18th-century Private Education seen through “*Unofficial History of the Scholars*”

Kim soo kyung*

As the classical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was integrated into the Chinese cultural climate that emphasized literature, studying became a criterion for character beyond the means of career success. Studying was a means of becoming a public official rather than cultivating knowledge, and the intention of effort aimed for talent selection and recruitment to the top from below. As the civil service exam was opened throughout society, allowing poor scholars to gain honor, education helped realize individual dream. Tang Dynasty's *“Prodigy Poetry”* says ‘The emperor (son of Heaven) cherishes heroes, and the sentence teaches you. Everything in the world is dull and boring, but only reading is noble’, and Song Dynasty's *“Quen Xuewen (a writing recommending studies)”* said: ‘There is no need to buy fertile answers for the family to be rich. There are a thousand tons of rice in a book. There is no need to build a grand, palatial mansion to live comfortably. There is a house built with gold in a book. Do not lament that the servicemen do not follow when you leave the house. A book is full of wagon and horses. Do not deplore that you do not have a good matchmaker to get married. There is a girl with a jade face in a book. For a man to achieve his lifetime goal, he must diligently read the Six Classics under a small window.’ The reality was clearer than the guidelines

* Sangji University / soosoo@sangji.ac.kr

in the book. Kāng xī, Yōng zhēng, and Qián lóng ruled for 130 years. This time is not a long period of stability where nothing has happened. It's a time of constant erosion. People lived normal lives without knowing the crisis. Ordinary people studied hard to become famous in a quiet world. The uncertain future was collateral. Watching this Qing society, Wu Jingzi criticized the civil service exam, worried about education, and sympathized with Confucian scholars, even suggesting alternatives to worrisome education. While he ridiculed the academic emptiness of Confucian School, he pitied the humble life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Unofficial History of the Scholars"* has facts in Qing's private education and teachers. The Qing's education introduced in *"Unofficial History of the Scholars"* acted only for preparing the civil service exam, but it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positive and negative elements. At the time, it was a space that could neither be denied nor affirmed. Qing's education and private school teachers were summoning its end, but they also acted as its basis.

Key word : Qing, *Unofficial History of the Scholars*, Private education, village school, private tutor, scholar, civil service exam, satire

논문 투고일: 2023. 05. 16 심사 완료일: 2023. 06. 19 게재 확정일: 2023. 06. 20

- 후보

1. 주요 연혁

2023. 04. 28. : 한국서원학회 4월 연구발표회

2023. 06. 09 : 한국서원학회 6월 연구발표회

2023. 06. 29~30 : 한국서원학회·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Asian and North African 학부 공동국제학술회의 <조선시대 書院과 서양 중세 修道院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2. 활동

■한국서원학회 4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조선시대 王族 流配 研究-仁城君 李瑛·海原君 李健 父子를 중심으로-(노춘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儒林外史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 私學(김수경, 상지대학교)

■한국서원학회 6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조선후기 용산서원의 운영과 그 특징(정재훈, 경북대학교)

발표 ② 도남서원의 공부 모임[學契]과 공부[講學] 전통의 계승(김정운, 경북대학교)

발표 ③ 서애학의 원형과 그 응용 : 대학강회와 병산의학(屏山醫學)(권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서원학회·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Asian and North African 학부 공동국제학술회의 <조선시대 書院과 서양 중세 修道院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2023. 06. 29~30)

· 29일 1부 <학문활동과 지식문화인프라>

기조 발표 ① 조선시대 서원의 성립과 발전(이수환, 영남대학교)

발표 ② 조선(朝鮮)의 서원(書院) : 장소성(場所性)과 공간다움- 임고(臨臯)·도산(陶山)·병산서원(屏山書院) -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③ 서원(書院)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을 중심으로(윤혜민, 건국대학교)

발표 ④ 도남서원의 공부 모임(學契)과 공부(講學) 전통의 계승(김정운, 경북대학교)

발표 ⑤ 서애학의 원형과 그 응용 : 대학강회와 병산의학(屏山醫學)(권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⑥ The Academic Discourse on East Asia between Florence and Berlin(Axel Rudiger,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 30일 2부 <전통시대 학문 공동체의 다양성>

발표 ① 조선후기 용산서원의 운영과 그 특징(정재훈, 경북대학교)

발표 ② 서원 제향인물의 초상화를 통해 본 복식문화(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③ 청대 만주족 서원- 旗人서원과 八旗교육(김수경, 상지대학교)

발표 ④ The Oriental Workshop of Paris's Imprimerie nationale, a place of knowledge between the end of the 18th and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Fabien Simon, Paris Cité University)

· 30일 3부 <지식의 실천성과 사회적 참여>

발표 ① 덕천서원과 남명 조식의 실천 유학(송치욱, 남명학연구원)

발표 ② 조선후기 상주 옥동서원의 운영 방식(김순한, 영남대학교)

발표 ③ Studia and monastic itinerancy. The case of San Giusto (Volterra) after the black Plague(Andrea Barsacchi, University of Pisa)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1) 3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17~19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상반기 연구발표회 및 주요 행사 일정 확인
 - (2) 한국서원학보 제16호 원고 모집 공고(안) 논의

2) 5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17~19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국제 학술대회 원고 투고 관련 상황 점검
 - (2) 한국서원학보 제16호 투고 논문 확보 방안 논의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은,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¹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심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¹⁾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²⁾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광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 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기 임원명단(2022.3~2024.2)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 장 : 김학수(한중연)
부 회 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정수환(한중연)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재무이사 : 윤혜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수경(부산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단국대), 이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신채용(국민대), 이치역(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영남대), 김지운(공주대), 임근실(단국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김수경(상지대) / 전라·제주 김봉근(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권지은(한중연)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흥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한중연), 정우락(문학, 경북대), 한형조(철학, 한중연),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식(문학, 충북대), 이치역(철학, 공주대), 김지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근(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간사 : 이자영(한중연)

중신회원(2006~2023)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한,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韓國書院學報 제16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3년 6월 23일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